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2-27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Measures for Jeollabuk-do

장세길 신지원 김수지 조현성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2-27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Measures for Jeollabuk-do

장세길 신지원 김수지 조현성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 책임	장세길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2장 1절, 3장, 4장, 5장
공동 연구	신지원	전문연구원	제2장 3절, 3장 1절, 5장
	김수지	전문연구원	제2장 3절
	조현성	비상근초빙연구위원	제2장 2절

연구관리 코드 : 22JU1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수립되는 제2차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계획(2023~2027)과 관련하여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자치와 분권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지역으로 대부분 이양됨. 전라북도가 과거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던 정책개발과 사업기획을 담당해야 함. 또 기초지자체에 사업을 제공하던 수준에서 광역 차원의 진흥을 선도해야 하는 역할도 주어짐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문화자치 핵심요소(제도, 재정, 추진체계와 자치역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자치기반을 점검하고, 달라진 역할 변화에 따라 전라북도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요소별 전략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문헌 검토)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 학술자료 및 문화예술교육법 관련 정책자료, 유사 지원정책 및 문화예술 관련 정책 관련 자료를 검토함
- (관계자 조사) 전라북도 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공무원, 도지원센터·기초문화재단·문화예술교육단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차 전복계획 평가, 제2차 전복계획의 과제를 주제로 심층 면접을 진행함. 도출된 과제를 기초로 관계자 30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제2차 전복계획의 방향과 필요 과제에 대하여 의견(온라인설문) 조사함
-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화 된 전략과 과제(29개)에 대하여 추진 주체인 도·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한 업무협의를 통해 제2차 전복계획에 반영할 최종 과제 24개를 확정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발굴 결과

- 이 연구에서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준용하되, 제1차 전북계획의 이행점검, 지역 여건과 사례 분석,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더 많은 도민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자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9대 전략, 24개 과제를 제안함
- 제1차 전북계획과 비교하여 특징을 살펴보면, 법률이 정한 정책 범위(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등)로 확장하여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교육사업도 제2차 전북계획에 반영함. 또한 문체부에서 광역시·도로 주요 정책·사업이 이양된 만큼 달라진 전라북도 역할에 맞춰 세부 과제와 추진체계를 제시함
- 제1차 전북계획이 광역의 자치기반에 주목하였다면 제2차 전북계획에서는 기초의 자치기반에 주목하여 과제를 발굴함. 기초에 자율성을 주려는 포괄형 통합 지원 제도, 계획기간에 달성할 재정목표 제시, 전라북도 특화형 문화예술교육 대상(문화유산 교육, 장애인과 외국인주민 교육 등) 선정과 과제 제안, 3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실현도 제2차 전북계획의 특징임

■ 문화자치에 따른 지역의 역할 변화 필요

- 제2차 전북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데 있어 문화자치라는 환경 변화로 지역의 역할이 달라졌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문체부로부터 이양받은 사업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방식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할 과제를 새롭게 발굴해야 함. 특히 문화자치 관련 첫 번째 계획이므로 문화자치 구성요소(제도, 재정, 추진체계와 자치역량)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함
- 도 지원센터도 단순 위탁사무 또는 직접 사업을 지양하고, 문화자치에 맞게 기초와 연계하는 플랫폼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여야 함. 이는 전라북도에서 도 지원센터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달라진 기능에 맞게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도 지원센터도 달라진 환경에 맞는 기능을 실행하여야 함을 뜻함

차례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3
 가. 연구배경 3
 나. 연구목적 4
2. 연구 내용 5
 가. 연구 범위 5
 나. 세부 연구내용 5
3. 연구 체계 6
 가. 연구 방법 6
 나. 계획과제 수립체계 7

제2장 환경 분석

1. 제1차 전복계획 이행점검 11
 가. 제1차 전복계획 개요 11
 나. 제1차 전복계획 이행 실태 15
 다. 제1차 전복계획의 이행 성과 및 한계 27
2. 정부 정책과 제2차 종합계획 방향 34
 가. 제1차 종합계획 이후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이슈 34
 나. 정책 동향 검토 39
 다.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방향 43

3.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 여건 55

 가. 전라북도 현황 분석 55

 나. 전라북도 민선 8기 방향 70

제3장 계획 방향 설정

1. 제2차 전북계획의 수립 방향 75

 가. 환경 분석에 따른 주요 과제 75

 나.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81

2. 제2차 전북계획의 방향과 전략 85

 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조사결과 85

 나. 제2차 전북계획의 방향과 비전 체계 94

제4장 문화예술교육 지원과제

1. 지역화 기반 강화 101

 가. 기초 중심의 기반 마련 101

 나. 안정적 재정 확보 116

 다. 문화예술교육 공급기반 확충 및 강화 124

2. 참여 확대와 고도화 129

 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129

 나.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37

 다. 학교 및 평생교육 연계사업 활성화 145

차 례

CONTENTS

3. 사회적 가치 창출	149
가. 문화예술교육 치유와 돌봄 확산	149
나. 문화예술교육의 경제적 가치 창출	154
다.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예술교육 강화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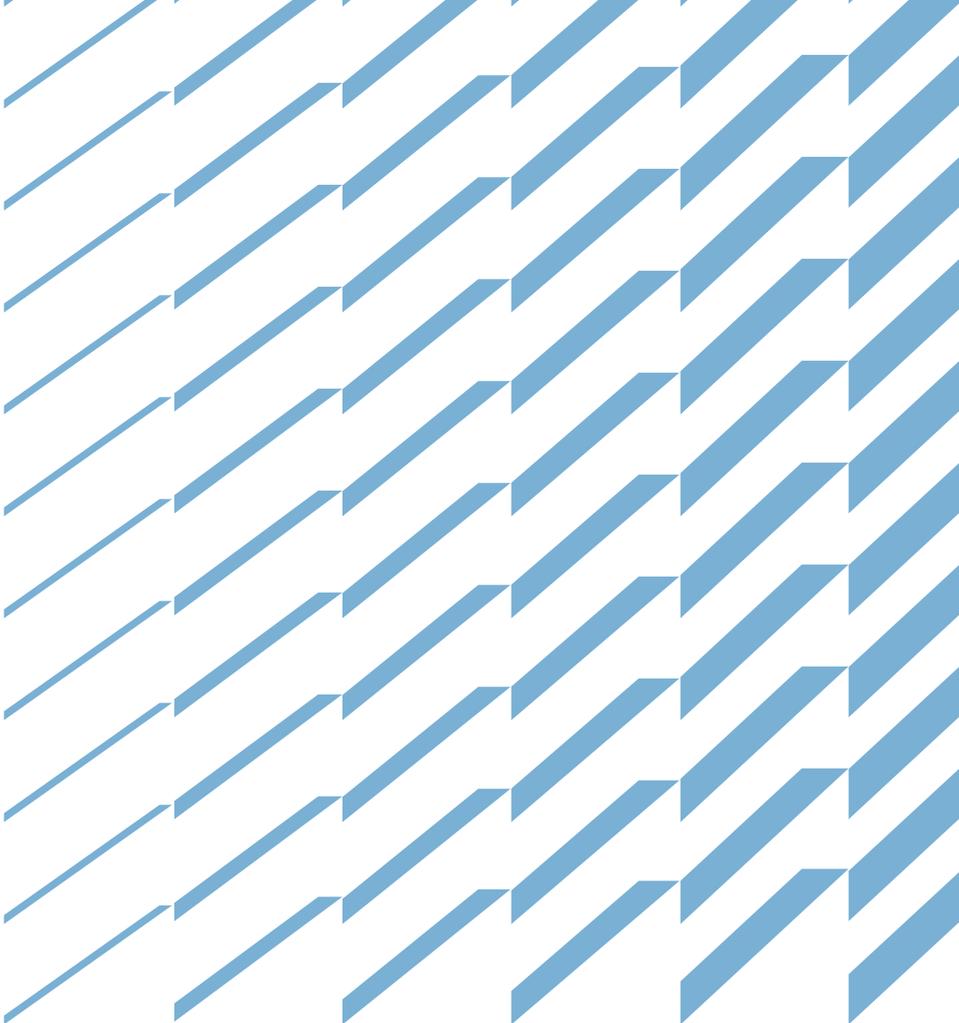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169
2. 정책 제언	173

참고문헌	175
------------	-----

영문요약 (Summary)	17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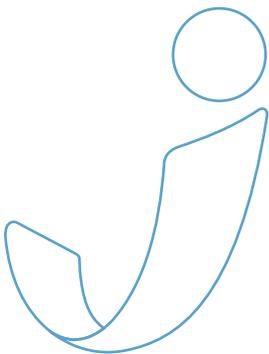
부 록	183
--------------	-----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체계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배경

■ 제1차 전북계획의 평가와 제2차 전북계획의 수립 필요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6조)(이하 문화예술교육법)에 따른 제1차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이하 전북계획)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과제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환경 변화를 고려한 차기 전북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야 함
- (전북계획 수립의 근거) 『문화예술교육법』(제6조 4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법 제6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행령 제2조의 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②
1. 삭제 <2015. 5. 18.>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지역 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자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별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차 전북계획 수립에서도 그랬으나, 갈수록 중요한 ‘지역’ 주민의 수요와 요구, ‘지역’ 현장 의견이 중요해짐. 제2차 전북계획에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상향식 계획 수립을 설계하고 실효성이 큰 과제를 발굴하여야 함
 - 1차 계획수립 시 정책연구·자문회의·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현장 활동가는 체감형 과제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함. 이러한 이유에서 현장 중심의 ‘상향식’ 계획수립의 요구가 큼

■ 관련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광역 주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계획 필요

- 자치와 분권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지역으로 대부분 이양되었음. 전라북도가 과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담당하던 정책개발과 사업기획을 담당해야 함. 또 기초지자체에 사업을 제공하던 수준에서 진흥을 선도해야 하는 역할도 주어짐
- 달라진 환경과 확장된 역할에 맞춘 새로운 정책기반이 필요함. 문화자치 핵심요소(제도, 재정, 추진체계와 자치역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자치기반을 점검하고, 광역 단위에서 필요한 요소별 전략과 과제를 계획에 담아야 함

나. 연구목적

■ 제2차 전북계획 수립 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한 정보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전담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제2차 문화예술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임
 - 1단계로 제1차 종합계획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2단계로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영역별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3단계로 종합계획의 정책방향과 목표, 실행 및 점검체계를 검토함
- 제2차 전북계획에는 제1차 전북계획을 평가하고 정부의 제2차 계획 방향을 적용하여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따른 결과에 대응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제2차 전북계획의 방향과 전략과 추진과제를 수립하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즉 이 연구는 전라북도가 제2차 전북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방향과 참조할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 내용

가.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전체

■ 시간적 범위

- 여건 분석과 제1차 전북계획의 평가는 2018~2022년(시행계획 평가는 2018~2021년)까지이며, 제2차 전북계획과 관련한 시간적 범위는 2023~2027년임. 현황과 통계 등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집하되, 내용에 따라 기준 일시가 달라질 수 있음

나. 세부 연구내용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환경 분석

- (법률 검토) 제1차 전북계획 수립 이후에 개정된 문화예술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제2차 전북계획에 담아야 할 과제를 도출함
- (주요 이슈) 문화자치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현안 과제를 살펴보고, 2021년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체에서 제시한 28개 세부과제를 분석함

■ 제1차 전북계획의 이행 평가

- (이행 평가) 제1차 전북계획의 주요 과제의 이행률과 이행에 대한 주요 특성을 분석함. 제1차 전북계획의 이행과 관련한 주요 특징과 한계, 과제를 도출함
- (과제 도출) 제1차 전북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이행에서 도출된 성과, 광역과 기초 간 연계협력의 과정과 주요 내용 등을 분석하고, 주요 전략과 추진과제 등 시사점을 도출함

■ 제2차 종합계획(문체부)의 방향 분석

- (방향 적용)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대응하여 수립 중인 정책방향과 주요 전략을 파악하고, 전북계획에 반영하도록 주요 내용을 지역 특성에 맞춰 재구성함
- (지역 특성) 제2차 종합계획의 방향과 전략을 반영하되, 전라북도 여건과 지역 현안, 지역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에 적용 가능한 방향과 전략을 도출함

■ 제2차 전북계획의 방향과 과제 도출

- 제1차 전북계획의 평가, 종합계획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 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과 주요 전략을 도출함
- 정책 방향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추진할 문화예술교육 지원안을 수립하되, 문화자치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추진과제를 여러 사례를 참조하여 제안함

3. 연구 체계

가. 연구 방법

■ 문헌 검토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 학술자료 및 문화예술교육법 관련 정책 자료, 유사 지원정책 및 문화예술 관련 정책 관련 자료를 검토함

■ 설문 조사

- 전라북도 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2차 전북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델파이조사를 진행함. 1차 조사에서는 제1차 전북계획의 평가와 과제, 제2차 전북계획과 관련한 환경과 주요 이슈 등을 물었고, 1차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2차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질문함

■ 관계자 면접 조사

- 담당 공무원, 지원센터 관계자, 시군 지원조직(문화재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차 전북계획 평가, 제2차 전북계획의 과제 등을 주제로 심층 면접을 진행함

■ 사례 조사

- 다른 시도 지원센터의 내용, 발굴 과제별 사례를 검토함. 주요 사례는 문헌자료 및 인터넷 검색, 관련 기관 등을 통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함. 조사사례를 검토하여 제2차 전북계획에 담을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구상함

■ 전문가 자문

-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담당자, 문화예술교육 활동가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함

나. 계획과제 수립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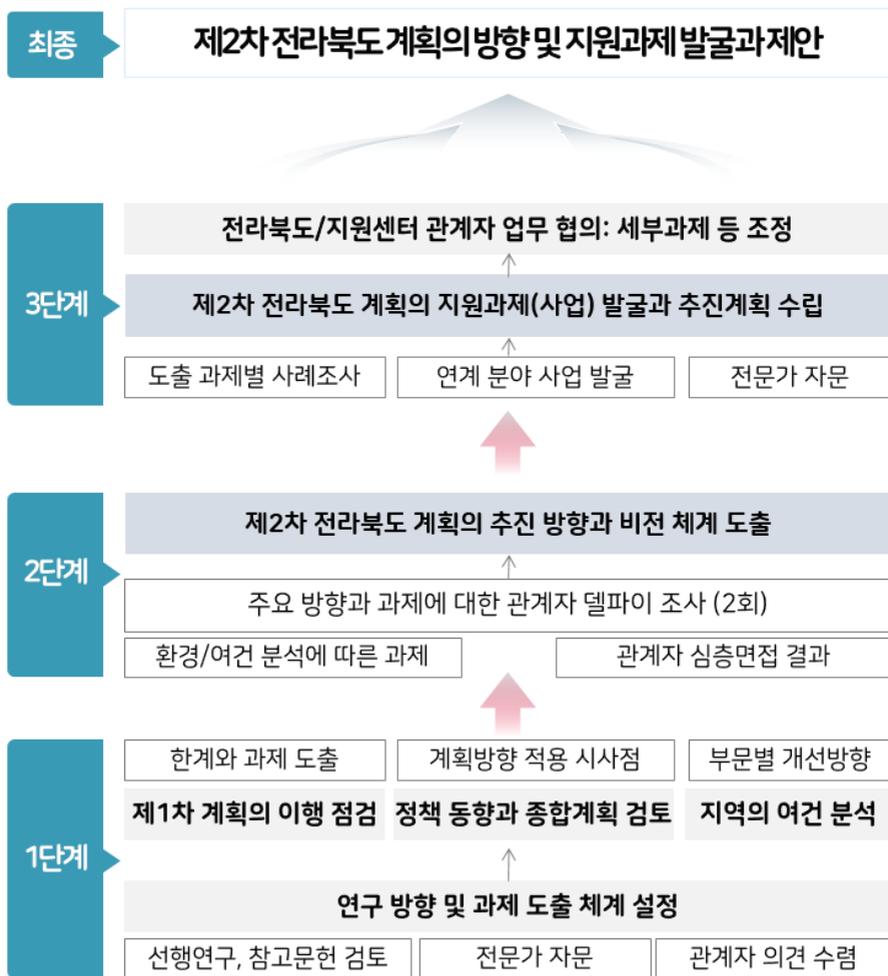
■ ‘평가와 환경분석’-‘방향과 비전 설정’-‘전략과제 도출’의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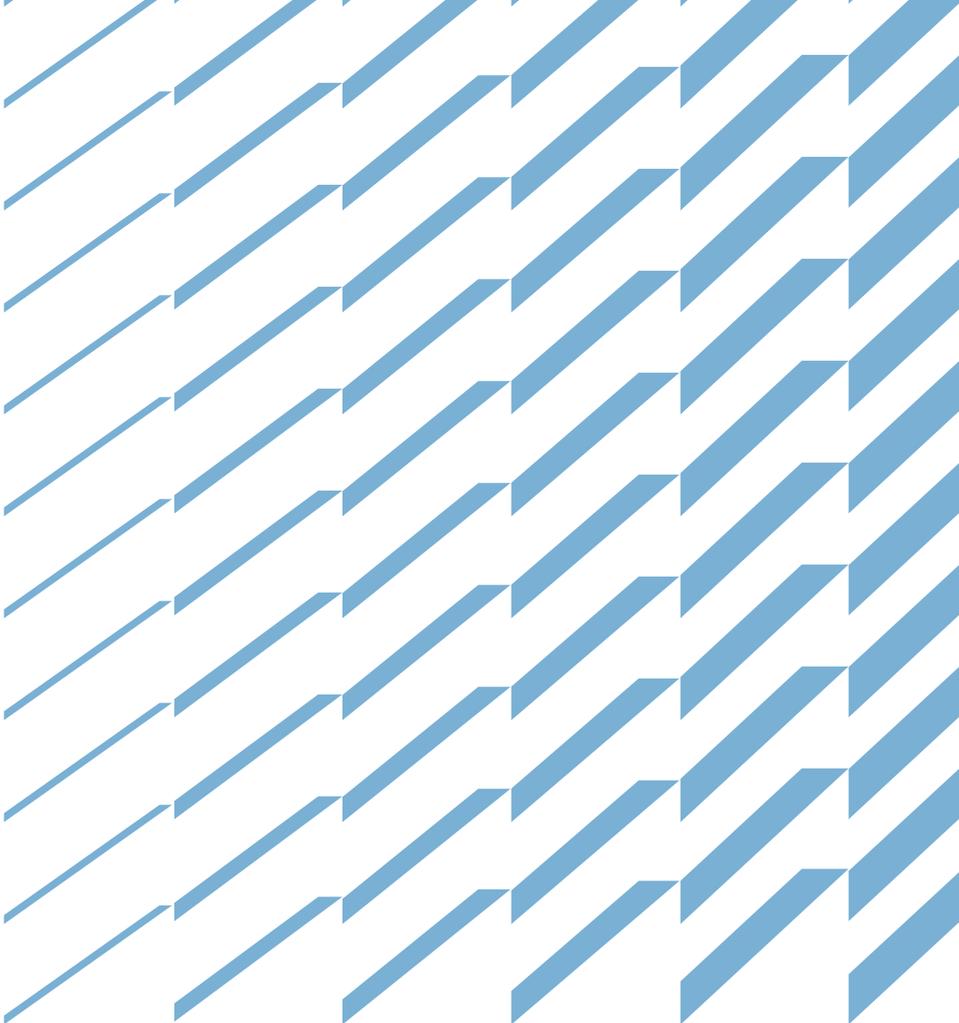
-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1차 전북계획을 평가하여 한계와 과제를, 정부 정책과 종합계획의 방향을 분석하여 제2차 전북계획에 담을 시사점을 도출하고,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전라북도 기반(재정, 시설, 인력 등)을 분석하여 주요 과제를 검토함
- 특히 계획기간과 맞물려 있는 민선 8기(2022~2026) 전북도정 방향을 분석하여 제2차 전북계획의 전략방향 수립에 적용함
-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정책 관계자(공무원, 도·시군 문화재단)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수행함
-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한 계획의 과제와 방향을 기반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2차 전북계획의 방향과 비전체계, 추진전략을 도출함. 전라북도 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30명에게 델파이조사 기법을 활용(2회 조사)하여 주요 내용을 구체화함

- 세 번째 단계에서는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방향과 전략에 맞춰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함. 과제와 관련한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의 세부 내용을 마련함. 또한, 수립된 과제에 대하여 전라북도 담당부서,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계자와 업무협의를 거쳐 과제의 실행력을 높임
- 이러한 과정을 거쳐 3대 목표, 9대 전략, 24개 과제가 발굴됨

[그림 1-1] 연구 결과의 수립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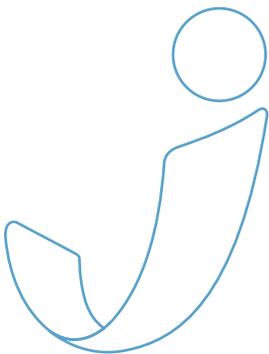




제 2 장

환경 분석

1. 제1차 전북계획 이행점검
2. 정부 정책과 제2차 종합계획 방향
3.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 여건



제2장 환경 분석

1. 제1차 전북계획 이행점검

가. 제1차 전북계획 개요

■ 추진 경과

- 「문화예술교육법」 제9조에 의거하여 2018-2022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반영한 2018-2022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함

■ 주요 내용

- 계획기간(2018~2022) 내에 실현할 비전은 “생활에서, 모두가 향유하는 ‘전북’ 문화예술교육”으로 설정하였음

[표 2-1] 제1차 전북계획의 비전과 핵심 키워드

비전	생활에서, 모두가 향유하는 ‘전북’ 문화예술교육	
핵심 키워드	생활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집과 직장에서 걸어서 30분 이내 혹은 자동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의미
	모두가	(수혜대상의 확대) 기존에 취약계층 중심, 학생 중심의 사업 발굴과 추진에서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 전라북도민 전체로 정책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
	향유하는	(문화향유의 질적단계) 문화향유의 단계에서 질적 전환(단순관람▶직접참여)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집중하겠다는 것을 의미
	전북	(지역여건 반영 및 브랜드화)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계획 수립과 사업 발굴, 우수 콘텐츠의 지역브랜드화를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

- 전북계획의 미션과 비전(“생활에서, 모두가 향유하는 ‘전북’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할 3대 목표, 9대 전략, 28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음

[강화전략(SO)]

- ①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민간 중심의 교육사업개발 및 지원
- ② 재단을 중심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사업 발굴,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영역 확대

[보완전략(WO)]

- ① 높아진 관심을 사업확대로 이끌 제도적 장치(조례, 협의체, 기초센터) 마련, 운영
- ② 민간 중심의 우수한 교육콘텐츠 발굴 및 지역브랜드로서 지원 확산

[극복전략(ST)]

- 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조직 재설계 및 체계 구축
- ② 민간중심의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장 확대에 필요한 사업발굴 및 제도 개선

[방어전략(WT)]

- ① 기회이자 위기인 문화분권시대에 사업확대를 위한 정책영역 재설정 및 국비신규사업 적극 대응
- ② 국가공모 사업 적극 대응 및 평생교육·생활문화 정책 연계, 재원 확보 및 사업 확대

1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인식 확산

2

지방분권 대비 민간 중심의 지역생태계 구축과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 지원 확대

3

지역여건에 맞고 지속가능한 교육 위한 전북형 교육콘텐츠 개발과 브랜드화

생활속에서 누구나 누리는,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진흥

비전

생활에서, 모두가 향유하는 '전북' 문화예술교육

3대 목표, 9대 전략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마련

- ①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진흥제도 마련
- ②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구축 및 활성화
- ③ 문화예술교육 정보 구축 및 재정 확보

민간 주도의 생태계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지원 확대

- ① 문화예술교육 공간확충 및 연계 증진
- ② 생애주기별 교육 및 소외계층 교육 확대
- ③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연계사업 증진

교육콘텐츠의 지역브랜드화 및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확산

- ① 전북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 ② 문화예술교육의 홍보 강화 및 성과 확산
- ③ 전북 문화예술교육국 내외 교류 활성화

미션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계획기간 내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진흥기반 마련

- 세부 28개 과제별 추진 시기와 계획예산,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5개년 동안 모두 28개 사업에 29,216백만 원이 투입되는 걸로 계획됨. 자원별로 보면 국비가 17,510백만 원, 도비가 9,156백만 원, 시군비 2,500백만원, 기타는 50백만 원으로 계획됨
 - 2018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은 3개이며, 대부분 2019년부터 추진되는 걸로 계획됨
 - 추진주체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며, 추진주체 및 기초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단체 간 협력 시행을 원칙으로 삼음

[표 2-2] 제1차 전북계획의 세부과제 총괄표

9대 전략	사업	추진 시기	자원별 예산액(백만원)					세부 사업내용
			합계	국비	도비	시군	기타	
			29,216	17,510	9,156	2,500	50	
1-1 전라북도 문화예술 교육 진흥제도 마련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19~20	-	-	-	-	-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환류 강화	18~22	70	20	50	-	-	5개년 수립 및 협의회 운영
	문화예술교육사 활동영역 확대 및 확산	19~22	960	480	480	-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
	문화예술교육인력 연수제도 마련 및 역량강화 지원	20~22	170	-	170	-	-	기반구축사업(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연수지원사업)
1-2 문화예술 교육 협력망 구축, 활성화	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18~22	21	-	21	-	-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운영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19~22	2,340	-	2,340	-	-	기반구축사업(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 광역기초재단간협력사업)
	생활문화·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21~22	10	-	10	-	-	관련 간담회 운영
	문화예술교육 민간협약체 설립, 활동 지원	21~22	-	-	-	-	-	관련 간담회 운영
1-3 문화예술 교육정보 구축 및 재정 확보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통계 및 자료 관리체계 구축	21~22	70	-	70	-	-	
	문화수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재정계획 수립	19~21	-	-	-	-	-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추계 등 협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지도 및 수요-공급매개 체계 구축	20~22	60	-	60	-	-	기반구축사업(지원지도제작사업)
2-1	어린이예술원, 문화예술교	19~22	10,000	10,000	-	-	-	어린이창의체험관 조성과 프로

교육공간 확충 및 연계 증진	육 거점별 전용공간 확충		5,000	2,500	-	2,500	그램 운영
			500	300	200	-	꿈꾸는예술터 공간 구축과 운영 관공서 유휴공간 활용 공간지원
	문화기반·생활문화시설 연 계 예술교육 공간화	19~22	2,160	1,280	880	-	문예회관연합회 예술감상 교육
	예술인 창작공간 활용 생 활 속 교육 공간 확대	21~22	200	-	200	-	예술가의 문화예술교육 공간화 및 프로그램 발굴 시범사업
2-2 생애주기 별/ 소외계층 교육 확대	미취학 아동 대상 문화예 술교육 활성화	19~22	1,200	600	600	-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 술교육사업 지원 확대	22~	150	-	150	-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22~	195	120	25	-	50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인문학 연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확대	19~22	400	-	400	-	기반구축사업(문화예술교육콘텐츠 연계지원사업)
2-3 학교-사 회 문화예술 교육 연계사업 증진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연계사업 활성화	18~22	100	-	100	-	어린이대음악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학교문화예술교육콘서트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및 지역특성화 사업 내실화	19~22	4,400	2,200	2,200	-	기반구축사업(꿈다락토요문화학 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창의적 문화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캠프 운영	19~22	400	-	400	-	창의적 문화영재 육성지원 사업
3-1 전북형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질 적 제고 위한 컨설팅 지원	19~22	40	-	40	-	기반구축사업(문화예술교육인큐 베이팅)
	우수 콘텐츠 발굴·지원, 콘텐츠산업 연계 개발	19~22	80	-	80	-	기반구축사업(문화예술교육4.0 콘텐츠개발지원시범사업)
	교육 연구개발 프로젝트 운영 및 연구개발 확대	19~22	320	-	320	-	기반구축사업(현황조사연구)
3-2 문화예술 교육홍보 강화와 성과확산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 및 홍보 강화	19~22	120	-	120	-	기반구축사업(지역문화예술교육 홍보지원사업)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박 람회 개최	21~22	160	-	160	-	기반구축사업(전라북도문화예술 교육통합박람회)
3-3 국내외 교류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의 국내 교류 활성화	19~22	70	-	70	-	기반구축사업(전라북도문화예술 교육포럼개최)
	문화예술교육의 국제 교류 활성화	22~	20	10	10	-	해외현장 연수 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

나. 제1차 전북계획 이행 실태

1) 다른 시도와 비교 평가

■ 2018~2020년 이행 예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20년을 기준으로 시도별 지원계획의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에서는 첫 번째 전략인 제도·정책기반 마련을 제외하고 두 부문 전략에서 처음 계획했던 예산을 초과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전북 전략 1. 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한 제도적·정책기반 마련: 1,731백만원 → 1,036 (695 감소)
전북 전략 2.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지원확대: 16,600백만원 → 24,026 (7,426 증가)
전북 전략 3. 교육콘텐츠의 지역브랜드화 및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확산: 310백만원 → 419(109 증가)

[표 2-3] 지역별 정량적 이행상황 분석결과 (단위: 백만 원)

연번	지역	추진전략	계획 예산	실제 집행	증감액
1	서울 (2018~2020)	1. 문화예술교육 일상화	2,399	2,365	▽34
		2. 문화예술 다양화	14,629	14,499	▽130
		3. 문화예술 체계화	7,310	6,890	▽420
		총계	24,338	23,754	▽584
2	부산 (2018~2020)	1.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생태계화	7,790	2,677	▽5,113
		2. 문화예술교육의 수요 특성화	7,997	8,798	△801
		3.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2,290	1,791	▽499
		총계	18,077	13,266	▽4,811
3	대구 (2019~2020)	1.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9,981	2,077	▽7,904
		2.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20,883	4,128	▽16,755
		3.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3,905	1,145	▽2,760
		총계	34,769	7,350	▽27,419
4	인천 (2018~2020)	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접근성 강화	4,624	4,144	▽480
		2. 문화예술교육 기반과 생태계 구축	7,068	921	▽6,147
		3.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강화	390	692	△302
		총계	12,082	5,757	▽6,324
5	광주 (2019~2020)	1. [삶디자인역량강화] 모든 곳이 학교다	2,720	2,497	▽223
		2. [배움생태계조성] 모든 것이 연결된다	265	184	▽81
		3. [지역주체 기반강화] 지역이 주체다	1,510	806	▽704
		총계	4,495	3,487	▽1,008
6	대전 (2018~2020)	1. 수요자 맞춤형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	317	317	-
		2. 인적·조직적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지원	1,434	1,434	-
		3. 지속가능한문화예술교육 기반 확장	3,248	3,403	△155
		총계	4,999	5,154	△155
7	울산	1. 지역특화문화예술교육의 기반확대	7,196	1,895	▽5,301

	(2018~2020)	2.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952	2,010	△1,058
		3.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다각화	5,195	4,576	▽619
		총계	13,343	8,481	▽4,862
8	세종 (2018~2020)	1. 지역특화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확산	3,447	6,859	△3,412
		2. (역량)지속가능한문화예술교육 진흥 역량 강화	2,088	2,084	▽4
		3. (기반)지역주도형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145	1,096	△951
		총계	5,680	10,039	△4,359
9	경기 (2018~2020)	1. 지속가능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	3,119	3,196	△77
		2.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35	800	▽35
		3.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제공	3,624	4,365	△741
		4.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756	757	△1
		5.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1,522	1,316	▽206
		총계	9,856	10,434	△578
10	강원 (2018~2020)	1.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1,194	83	▽1,111
		2. 지역 중심의 교육 다변화	47,593	45,052	▽2,541
		3. 협력·연계 강화로 역량 고도화	9,380	5,600	▽3,780
		총계	58,167	50,735	▽7,432
11	충북 (2019~2020)	1.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4,530	2,895	▽1,635
		2.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5,520	4,565	▽955
		3. 충북문화예술교육기반강화	860	245	▽615
		총계	10,910	7,705	▽3,205
12	충남 (2019~2020)	1.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구축	160	-	▽160
		2. 도민중심의 문화예술교육계획 추진	600	775	△175
		3. 내성적 문화예술교육정책기반 구축	-	-	-
		총계	760	775	△15
13	전북 (2018~2020)	1. 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한 제도적·정책적기반 마련	1,731	1,036	▽695
		2. 민간 주도의 생태계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지원확대	16,600	24,026	△7426
		3. 교육콘텐츠의 지역브랜드화 및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확산	310	419	△109
		총계	18,641	25,481	△6840
14	전남 (2019~2020)	1. 소소하고 확실한 문화예술교육	740	530	▽210
		2. 두루두루 빠짐없는 문화예술교육	2,860	2,395	▽465
		3. 모두가 든든한 문화예술교육	2,710	720	▽1,990
		총계	6,310	3,645	▽2,665
15	경북 (2018~2020)	1.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4,535	4,571	△36
		2. 혁신적인 문화예술교육	762	967	△205
		3.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1,237	3,058	△1,821
		총계	6,534	8,596	△2,062
16	경남 (2019~2020)	1. 제도적, 정책적 기반구축	3,403	6,268	△2,865
		2. 수요자중심교육 다양화	13,414	14,384	△970
		3. 지역기반 교육확산과 공유	7,563	7,458	105
		총계	24,380	28,110	△3,730
17	제주 (2018~2020)	1. 지역화·제주형 문화예술교육지역생태계 구축	5,824	980	-
		2. 일상화·생활 속 문화예술교육의 다각화		3,738	-
		3. 고도화·문화예술교육 체계화 및 플랫폼화		302	-
		총계	5,824	5,020	▽804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 이행상황 분석 연구」

2) 주요 사업별 이행 실태¹⁾

■ 문화예술교육 관련 제도

- **(조례)** 제1차 전북계획에서는 전라북도 조례를 제정하고, 3개 시군 이상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세부 사업으로 계획함
- 도 조례가 2019년 6월에 제정되었고, 전주시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되었음. 조례제정 권고 대상에 포함된 전북도교육청과 익산시, 완주군 등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
- 전라북도 조례를 제정하는 게 목표이며, 다른 기관과 시군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는 게 사업내용이었으므로 목표는 달성하였음. 다만, 문화예술교육기초거점을 운영하는 지역(완주군, 장수군)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아쉬움. 지자체 지원계획 수립 등이 조례에 의무화되지 않은 점 등도 미흡한 점임
- **(계획)** 제1차 전북계획에서는 제2차 전북계획을 2022년에 미리 수립하여 계획기간 중 1년 차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또 계획의 환류 체계를 구축(대토론회 연 1회 개최)하고, 시군 계획의 시범 수립이 포함됨
- 대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나, 지원협의회를 통해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진행되었음. 협의회 검토의견도 반영됨(2021년: 민간단체 지원사업 확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지원 활성화, 전문인력 연수 콘텐츠 개선 등)
- 법정계획으로서 기초지자체 지원계획의 시범 수립은 없었으나, 전주시, 완주군, 장수군이 기초거점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문화예술교육 지원계획이 수립됨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이행	이행 평가
1-1-1. 조례 제정	· 전라북도 조례제정 · 도교육청 및 지자체 조례제정 권고	· 전라북도 조례 제정(2019년) · 전주시 조례 제정(2020년)	· 목표 달성(도 조례 제정) · 기초거점 설립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아쉬움
1-1-2. 계획 수립	· 도 계획의 환류체계 · 지자체계획 시범수립	· 협의회 통한 시행계획 환류 · 기초거점 관련 지원 계획(전주/완주/장수) 수립	· 대토론회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코로나 상황) 환류 성과 · 법정계획으로서 계획 미흡

1) 연구진이 전라북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보고서(2018~2021)를 검토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함

■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력

- 제1차 전북계획에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활성화(인턴십 지원, 기타 국가계획 대응),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역량 강화(사업 참여 인력의 연수 의무화, 공모사업 가점제도, 예술 강사 처우개선 건의 및 자생적 모임 등 지원)가 세부 사업으로 포함됨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은 계획대로 진행됨. 역량 강화 사업(연수) 역시 계획대로 추진됨.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해마다 2회씩 운영됨(연간 60~70명 참여, 연수 참여자 만족도 평균 90% 이상). 예술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를 건의한다는 계획도 일부 실행됨. 다만 연수 참여자에 대한 공모사업 가점 등은 사업에 실행되지 않음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이행	이행 평가
1-1-3. 교육사 활동 활성화	· 교육사 인턴십 사업 · 처우개선 제도 건의	· 인턴십 사업 추진(7~8명 채용, 10여 개 프로그램) · 교육사 등 온라인 회의 진행	· 인턴십 사업 실시. 교육사 컨설팅 등 계획대로 진행 · 제도개선 건의 등은 아쉬움
1-1-4. 관련 인력 역량 강화	· 인력의 연수 의무화 · 연수자, 공모사업 가점	· 연 2회 진행(60~70명 참여) · 연수자 공모사업 가점 미실시	· 모든 인력의 연수 의무화는 아니나, 사업 인력의 연수는 성과, 향후 연수고도화 필요

■ 문화예술교육 관련 추진체계

-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협의체 구성과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시군별 협의체 구성 유도), 광역(도) 지원센터의 역량강화(독립적 역할 강화, 기초 거점 설립 유도 등), 생활문화·평생교육기관 협력망 구축(상설협의체 구성과 운영), 문화예술교육 민간협의체 설립과 활성화 지원, 관련 통계 및 자료관리체계 구축 등이 계획이었음
- **(협력체계)** 도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해마다 시행계획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함. 하지만 실무협의회는 구성되지 않았음. 생활문화와 평생교육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포럼단을 통해 생활문화센터·평생교육원의 교류 방안과 프로그램 협력 지원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짐. 관련 기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을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민간단체협의체 설립을 유도하고자 단체 간 간담회

- 등을 개최 또는 지원(연 2회 이상 간담회 진행)하였으나, 상설협의체가 설립되지 않음
- 공공, 민간, 분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음. 하지만 타 분야와의 협력망과 민간협의체가 상설화까지 나아가지 못하였고, 공동사업도 발굴되지 않았음. 도 차원의 지원 실무협의회 꾸려졌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 즉 제1차 전북계획에서는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활성화가 속제로 남음
 - **(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의 독립적 지위 확보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음. 하지만 기초거점이 14개 시군 중에서 3개 지역(전주/완주/장수)에 설립되었고, 기초거점을 포함하여 시군 문화재단과 도 지원센터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은 큰 성과로 평가됨. 기초거점 국비 지원이 끝난 뒤에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기초 주도의 협력사업 추진 등은 향후 숙제임
 - 도-기초 협력체계 : 도지원센터,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부안문화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 장수기초거점이 참여, 협의체 운영과 공동사업(도 차원에서 기초 역량 강화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함
 - **(정보통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관련 단체 현황조사, 관련 강사 현황조사 등이 연구용역으로 진행됨. 기초거점에서도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실태 조사가 이뤄짐(기초거점 계획에 따라 진행).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로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통계 관리체계(지표 등)가 도출되었으나, 이를 활용한 정례적인 조사와 통계구축이 이뤄지지 않음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이행	이행 평가
1-2-1. 지원협의회	· 도 협의회 구성 운영 ·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도 협의회 구성, 연 1회 운영 · 실무협의회 미 구성	· 실질적 운영단위로서 실무 협의회 구성, 시급한 숙제
1-2-2. 센터역량 강화	· 독립적 역할 강화 · 기초거점 설립 유도	· 특별한 독립적 역할 부여 없음 · 전주/완주/장수 기초거점 설립	· 도-기초(재단/센터) 협력 사업 긍정적, 고도화 필요
1-2-3. 타 분야와 협력망	· 생활문화/평생교육 간 상설협의체 구성	· 비상설적 네트워크 구축(포럼), 상설 협의체 구성 운영 협의	· 계획기간 내 상설화 필요 · 공동사업 발굴 등은 숙제
1-2-4. 민간협의체	· 민간협의체 설립유도, 활성화 지원	· 민간단체 간담회 등 지원. 협의체 설립 제안 및 유도 노력	· 계획기간 내 상설화 필요. 민간협의체 관한 부여 필요
1-3-1. 정보 구축관리	· 관련 통계의 구축과 일상적 관리 체계	· 도/시군 현황·실태 조사 실시 · 정기 조사, 상설 관리는 미진	· 현황/실태 조사된 자료의 활용과 정기적 조사 필요

■ 문화예술교육 관련 재정

- 제1차 전복계획에서는 지방으로 이양된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에 맞춘 탄력적 재정 운영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설정함. 공적 예산 외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요-공급 매개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이 재정적 측면에서 주요 과제로 제안됨
- **(재정계획)**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전주시와 완주군과 장수군이 기초단위 거점 구축사업을 진행함(재정 확보). 다만 완전 지방이양 이후에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구체화 되지 못함
-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예산, 국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확보한 예산 외에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거나 증액한 예산은 없음.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이 줄어들기도 함²⁾
- **(민간시장)**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매개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자원지도와 수요-공급 매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함(연구용역). 전주시 기초거점에서 자원지도를 제작하였고, 수요-공급 매개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함
- 다만, 기초 정보를 구축하고 개발 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나 활성화되지 않음. 1차 계획 기간에 마련한 기반을 활용하여 제2차 전복계획에서 이를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제1차 전복계획에서 중요한 목표였던 민간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세부 계획으로 설정한 수요-공급 매개 시스템 개발 외 사업이 구상·추진되지 않음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이행	이행 평가
1-3-2. 수요 맞춤형 재정계획	· 예산의 안정적 확보 · 수요에 맞춘 탄력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세 부 재정계획 수립 및 이행 · 사업 규모 따라 실행예산 조정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전체 관련 예산의 증액은 큰 성과. 다만 지방이양 사업에 산과 국비지원 공모사업 외 자체 예산 증액 없어 아쉬움
1-3-3. 수요-공급 매개(민간시장)	· 자원지도 개발 · 수요-공급매개시스템 개발과 활성화	· 자원지도 및 수요-공급매 개 시스템 개발(연구용역) · 활성화 관련 사업 구상	· 자원지도와 매개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아 직 활성화 수준은 아님

2) 구체적인 재정 확보 실태는 68~69쪽에 있음

전략 및 사업	사업기간	합계	국비	도비	사민비	기타	세부 사업내용	2019년 운영 실적							2020년 운영 실적							2021년 운영 실적											
								대상	인원	프로그램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사민비	기타	대상	인원	프로그램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사민비	기타	대상	인원	프로그램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사민비
3-1 전북형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질적 제고 위한 컨설팅 지원	19-22	40	-	40	-	기반구축사업 (문화예술교육인 큐베이팅)	예술단체	90	6	문화예술교육 신규단체 지원 및 육성 위해 역량강화 교육지원	48	48			도민	133	9	문화예술교육 신규단체 지원 및 육성 위해 역량강화 교육	58	0	58	0	0	도민	123	10	문화예술교육 신규단체 지원 및 육성 위해 역량강화 교육	64	0	64	0	0
	우수 콘텐츠 발굴 지원, 콘텐츠산업 연계 개발	19-22	80	-	80	-	기반구축사업 (문화예술교육4.0 콘텐츠개발지원 시범사업)	예술단체	65	3	4차 산업연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34	0	34		도민	208	4	지역 특성 문화자원과 과학·기술·매체 융합하여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범운영	87		87		도민	84	4	신규 문화예술교육 연구 개발 및 시범운영	88	0	88	0	0	
	교육 연구개발 프로젝트 운영 및 연구개발 확대	19-22	320	-	320	-	기반구축사업 (신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예술단체	4	4	전북 브랜드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실행	87	87			도민	0	1	전북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연구기능 확대	0	10	10	0	0	예술가, 도민	151	6	기초새단이 학생시민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교육모델 개발 및 확산	45	0	30	15	0
3-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 및 홍보 강화	19-22	120	-	120	-	기반구축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 유동보지원사업)	지원사업운영단체	10	10	전라북도 지역문화예술교육 온라인 매체(유튜브 등)를 활용한 홍보 지원	20	20		운영단체	4	4	전라북도 지역문화예술교육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 지원	20	0	20	0	0	운영단체			전라북도 지역문화예술교육 온라인 매체(유튜브 등)를 활용한 홍보 지원	0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박람회 개최	21-22	160	-	160	-	기반구축사업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통합박람회))	도민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박람회(프로그램 마켓) 사례 조사	0			도민			도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체계적 분석 및 지역 맞춤형 박람회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0					운영단체	85	1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통합 박람회 개최	30	0	30	0	0	
3-3 국내 교류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의 국내 교류 활성화	19-22	70	-	70	-	기반구축사업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포럼개회))			지역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포럼단 운영	15	15		운영단체	42	4	지역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포럼단 운영	10	0	10	0	0	유관기관	6	1	전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 추진	17.5	0	17.5	0	0		
	문화예술교육의 국제 교류 활성화	22-	20	10	10	-	해외현장 프로그램 계획 수립	연수개발				0								0													

■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

- 제1차 전북계획에서는 교육공간 확충 및 연계 증진이라는 전략 아래, 어린이 특화 거점별 전용공간 확충(어린이창의체험관 활용, 꿈꾸는 예술터, 문화파출소, 어린이예술원 조성 등), 기존 문화시설(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 공간화, 예술인 창작공간을 활용한 생활 속 교육공간 확대를 세부 과제로 설정함
- **(어린이 특화 시설)** 어린이창의체험관에 10여 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꿈꾸는 예술터를 전주시와 장수군에 조성함. 하지만 (가칭)어린이예술원 사업은 어린이창의체험관 사업으로 대체되어 진행되었음. 전라북도가 추진한 사업은 아니나, 전주시에서 문화예술교육과 생태·놀이를 연계한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특화 사업을 진행함(예술놀이터 등)
- 어린이창의체험관, 꿈꾸는 예술터, 전주시의 예술놀이터 등이 조성되어 다양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였다는 점은 주요 성과로 평가됨. 다만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칭) 어린이예술원 조성사업이 더 필요해 보임. 전주시가 추진한 예술놀이 사업은 지역특화전략으로 성과가 크므로, 전라북도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2차 전북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시설 연계)**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생활문화시설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됨(한국문화예술연합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등)
- 예술인 창작공간 문화예술교육 공간화 사업은 전라북도 특화 사업임. 기초문화재단(2021년 익산시, 고창군)과 협력하여 예술인 창작공간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생활 속 교육공간 확보와 예술인 창작지원을 병행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대적인 사업량이 적어 사업 효과의 한계를 보임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이행	이행 평가
2-1-1. 어린이특화 시설	· 어린이창의체험관, 꿈꾸는 예술터, 어린이예술원 등	· 어린이창의체험관 활용, 꿈꾸는예술터(전주/완주) 확충	· 창의체험관으로 대체 추진 · 전주시, 예술놀이터 조성
2-1-2. 기존시설 연계	· 문화기반시설, 생활문화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사업 유치,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전북도 자체 사업과 생활문화시설 연계사업이 없음
2-1-3. 예술인공간 활용	·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초재단 연계, 연 2개소 선정하여 프로그램 지원	· 생활권 교육공간확보 장점, 사업절대량이 적다는 한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제1차 전북계획에서 과제가 많은 분야는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임
 - 미취학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확대(문화이용권 사업 연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인문학 연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확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역연계사업 활성화(어린이대음악제 등), 지방 이양 사업의 내실화(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전북형 예술캠프 운영 등
- **(대상별 지원)** 국비를 지원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 문화소외계층을 기초단위별로 발굴하고 문화이용권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연계하였음. 문화향유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장인 대상으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함
- 과제별로 다양한 사업을 벌였으나,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거나 다른 분야에서 진행한 사업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음. 특히 전라북도에서 특화하여 개발하고자 했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진행되지 못함
- **(지역 특화)** 제1차 전북계획에서는 전라북도 특화형 교육콘텐츠 개발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함. 인문학 연계도 그렇지만, 전라북도 독자적인 예술캠프 운영을 계획함. 하지만 소규모 창의인재 키움 캠프로 대체됨(연간 2회, 회차별 2개 장르 운영)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이행	이행 평가
2-2-1. 미취학 아동	· 미취학 아동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문화시설 연계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	· 중앙공모사업 대응, 하지만 지역 자체사업 개발은 미흡
2-2-2. 문화소외계층	· 문화이용권사업 연계, 문예교육사업 활성화	· 학교밖 청소년 등 대상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수요)조사	· 기초(수요)조사에 머무름. 실행계획 부재와 실행되지 않음
2-2-3. 직장인 지원	· 기업·공공기관의 문예교육 활성화 지원	· 문체부 예술동호회사업 활용 · 성과공유축제, 마스터클래스	· 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문체부 사업을 활용하여 추진
2-2-4. 인문학 연계	· 생활밀착형 인문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 아는만큼 보이는 예술 지원 · 연평균 10개 단체 선정	· 강좌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문학사업과 차별화 문제
2-3-1. 학교교육 연계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연계사업체계 구축	· 세계소리축제 내 어린이대음악제, 국악예술강사 지원 등	· 기존 사업을 학교 연계 사업으로 활용. 독자사업 미흡
2-3-2. 기존사업 내실화	· 기존 사업 확대 운영 및 지역 브랜드화	· 역량강화 워크숍,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한 역량강화 추진	· 코로나19에 따른 미추진으로 사업내실화 성과달성 못함
2-3-3. 전북 예술캠프	· 방학 시기 전국단위 예술캠프 개발, 운영	· 기존 사업인 창의적 문화형재 키움캠프를 활용	· 일반 대상의 전국사업이 일부 영재 중심 사업으로 축소

■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과 브랜드화

- 제1차 전북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내용 중 하나가 전라북도에서 개발되고 운영되는 교육콘텐츠의 지역 브랜드화였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교육콘텐츠로 육성하고, 문화콘텐츠산업과 연계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국제교류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함.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컨설팅 지원과 콘텐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도 계획에 담음
- **(콘텐츠 고도화)** 통합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계획이 100%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예술교육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 신규단체를 발굴하거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함. 통합컨설팅 상설추진체계는 구축되지 않음. 연구개발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창의랩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시군과 연계하여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개발함
- **(인식 확산)** 문화예술교육 홍보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을 공모로 진행하였고, 코로나19 등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 통합박람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
- **(국내외 교류)** 국내 교류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교육 도내·외 관계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포럼단을 운영하였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이행	이행 평가
3-1-1. 통합 컨설팅	· 콘텐츠 질적 제고 위한 통합컨설팅 제공	· 문예교육 인큐베이팅 지원으로 신규 지정, 역량교육	· 기존 콘텐츠 질적 제고 관련 상설 및 통합컨설팅 미추진
3-1-2. 콘텐츠 산업	· 첨단산업 연계형 새로운 교육콘텐츠 개발	·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0교시>, <문예교육 4.0> 추진	· 여러 공모사업 통해 신규 교육 콘텐츠 개발. 확산은 미흡
3-1-3. 연구개발 확대	· 정책개발, 교육 관련 기초연구, 콘텐츠 개발	· 광역-기초재단 연계, 연구개발 프로젝트(2개소)	· 전주, 완주 중심의 사업으로 다른 지역 관련 사업 부족
3-2-1. 확산 및 홍보	· 도민 대상 문예교육 필요성 및 가치 확산	· 홍보콘텐츠 <춤인> 제작. 추진 사업이 홍보영상 제작 등	· 도민 대상의 인식 개선 등에 대한 캠페인 홍보 미실시
3-2-2. 박람회 개최	· 전북 문화예술교육 박람회 개최	· 기초조사 실시 · 성과공유 방식 박람회 진행	·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박람회 불가. 성과공유회 형식
3-3-1. 국내 교류	· 타 지역과의 교육 관련 교류 활성화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포럼 운영	· 타 지역 답사 등 교류 추진. 네트워크형 성과는 미흡
3-3-2. 국외 교류	· 현장 관계자의 문예교육 글로벌 탐방 지원	· 세계예술교육연맹 온라인 세미나 참석, 국제동향 파악	· 코로나19에 따라 국외 탐방 불가. 온라인 사업으로 추진

다. 제1차 전북계획의 이행 성과 및 한계

1) 이행 성과

■ 높은 과제 이행 및 예산집행률

- 제1차 전북계획에서는 모두 세부 28개 과제가 수립됨. 이 가운데 2022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실행한 과제가 모두 27개 과제임. 마지막 과제인 문화예술교육의 국제교류 활성화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국제교류사업을 2022년에 추진할 예정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모든 과제를 이행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한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이 모두 7개가 있음. 이 사업들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지 않음

[표 2-4] 제1차 전북계획의 사업변경 내용 (시행계획 기준)

제1차 전북계획의 전략 및 사업		사업변경 시행계획
1-1.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진흥제도 마련	1-1-2. 문화예술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환류 강화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수립
1-2.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구축 및 활성화	1-2-4. 문화예술교육 민간협약체 설립, 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민간협약체 구성 및 간담회 추진
2-1. 교육공간 확충 및 연계 증진	2-1-1. 어린이예술원, 문화예술교육 거점별 전용공간 확충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꿈꾸는 예술터 운영, 문화파출소 등 유휴공간 활용
	2-1-2. 문화기반·생활문화시설 연계 예술교육 공간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2. 생애주기별/소외계층 교육 확대	2-2-3.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예술동아리 지원사업
2-3. 학교-사회 연계 사업 증진	2-3-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역연계 사업 활성화	어린이대음악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 문화예술교육 콘서트
3-1. 전북형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3-1-3. 교육 연구개발 프로젝트 운영 및 연구개발 확대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현황 연구 등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

- 사업실행과 더불어 계획된 예산을 확보하였는지도 중요함. 제1차 전북계획에서는 5년간 29,216백만 원 투입을 계획하였는데, 2018~2021년 3년 동안 투입된 예산을 살펴보면 모두 12,707.3백만 원이 투입됨. 이 금액은 전체 계획예산 대비 약 43.5%임
- 2022년에 실행될 사업예산을 참작하더라도 계획예산 달성률이 약 60% 내외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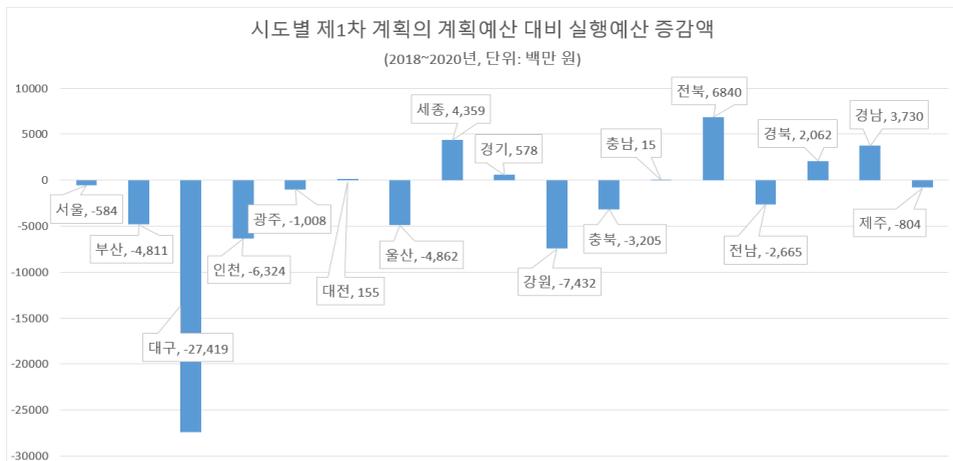
됨. 어린이예술원 등 국책사업화 과제(2-1-1) 계획예산이 15,500백만 원인데, 어린이 예술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예산집행률이 낮지 않음. 즉 제1차 전북 계획은 사업 이행률뿐 아니라 예산집행률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임

[표 2-5] 제1차 전북계획의 과제별 계획예산과 실 집행예산 비교(2019~2021년 3개년, 단위: 백만원)

전략 및 사업		계획예산 총액	실 집행예산 (2019~2021)	비고
1-1.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진흥제도 마련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	-	비예산
	문화예술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환류 강화	70	0	△70
	문화예술교육사 활동영역 확대 및 확산	960	701	△259
	문화예술교육인력 연수제도 마련 및 역량강화 지원	170	36	△134
1-2.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구축 및 활성화	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21	1.4	△19.6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2,340	1,016	△1,324
	생활문화·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10	2.5	△7.5
	문화예술교육 민간협의체 설립, 활동 지원	-	5	5
1-3. 교육정보 구축 및 재정 확보	문화예술교육 통계 및 자료 관리체계 구축	70	20	△50
	문화수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재정계획 수립	-	-	비예산
	문화예술교육 자인지도와 수요-공급 매개체계 구축	60	72	12
2-1. 교육공간 확충 및 연계 증진	어린이예술원, 문화예술교육 거점별 전용공간 확충	15,500	3,035.5	△12,464.5
	문화기반·생활문화시설 연계 예술교육 공간화	2,160	1,176	△984
	예술인 창작공간 활용 생활 속 교육 공간 확대	200	45	△155
2-2. 생애주기별/소외 계층 교육 확대	미취학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200	750	△450
	소외계층 교육 사업 지원 확대	150	0	△150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195	600	405
	인문학 연계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확대	400	265	△135
2-3. 학교-사회 연계사업 증진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역연계사업 활성화	100	664	564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및 지역특성화 사업 내실화	4,400	3,354.4	△1,045.6
	창의적 문화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캠프 운영	400	300	△100
3-1. 전북형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교육 콘텐츠의 질적 제고 위한 컨설팅 지원	40	170	130
	우수 콘텐츠 발굴·지원, 콘텐츠산업 연계 개발	80	296	216
	교육 연구개발 프로젝트 운영 및 연구개발 확대	320	85	△235
3-2. 홍보 강화와 성과 확산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 및 홍보 강화	120	40	△80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박람회 개최	160	30	△130
3-3. 국내외 교류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의 국내 교류 활성화	70	42.5	△27.5
	문화예술교육의 국제 교류 활성화	20	0	△20
합계		29,216	12,707.3	△16,508.7

■ 문화자치의 구성 요소별 대응

- **(제도)** 제1차 전북계획기간 중 제도와 관련한 가장 큰 성과는 전라북도 조례의 제정임. 계획에 제시한 세부 조항(의무평가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계획기간 초기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주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점은 큰 성과임. 특히 조례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전라북도지원협의회에서 심의한다는 점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 걸로 평가됨
- **(재정)** 시도별 제1차 전북계획기간 내 실행예산 증감액을 살펴보면, 2018~2020년 기간에 전라북도 예산액이 6,840백만 원이 증액하여 전국 1위를 차지함. 대부분 계획예산 대비 실행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전라북도 예산이 계획보다 많아졌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임. 다만 이 예산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계획의 과제를 변경한 예산 대비 증감액임



- **(추진체계)** 제1차 전북계획에서는 문화자치에 대응하여 추진체계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함. 현재까지 전라북도에서는 법에 따른 전라북도지원협의회가 설립·운영됨. 평생 학습과 생활문화 등 타 분야와 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 협의체 구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은 추진되지 못함. 전라북도 실무협의체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민간협의체가 결성되지 않았으며, 타 분야와 협력체계가 상설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우나, 다양한 분야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 **(자치역량)** 문화예술교육 자치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문화예술교육단체임. 2017년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한 단체는 누적 156개이었으나, 2020년 기준 204개로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증가하였음. 2020년 기준 현황조사를 보면,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참여한 단체 중 33.3%인 68개로 나타남. 즉 새로운 문화예술교육단체 상당수가 계획기간에 설립되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나타남



자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2020)

■ 시군 기반과 도-시군 협력기반 마련

- 전주시, 완주군, 장수군에 기초거점이 설립되고, 고창문화관광재단, 부안문화재단 등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등 제1차 전북계획기간 이전에 전혀 없었던 기초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기초문화재단 관계자 간 정기 간담회, 기초문화재단 관계자의 문화예술교육 기초역량 강화 교육 지원)가 마련되었음
- 전라북도 지원센터와 시군(센터, 재단)이 협력하여 공동사업(1-2-2: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2-1-3: 예술인 창작공간 활용 생활 속 교육공간 확대, 3-1-3: 교육 연구개발 프로젝트 운영 및 연구개발 확대)을 추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다양화

- 단순한 강의식 문화예술교육에서 다양한 분야와 융합한 콘텐츠를 비롯하여,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도 제1차 전북계획기간의 중요한 성과임.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문화시설과 교육현장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예, 학교문화예술교육콘서트, 인문학 연계 문화예술교육), 다른 분야와 융합(창의랩 사업)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함
- 문화예술교육단체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여 교육콘텐츠를 고도화하는 사업(문화예술교육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통합컨설팅 지원 등)이 추진됨

2) 이행 한계

■ 코로나19와 계획사업의 축소 추진

- 제1차 전북계획이 본격 추진되는 시기는 2년 차인 2019년임(2018년 하반기에 계획이 확정되어 발표됨). 2019년 겨울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대면 사업이 중단됨. 온라인 사업으로 빠르게 전환했으나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웠음
- 계획기간 중 마지막 해인 2022년부터 일부 대면 사업이 진행됨. 따라서 제1차 전북계획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실제 추진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계획에 맞춰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함

■ 일부 시군 외 정책 의지 부족과 기반 미흡

- 전주시, 완주군, 장수군에 기초거점이 설립되고,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된 지역(익산시, 고창군, 부안군)에서 도 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성과가 분명한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 2019년 기준 전라북도 현황조사(2020) 결과를 보면, 당시 기초거점과와 문화재단이 있는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고창군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예를 들어, 익산시가 군산시보다 7건이 더 많았고, 같은 권역으로 묶이는 고창군이 6건인 반면 부안군은 1건도 없었음

[표 2-6] 전북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시군 지원 현황(2019년) (장세길·육수현, 2021 참조)

구 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93	29	10	17	3	4	3	8	4	2	2	2	3	6	0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8	5	3	5	-	2	1	2	2	2	-	1	1	4	-
토요문화학교	31	9	5	5	1	1	1	2	2	-	1	1	1	2	-
문화예술교육 인큐베이팅	6	-	-	2	-	-	-	2	-	-	1	-	1	-	-
교육콘텐츠 연계지원	18	10	1	3	2	1	1	-	-	-	-	-	-	-	-
신규 프로그램 개발지원	4	2	1	1	-	-	-	-	-	-	-	-	-	-	-
광역-기초재단 협력사업	3	1	-	1	-	-	-	1	-	-	-	-	-	-	-
교육콘텐츠 개발 시범사업	3	2	-	-	-	-	-	1	-	-	-	-	-	-	-

- 이 결과는 기초거점과 문화재단이 있는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활발함을 보여 줌과 동시에 기초거점과 문화재단 유무에 따라 지역 간 사업 불균형이 나타남을 말해 줌. 즉 사업을 진행할수록 전라북도 내 지역 간 격차가 커지게 됨. 특히 사업을 진행 하면서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성장하므로, 이러한 불균형이 이어지면 문화예술교육 기반의 격차가 커져 불균형이 커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 어린이 중심 교육의 한계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혜 규모

-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어린이 중심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을 띠. 그런데 제1차 전북계획 이행을 보면 대부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룸.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였고, 운영 성과 측면에서도 어린이 대상 교육보다 사업 및 참여가 매우 적었음
- 사업 참여자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제1차 전북계획의 한계임. 2019~2021년 사업에 참여한 수는 모두 230,560명임. 이 중에서 어린이창의체험관 관련 참여자 수 200,982명을 제외하면 29,578명에 그침. 3개년 실행예산 12,707.3백만 원에서 어린이창의체험관 관련 예산 1,327.5백만 원을 제외한 10,742.8백만 원을 적용하면, 사업 참여 1인당 소요된 예산이 약 2백 753천 원임
- 정책 방향과 달리 여전히 어린이 중심 문화예술교육이 주를 이루고, 다른 분야(생활문화, 평생학습 등)와 달리 투입되는 예산 대비 참여자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한계를 보임. 일회성 체험 위주 교육이 아니라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하는 과정 교육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다른 분야보다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많을 수 있으나, 정책 성과라는 측면에서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민간 문화예술교육시장 활성화 미흡

- 제1차 전북계획에서는 민간시장을 활성화는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공급과 수요를 매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담음. 또한, 민간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를 고도화하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함
- 하지만 매개 시스템을 개발하는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였고,

기타 민간에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자생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 계획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매개 시스템 개발에 나섰으나, 근본적으로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

- 결국 제1차 전북계획에서는 민간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이 미흡하였음. 또 사업이 공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국민에게 수혜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됨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실현 미흡

-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효과는 단지 예술적 감수성을 증진하는 데 있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로 나아감. 다른 국가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은 근대적 질서의 해체와 학교 제도의 한계, 수명 연장 등 현대사회 개개인이 처한 생존과 미래 전략으로 조명을 받음

[표 2-7]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른 나라의 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는 1980년대 추진한 예술교육을 끊임없이 재구성하여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함. 2017년 문화부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문화예술교육 확대로서 젊은 세대의 예술 활동, 예술교육 참여 강조하는데, 사회발전에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한층 인식한 것임(문화부 2017년 계획) · 독일은 사회통합과 사회적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 기회 불균등의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실행
--

- 그런데 제1차 전북계획에서는 이와 관련한 과제가 강조되지 않았을뿐더러, 실제 사업에서도 개인의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음

■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연계 미흡

- 도 교육청이 사회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인과 연계하여 2018년에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인 <꿈지막 문화예술+>(연간 30억원)를 추진하였으나, 교육청과 문화예술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미흡으로 사업이 이어지지 못함
- 이 사례는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교육청/문화단체) 간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방향과 효과에 대한 공통된 인식공유가 우선되어야 함을 말해줌

2. 정부 정책과 제2차 종합계획 방향

가. 제1차 종합계획 이후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이슈

1) 제1차 종합계획의 심화

■ 계획 실효성 제고와 사회환경 변화 조응 목적의 연구와 의견 수렴 실시

-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의 기초(보고서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발표(2018. 12)와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발표(2018. 11) 등을 감안하여 제1차 종합계획의 실행 및 심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 2018년 1월 제1차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11월에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 계획, 12월에 새 정부의 문화정책을 포괄하는 「문화비전 2030」이 발표되어, 제1차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 그리고 정책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조치가 필요하였음
-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쟁점들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시작함. 5개의 분과, 즉 총괄·담론분과, 학교분과, 사회분과, 기반분과, 창의성·융합분과로 구성하여 분과별 회의 6~9회, 분과별 공론화(토론회) 1~4회, 통합워크숍 1회, 종합 토론회 1회를 실시하고, 「이슈리포트」를 작성함

■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이슈 여섯 가지

- 첫 번째는 협치를 위한 상설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기존 중앙과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벗어나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성하자는 것임. 문화예술교육법에 제시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역량을 제고하자는 취지임
- 두 번째는 담론과 인식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기존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이분화된 체계 및 인식을 뛰어 넘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대하고,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 간 정책적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법의 2조(정의), 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의 4항(교육진흥원 업무) 및 7항(지역센터 업무)인데, 문화예술교육을 고정된 게 아니라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기에 학교-사회 구분이 유의미하지 않음. 이 때문에 교육진흥원(지역센터)의 구체적 업무 역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이슈가 제기됨

- 세 번째는 정책 지원체계 개편과 다각화로, 현재의 지원체계(분절성, 단편성, 경직성, 제한성)로는 양적 성장에 비해 정책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기에,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구조의 다각화 및 유연화,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 전환 및 지원구조 개편을 추진함
 - 구체적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구조의 개편(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학교-학생 선택권 강화, 학교-지역 연계, 학교 인력을 연계하는 전문인력 양성), 사회 문화예술교육 변화(자치분권과 혁신적 포용 국가 아젠다에 맞게 생활권 단위의 접근성 향상 및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단계적 사업구조 재설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및 역할 강조), 미래 기술 활용 창의적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및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함
- 네 번째는 지역 현장 중심의 생태계 활성화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실현으로 문화분권 실현, 문화예술교육 지역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 생태계 기반 고도화를 추진함. 구체적으로 기초지자체-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실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를 위한 인적·제도적·정책적 기반 구축, 지역별로 문화예술교육 자체 기반 강화 등이 필요함
- 다섯 번째는 인력 현장 활동 지원 기반 체계화로, 연수체계의 다양화·지역화·전문화와 연수내용의 변화를 추구함. 구체적으로 15년 동안 10만 여명 연수, 문화예술교육사 보수 및 재교육을 실현하고, 문화예술교육 연수원-광역-기초의 연수체계의 협력, 디지털 리터러시, 기능이 아닌 본질의 예술과 인문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 창의 융복합 문화예술 전문가를 양성하려 함
- 여섯 번째는 R&D 및 정보화 강화로, 기초 지역기반 자원발굴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R&D, 실태조사 및 통계 업무 활성화, 효과성 연구, 예술-비예술 융합연구,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이 주된 내용임

2) 사회환경 변화와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문제

- 2020년 초반에는 대면 문화예술교육 실시를 기다렸지만(일시 중단, 연내 실시), 2020년 중반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함
- 문화예술교육뿐 아니라 사회적 만남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히 대면교육에서 비대면교육으로 변화를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법 도입, 그리고 이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탈(脫)시공간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음
- 공론화 추진단 보고서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변화를 약간 언급하지만, 실제 추진단 활동(분과회의, 토론회)이 2020년 5월까지여서 새로운 교육형식-방법-내용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은 없음
- 교육진흥원에서는 2020년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추진단(TF)을 구성하여, 온라인 콘텐츠 개발, 특화 사업모델 개발, 온라인 교육 인프라 제도 지원 등 업무를 진행함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정책방향과 4대 과제 도출

- 첫째, (나이·성별·거주지 등과 무관한) 수요자 중심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둘째, (온라인 환경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매개자(교육 인력)의 역량 강화 등 지원, 셋째,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및 교육모델 개발, 넷째,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기반으로 공공플랫폼 구축이 온라인 교육정책 관련 핵심과제로 제안됨

3) 제1차 종합계획 이행 분석

■ 2021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이행현황 분석 연구」

- 10개 주요 추진과제별 중요도-이행도-미래 중요도를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 2-8] 제1차 종합계획 내 주요 과제 인식: 현재와 미래의 중요도, 현재 이행도

순위	중요도	이행도	미래 중요도
1	[I -1]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II -2]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속 확대	[III -1] 기획 및 연구 역량 강화
2	[III -1] 기획 및 연구 역량 강화	[III -1] 기획 및 연구 역량 강화	[I -1]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3	[II -2]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속 확대	[II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 예술교육 확대	[II -2]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속 확대
4	[I -3]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II -3]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I -3]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5	[III -4] 가치 확산 및 홍보 강화	[III -4] 가치 확산 및 홍보 강화	[II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 예술교육 확대
6	[II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 예술교육 확대	[III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III -4] 가치 확산 및 홍보 강화
7	[III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III -3] 문화예술교육 국제 교류 활성화	[I -2]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8	[II -3]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I -2]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III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9	[I -2]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I -3]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II -3]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10	[III -3] 문화예술교육 국제 교류 활성화	[I -1]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III -3] 문화예술교육 국제 교류 활성화

- 현재(계획당시 포함)와 미래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가 꼽힘. 반면에 국제교류 활성화는 중요도가 현재와 미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과제 이행정도 판단에서는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의 점수가 낮은 편이고,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의 점수가 높은 편임
- 중요도(현재와 미래)가 점수가 높은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가 이행도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임. 즉, 중요하지만 이행되지 않은 과제는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임

■ 중요도가 높은 과제(사업)의 이행 정도에 대한 해석

- 중요하면서 이행 역시 잘 되었다고 인식하는 과제(소외계층 대상 사업, 기획 및 연구 역량 강화)는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과제)이며, 중요하지만 이행이 잘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과제(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문화교육 협력망)는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가 현재까지 작동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가 왜 어려웠는지,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왜 어려웠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는 조직·예산·제도 같은 현행 문화예술교육의 중앙과 지역의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임. 덧붙여 문화예술교육 이해관계자가 다양한데 이들의 의사소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
- 하지만 지역화 분야 이행률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 복합적 검토가 필요함. 우선 지역화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름. 누구는 지방이양으로, 누구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누구는 지역특성화로 문화예술교육 지역화를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지역화, 특히 정책의 지방이양으로서 지역화가 반드시 옳은가라는 의문이 있음. 따라서 지역화의 내용과 수준은 지역 환경과 사업유형 등에 따라 중층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나. 정책 동향 검토

1)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 공약, 인수위 발표 국정과제, 대통령 취임사 통해 본 문화정책 방향

- 120개 국정과제에서 문화예술정책은 56번(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과 57번(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에 해당됨
- 국정과제는 사업위주로 구성되어, 이 같은 과제(사업)가 도출되기까지의 맥락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약(형성과정)에서 엿볼 수 있음
- 첫 번째, 문화기본권 보장 및 지역 중심 문화자치가 강조됨.³⁾ 계층 간, 지역 간 차별 없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기본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추구함. 상향식 지역문화진흥계획, 지역 중심 전달체계 개편 등 지역중심 문화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구조 혁신과 지역을 문화생산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담김. 지역문화 활성화를 이념 지향의 담론이 아닌 지역주민과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뚜렷함
- 두 번째, 민간시장의 자율성 존중 및 정부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포함함. 정부는 문화 인프라 조성, 공정성 제고 및 규제 혁신에 집중하여 민간의 문화활동이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음. 수요자 관점에서 현장 중심의 필요한 지원, 문화경험과 문화시장 확대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는 전략임
- 세 번째, 문화예술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구조 혁신의 내용이 강조됨.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예술지원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 혁신을 계획함. 예술 활동의 주기와 공공지원 위주의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가 작품활동 자체에 개입하기 쉬운 프로젝트 지원을 다년간 지원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임. 지역문화 규제혁신과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융합을 통한 문화일자리 창출도 강조하는 과제 중 하나임

3) 아래의 네 가지는 정광렬(2022. 6.),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 「익산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국정과제와 문화자치 대응 세미나 I」, 1-3쪽에서 따왔음을 밝힘

- 네 번째,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담은. 문화정책을 창의·융합 중심으로 구조를 혁신하여 4차 산업혁명 변화를 선도할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과제를 공약에 포함함. 구체적으로, ICT 문화공간 조성, 실감형 관람과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문화예술 가상공간 및 관광 체험·안내, ICT 기술을 융합한 미래지향적 문화유산 정책, AR·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관광산업 활용 강화 등이 세부 사업임

■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의미⁴⁾

- 윤석열 정부의 핵심어는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공정과 상식뿐 아니라 자유이며,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가 더욱 핵심어 같아 보임(취임사). 자유 없는 번영·풍요·성장은 없으며, 과학·기술·혁신은 자유를 확대, 그리고 자유와 번영을 위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자유를 정치·경제·사회·남북관계·국제관계에서 통용돼야 할 보편 가치로 인식함
- 자유와 문화의 관계와 관련하여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라고 언급함. 즉 ‘문화의 접근 기회’를 만드는 것이 자유 확산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며, 따라서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접근 기회로서의 보편적 문화복지, 공정한 예술인 지원임
- 관련 정책이 이전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사업을 많이 개발하기 보다 기존의 정책을 확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기존 정책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 내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이 이 새 정부가 이야기하는 상식적인 문화예술정책인 것으로 보임
- 유독 장애예술정책이 강조된 것은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니므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 실현에 그것이 하나의 잣대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음

4) 조현성, 이정희(2022. 5. 27.), “새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의미와 방향,”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65호에서 따왔음을 밝힘

2) 문화예술교육 관련 국정과제

■ 문화예술교육정책, 국정과제 56번에 포함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인문정신문화 확산과 짝을 이뤄 이른바 56-2번의 국정과제로 볼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구성하는 과제는 기초거점 운영 지원, 문화기반시설 활용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인데, 이것은 수요자 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볼 수 있음

■ 2023년부터 매년 기초거점 10개소씩 지원 확대(2025년 50개소)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군구 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문체부-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임. 2021년 말 기준으로 15개소, 2022년 6월 현재 신규로 12개소를 지원할 예정임
 - 2021년 2년차 지원(8개소): 광주 북구, 전북 완주군, 서울 성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구례군, 충북 청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포항시
 - 2021년 신규 지원(7개소): 충남 공주시, 광주 동구, 경남 밀양시, 부산 북구, 경기 성남시, 전북 장수군, 서울 중구

■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제공, 교육 효과 제고 위해 매개자 역량 강화

- 맞춤형 교육 활성화는 연령대의 특성(생활양식, 관심분야)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의미함. 예술강사-예술가-기획자 등 매개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전문과정 운영으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3) 윤석열 정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의미

■ 기초거점 지원 확대: '문화기본권 보장과 지역 중심 문화자치'로 이해

- 상향식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전달체계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지향성(지역 중심의 문화정책, 자치의 문화정책)이 문화예술교육에 적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문화정책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민간 주도 성장에서 보듯이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려는 기조를 유지하는데, 이것이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실현되려면 기초생활권 단위 자치가 필요함
- 국정과제 56번(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가 포함된 데서 보듯이, 문화예술교육정책이 ① 기초생활권 단위의 정책사업 진행으로 일상에서 문화정책의 체감도 제고, ② 누구나 생애주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임을 알 수 있음

■ 탈(脫)중앙화를 통한 자율성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정책

- 윤석열 정부는 민간(기업,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 보장하면서 문화정책에서는 ‘지원하지만 간섭하지 않음’을 실현하고자 함. 자율성 확대는 민간에 한정된 게 아니고, 탈중앙(정부)을 의미하므로 지자체를 포함하는 것인데,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함
- 지역 중심의 지역을 ‘기초거점 확대’에서 보듯이 기초지자체로 본다면, 수요자 중심의 정책 실현이 가능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역시 수요자 중심의 정책실현의 전제 조건임. 더욱이 기초 지자체의 ‘문화기반시설 활용한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하기에 탈중앙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지향성을 지님

■ 자유와 자율, 문화예술교육 정책

- 취임사에서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가장 강조하면서,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에 보장, 즉 교육과 문화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기에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자유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음
- 기초 거점은 지역에서 기획부터 사업수행까지를 포괄하기에 거점(센터)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업무 영역과 범위를 정할 수 있기에 정책의 ‘자율성’을 지니게 됨. 즉,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자유 실현을 위한 자율의 정책이 될 수 있음

다.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방향⁵⁾

1) 문화예술교육정책 기대효과: 창의성, 회복·치유, 공감능력, 미적 감성 등 탄력 적용

■ 2000년대 초반부터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창의성’으로 설정

- 시민 참여를 강조하고 양극화 극복을 주된 정책기조로 삼은 노무현 정부에서 강조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창의적 문화시민 육성으로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펼침. 문화예술교육 → 문화향유 능력제고 → 창의성 제고의 논리이며, 행정적 뒷받침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2005), 문화예술교육법이 제정(2005) 됨⁶⁾
-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국악강사풀제’(2000)는 창의성 제고보다 서양음악 중심의 학교교육을 벗어나 전통음악 교육을 실시하려는 목적, 국악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이 강했음
-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김대중 정부), 그리고 창의성을 문화정책의 핵심어로 설정한 시점(노무현 정부의 문화비전에서 ‘창의한국’ 발간)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창의성 발현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법」 제정 이유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⁷⁾으로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는 문화예술교육 → 문화향유 능력제고 → 창의성 제고 →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 등으로 확산된다는 논리임

5) 인수위에서 제시하는 국정과제가 정부 출범 이후 보완·조정되기도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2월 제시한 국정과제를 정부 출범 3달 이후 5월 28일 140개 국정과제를 보완·확정함. 참고로 인수위 없이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출범 이후 2개월 지난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발표했음. 따라서 국정과제가 다소 변경될 수 있지만, 그것의 기초는 대선 공약에 있기에 근본적인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님. 문체부·교육진흥원에서는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관계자 의견 수렴, 정책연구 등을 현재(2022. 6) 실시 중임. 추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중심으로 보면, 종합계획의 주요방향은 다음과 같이 추정 가능함

6) 조현성 외(2016),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와 통일지향적 문화정책」(한국문화관광연구원), 41쪽. 아래의 내용 역시 이 보고서를 참조했음을 밝힘

7) 문화예술교육법 제정 이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 결과임(2022. 6. 15 검색)

-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부의 계획에서 위와 같은 논리로 ‘창의성’이 강조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에 창의성이 명시된 것은 2010년 7월 문화관광체육부·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임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문화관광부·교육부, 2004. 1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 2007-2011」(문화관광부, 2007. 6.)의 비전은 각각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였는데, 이때 문화역량 강화는 창의성 개발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후 창의성 개발 자체를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4. 2.)의 비전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 1차 종합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8. 1.)의 비전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임
- 이처럼 점차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또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기대효과는 창의성에서, 공감과 소통으로 옮겨가는 특성을 보임

■ 기대효과의 (재)구성 전망: 다양한 가치를 인정

- 새롭게 또는 현시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가치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해가는 과정이 지속될 것임. 새롭게 생성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개인의 삶의 질, 사회의 문화역량, 창의성, 소통과 공감 같은 기존 논의된 가치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함. 기존 논의된 가치 가운데 현시점에서 재발견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다른 가치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함
- 첫째, 창의력과 상상력은 예술의 기본적 속성으로 문화예술교육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임.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탈(脫)기능의 교육을 강조하기에 여전히 창의력과 상상력은 중요한 가치임. 다만 문화콘텐츠 발전의 원천으로서 창의성을 강조하면 문화예술을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기에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

- 둘째,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가운데 회복력-치유 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임. 힐링에 대한 욕구 증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계의 핵심 어휘가 된 회복탄력성을 고려하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일상에서의 힐링과 일상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연령층 또는 취약계층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기대 효과라 할 수 있음
- 셋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공감능력 제고가 주요한 가치가 될 수 있음. 공감 능력은 타자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으로 기능 중심의 문예교육, 개인 단위의 교육이 아니라 합창, 오케스트라, 공연처럼 수강생이 함께하는 교육에서 특히 강조될 수 있으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이나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모두에서 실현될 수 있음. 나아가 공감능력은 공동체 형성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
- 넷째,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적 감성을 개발하여 그 자체가 삶의 즐거움일 수 있음. 미적 체험 또는 미적 감성을 개발하는 일은, 예술을 매개로 전개되는 문화예술교육이 다른 교육과 구분되는 특징인데, 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에서 미적 감성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았으나 개인의 삶과 감성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이 같은 가치가 유의미할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사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임

2) 문화예술교육의 영역 (재)설정

■ 첫째, 문화예술교육 영역을 문체부-교육진흥원 사업에 한정할지 문제

- 제1차 종합계획이나 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는 대체로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課)-교육진흥원의 정책사업에 한정된 경향이 있지만, 문화예술교육현장은 이보다 훨씬 다양하기에, 종합계획에서 다루는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함
- 첫째, 정책사업의 주관부처(기관)에 따른 분류로 문화예술교육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① 문체부-교육진흥원-광역센터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② 1번뿐 아니라

문화기반시설(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③ 1번+2번뿐 아니라 지역 내 공공시설(복지관, 청소년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④ 1번+2번+3번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교육(백화점-할인점 문화센터, 대학 사회문화교육원의 문화교육을 의미하며, 단 학원이나 강습소는 제외함)

- ①과 ②는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課), 문체부 다른 부서, 지역 내 문화예술관련 부서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며, ③은 타 부처와 지역 내 비문화예술 부서에서 진행되는 교육으로 평생학습 영역으로 볼 수도 있으며, ④는 민간영역의 교육 가운데 기능 중심의 사교육을 제외한 것임
- 위와 같은 분류가 현재의 사회 문화예술교육이라면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도 다음과 같이 구분함. ① 문체부-교육진흥원과 관련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포함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② 교육부-교육청-일선 학교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관련 교과목, ③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방과 후 학교 문화예술교육임
-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 계획이나 연구에서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①번,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①번까지 한정되었다면, 향후 계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①번과 ②번,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①번이 될 것임. 나머지 범위(영역)는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구축에서 협력대상으로 다뤄질 것임

■ 둘째,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문제⁸⁾

-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생활문화정책의 구분이 쉽지 않는데, 이것은 정부의 사업계획(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課)-교육진흥원, 문체부 지역문화과(課)-지역문화진흥원)에서는 어느 정도 차별성을 보이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이 같은 구분이 실제 어려움
- 두 가지의 공통점은 정책목표의 유사성(삶의 질과 문화국가), 비전문가 예술, 참여자의 자발성, 지역 단위의 활동, 동호회 연관성 등을 들 수 있음
- 두 가지의 차이점은 ① 자발성의 정도(생활문화활동이 높음), ② 참여자 간 관계 설정

8) 최보연 외(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8-149쪽 참조

(생활문화활동의 참여자 간 친화성 높음), ③ 활동의 지향점(생활문화활동의 공동체 지향성 높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참여자의 욕구와 실행체계가 다른 데서 기인함. 즉,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는 제도화된 교육체계 내에 개인이 참여하며, 교육은 시간과 기간이 정해져 있고, 강사와 수강생이 구분되는 데 반하여 생활문화활동은 개인(집단에 포함된 개인)이 무정형(無定型) 또는 비정형(非定型) 활동에 참여하기에 자발성, 참여자 간 친화성, 공동체 지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 생활문화활동 현장에서는 이 같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① 생활문화활동 내에 문화예술교육이 포함되기도 하며, ② 특히 도시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할 예술강사-예술가 부족, 전문 예술인이 부족하여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 생활문화활동과 유사함
-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정책이 기간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강사와 수강생이 구분되는 협의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면, 향후 계획에서는 생활문화활동 내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포괄할 것으로 보이고,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활동의 적극적 연계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셋째, 문화예술교육의 분야 또는 장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문제

- 문화예술교육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장르(분야)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모두를 포괄함
- 실제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포함된 장르(분야)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중 영화 정도로 개별 예술장르를 중심으로 하지만, 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는 문화시민 양성을 위한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기도 함
-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장르(분야)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계획에서는 미적 감성 또는 미적 체험을 강조하기에 ‘예술’을 매개로 하는 것에 한정하고,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 인문학, 문화유산 등을 협력 분야로 설정할 수 있음
- 종합하면, 향후 계획에서 제시될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영역(범위)은 문체부-교육진흥원 사업뿐 아니라 문화시설에서의 교육, 생활문화활동 내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하여 현재

보다 넓어질 것으로 보이며, 광의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사업들과는 협력체계를 구성할 것으로 보임

3)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및 거버넌스 형성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 제1차 종합계획에서는 추진전략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내에 ①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화, ② 지역 문화예술공간 및 자원과 연계 강화, ③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관련 사업이 포함됨
- 2014년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추진전략 ‘지역화’ 내에 ① 지역 중심 프로그램 확충, ②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이 포함됨
- 1차 종합계획 이후 활발하게 논의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임. 교육진흥원은 연구과제로 「2018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방안」, 「2019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로드맵」을 수행하고, 토론회(2018 기초[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역 릴레이 간담회, 2020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를 개최함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내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거버넌스 또는 추진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광역센터 역할 그리고 기초 생활권 중심 문화예술교육임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중심성 확보를 위해서 중앙(문체부, 교육진흥원)-광역(광역지자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기초(기초지자체, 기초문화예술교육 거점[센터])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음
-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은 10년 동안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실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였으며, 현재 지속 강화해야 할 정책 방향임

■ 지역 중심의 문화자치 지속적으로 강조될 전망

- 국정과제에도 제시된 ‘기초거점 확대’는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며, 문화정책의 방향인 '지역 중심의 문화자치'의 실현 방안이기도 한데, 중앙-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각각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

- 중앙에서는 기초거점 확대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현장인 지역이 자율성을 지니고 지역 특성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둘 것임
- 문화예술교육법 개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촉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에서는 지자체 매칭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현재 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가운데 진흥원이 직접 진행할 프로그램과 지역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재분류하여, 지역 내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함
- 진흥원 직접사업 → 지자체 보조사업(국비-지방비 매칭) → 지방이양(2022)의 순서로 몇몇 사업이 진행됨(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진흥원 직접사업 가운데 보조사업 형태 또는 지방이양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사업운영을 지역에서 담당함. 다만 보조사업으로 진행 시 지방비 매칭의 현실성, 지방이양 시 관련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재분류해야 함
- 법제·예산에 따른 중앙-광역-기초 역할 분담 외에도 중앙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부서 내 타 정책(특히 지역문화정책)과 협력, 부처 간 네트워크 강화, 협력위원회 활동 내실화를 통해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실질적 방향성을 제고해야 함
- 지역화를 당위가 아닌 현실로 인식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문화예술교육정책 수행이 실질적 방향성임

■ 광역: 정부-교육현장 조율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의 고도화 추진

- 기초에서 교육 현장에 적절하고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현하지만, 이와 더불어 광역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 단위 사업의 개발임.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즉 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 주로 논의되었는데 학교 문화예술교육 역시 지역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진행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되, 광역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두 번째는 지방이양 사업의 경우, 광역지자체에서 교육현장(기초지자체 또는 생활권)의 특성을 살려서 예산을 배분해야 함. 기초지자체에서 문화예술교육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생활권 단위에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세 번째는 개별 기초 단위가 아닌 기초 간 협력사업 등은 광역센터에서 개발함. 광역도의 시·군은 각각이 하나의 개별 생활권이기에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이 현실적이지만, 광역 시의 경우 구(區)가 개별 생활권이 아니기에 반드시 기초 단위가 아니라 기초 공동사업 또는 광역 시 단위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같이 광역 내 문화예술교육 환경의 상이함을 고려하여 광역에서는 조사 및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함

■ 기초: 주민이 문화예술교육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 진행

- 기초 단위에서 수행하는 문체부-교육진흥원-지자체의 교육프로그램, 문화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 복지관-주민자치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독자성 및 타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함
- 2022년 6월 현재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사업에 12개를 선정하여 운영비 5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자격은 교육관련 기관(단체, 활동가 그룹)이며 국비 조성 문화예술교육시설이 주체로 활동할 경우 가점이 있음
 - 기초거점에서는 추진주체 구성(거점 구축 추진단, 워킹그룹, 지역협의체), 지역현황 분석(문화예술교육 수요 및 현황분석, 지역 내 관련 자료 수집, 관계자 의견 수렴), 지역 내 공론화 및 계획수립(이해관계자 논의 구조 형성, 시범사업, 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함
- 기초 거점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기초지자체에서는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

■ 거버넌스: 종적 네트워크(정부-광역-기초)와 횡적 네트워크(개별 정책 단위) 포괄

- 중앙-광역-기초의 거버넌스: 직접 지원사업의 지자체 보조사업화, 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등의 추세를 고려하면 중앙(교육진흥원)은 R&D, 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컨설팅, 국제교류, 인력양성 등의 사업에 집중해야 함. 단 R&D, 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에서는

광역(센터)과, 사업현장 방문 컨설팅에서는 기초(거점)와 협력해야 함

- 광역은 중앙과 R&D, 모델개발 사업을 공동 진행함. 또 광역은 기초와 이양사업 진행에서 협력하며 특히 군 단위 기초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공동 진행함. 기초는 중앙과 컨설팅에서, 광역과 이양사업에서 협력하며,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시·군 단위에서는 광역과 공동사업을 진행함
- 횡적 네트워크 상대는 중앙에서는 타 부처(특히 교육부), 광역에서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기초에서는 문화시설(생활문화), 공공시설(평생교육·주민자치센터), 예술단체가 될 것임. 덧붙여 전문가 집단, 이해관계자(강사, 예술인, 교육단체, 문화예술교육 시설,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정책 과정 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4) 디지털시대의 문화예술교육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된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문화예술교육

- 디지털시대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첫 번째로 교육콘텐츠 디지털화가 아니라 교육의 디지털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임
- 영상화한 교육현장을 보여주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온라인화, 온라인 교육일 수 있지만, 디지털시대의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움. 디지털시대의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세대와 호흡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의 교육을 의미함
- 새로운 형식과 내용은, 예를 들어 영상화가 아니라 메타버스 활용을 의미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가치들(공감능력, 상상력, 미적 감성 등)을 실현하는 것임. 덧붙여 디지털 리터러시 역시 현재와 미래의 주요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기대효과가 될 수 있음

■ 탈시간·탈공간화는 교육공간의 물리적 확대, 민간시장과 교류 확대로 이해

- 문화예술교육 디지털화는 양질의 교육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간의 확대,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수준의 질적 제고를 의미함

- 양질의 공공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가 민간에 진출할 수도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이 형성되면 반대로 민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진입을 촉진할 수도 있음.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이 형성되면, 수요자는 교육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관련 없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도 있음
-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이 지닌 공공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의 문제임

5) 교육주체의 전문성 제고, 교육대상 분화

■ 연수 프로그램 활발히 진행, 교육주체의 전문성 제고 전망

- 현재 교육주체는 명시적으로 개인(예술강사와 문화예술교육사)과 단체(문화예술교육단체)인데, 현장에서는 강사가 아닌 예술가와 교육단체가 아닌 예술단체가 혼재하여 활동하기에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교육사는 일정한 자격 또는 경험의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지만, 새로운 시대의 교육형태 및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참여가 요구됨
- 예술교육 경험이 많지 않은 예술가가 교육 실시 단체의 일원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특히 이 같은 사례는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중앙직접 사업이 아닌 경우에 많음), 교육 주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가 필수적임
- 마찬가지로 경험이 많지 않은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예술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2차 계획에서는 강조될 것으로 전망됨

■ 교육대상은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모두 포괄

-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제외한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 취약계층 중심이라는 주장, 시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부처 간 협력, 복지기관, 예술치유 등은 대체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교육 참여자 모집이 수월한 측면도 있음. 반대로 지역특성화 사업 등에서는 일반인 대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평생교육 또는 생활문화와 구분되지 않은 특성이 있음

- 중앙의 직접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하겠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주민 일반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늘어날 것임

6)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 학교 밖(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 기존 계획에서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 미흡

-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교육부-교육청-지자체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거의 다뤄지지 않음
- 2004년 문화관광부·교육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2010년 문화관광체육부·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에서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전자에서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 후자에서는 ‘교과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문체부-교육부 공동), ‘학교-지역사회 연계형 체험예술교육 강화’(문체부), ‘예술교육지원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문체부-교육부 공동)을 제안함
- 하지만 2010년 이후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문체부-교육부의 협력은 제도화되지 못하고, 각각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 듯 보임
- 2018년 1월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꽃 씨앗학교, 방학 예술캠프, 고3 수험생 지원 등이 언급되었지만,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덧붙여 2018년 1월 종합계획과 동시에 발표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질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합의문’을 작성한 주체인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에 교육부는 포함되지 않음
-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교육부, 2018)의 중과제—①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원과 학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② 학생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 ③ 예술활동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조성, ④ 지속가능한 학교 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에서 문체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연관된 것은 한 가지(교사와 예술강사·예술가의 협업지원)였음

■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중요

-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학교 밖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연계는 지역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주요한 이슈이며, 문화예술교육의 외연 확대와 내용의 심화 모두를 실현할 수 있는 주제이기에, 2차 종합계획에서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
- 덧붙여 제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될 수 있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은 학생 중심의 관점, 예술강사 주도가 아닌 학생의 자기 주도적 교육참여, 교사-강사의 연계협력,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법정 교육과정 연계 등임
- 법정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서 교육부의 학교 예술교육 계획과 연계하여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진행해야 함.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교육부 예산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이기에 교육부 참여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학생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려면 2010년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처럼 교육부와 문체부가 각기 수행해야 할 사업, 공동 수행할 사업이 제시되어야 함

3.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 여건

가. 전라북도 현황 분석

1)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실태⁹⁾

■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경험 3.5%

- 최근 1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전북도민은 3.5%로 조사됐으며 이는 2019년 발표¹⁰⁾된 10.2%보다 6.7%p 감소하였고 전체 평균인 3.6%보다도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코로나 팬데믹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경험률이 낮아짐)

-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2.6%)보다는 여성(4.5%)의 경험률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경험 여부가 소득과 학력에 비례하여 나타나지 않고 범주별 격차도 크지 않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중요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규교육을 제외한 유아기·아동기의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의 전국 평균은 18.9%인데 반해 전북은 16.1%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의 전국 평균은 12.8%, 전북은 14.7%로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모두 여성의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이 남성에 비해 높고 현재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정규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경험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유아기~아동기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평균 7%인데 반해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평균 25.2%로 나타남

- 청소년기의 경험률을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평균 5.1%, 5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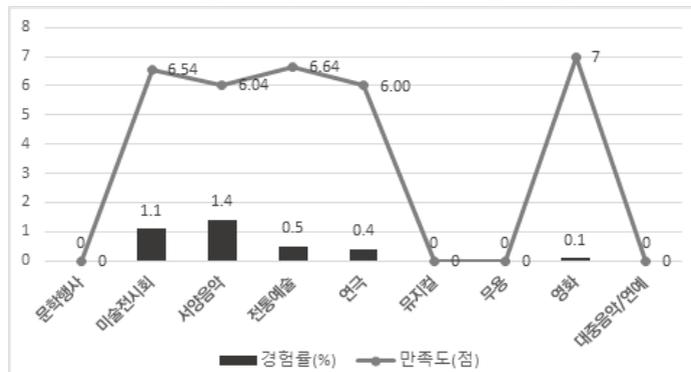
9) 국가통계 자료인 「2021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문체부)를 참고했으며 본 자료의 조사 해당 기간은 2021년 9월~11월까지임

10) 해당 발표자료의 조사 해당 기간은 2018년 8월~2019년 7월까지임

균 17.2%로 나타남

- 전북 도민의 장르별 교육 경험을 보면 문학과 뮤지컬, 무용에서의 경험은 전무하며 서양음악(1.4%)과 미술전시회(1.1%), 전통예술(0.5%) 순으로 교육경험률이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장르 중 영화 교육에 대한 교육만족도는 7점으로 만점에 해당하는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나머지 장르에서도 '만족'에 해당하는 6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만족도에 대한 전국 평균을 살펴보면 미술전시회 5.58점, 서양음악 5.64점, 전통예술 6.12점, 연극 5.24점, 영화 5.38점으로 전북의 해당 장르와 비교 했을 때 전북의 만족도가 높음

[그림 2-2] 1년 이내 장르별 교육 경험 및 만족도(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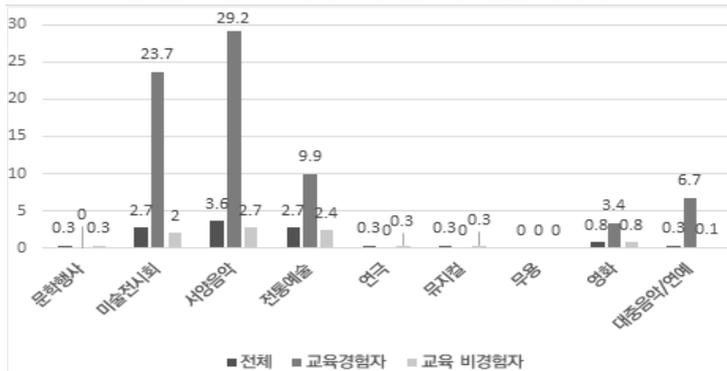


■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의향

-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의향을 물어보는 질문에 교육 경험이 있는 전북도민들의 경우 다양한 장르 중 서양음악(29.2%)에 대한 교육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술전시회(23.7%), 전통예술(9.9%), 대중음악 및 연예(6.7%), 영화(3.4%)에 대한 장르에서도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이 긍정적이었으며 지속적인 경험을 원하며 다양한 장르에 대한 교육 경험 욕구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비경험자들의 경우 서양음악(2.7%), 전통예술(2.4%), 미술전시회(2.0%) 순서로 교육 의향률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 경험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그림 2-3]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의향(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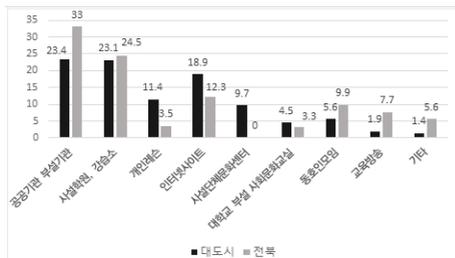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기관

- 문화예술교육기관 경험률을 살펴보면 대도시와 유사하게 전북의 경우 공공기관(33%)이나 사설학원(24.5%), 인터넷 사이트(12.3%)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북의 경우 동호인 모임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경험(9.9%)이 대도시(5.6%), 중소도시(5.3%)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교육기관의 경험과 유사하게 선호하는 문화예술교육 기관과 관련한 응답에서도 공공기관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험자들의 경우 현재 경험한 공공기관의 시설과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참여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관 경험률에서는 사설학원이 공공기관 다음으로 높게 나왔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 경험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선호하는 교육기관을 보면 공공기관(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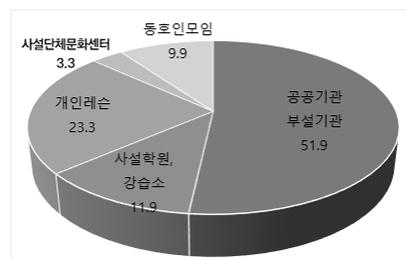
다음으로 개인레슨(23.3%)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이는 집중적인 교육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교육 경험률이 높았던 반면 선호하는 기관에서는 응답자가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음. 또한 교육의 편리성보다는 현장성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2-4] 문화예술교육 기관 경험률



[그림 2-5] 전북도민 문화예술교육 선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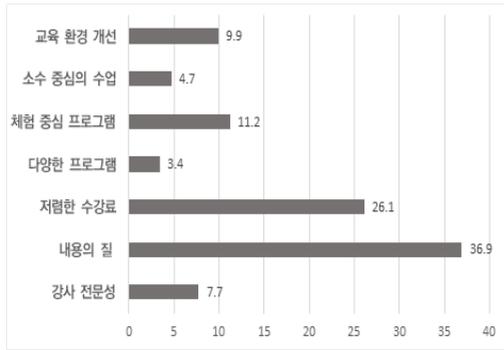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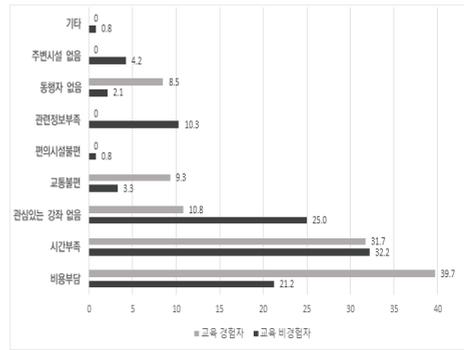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환경과 관련하여 도민들은 최우선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36.9%)이 높아져야 한다고 함
- 전국 평균에서는 강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전북의 경우 강사 전문성에 응답한 비율은 7.7%로 낮게 나타남. 이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획력 제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냄
- 저렴한 수강료(26.1%)와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11.2%)이 뒤를 이어 높게 나오고 있음. 경제적인 부담이 해결된다면 도민들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공공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앞서 제시된 기관 선호도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문화예술교육을 생동감 있는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경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강의형 교육보다는

체험·실기 중심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그림 2-6]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보완점



[그림 2-7]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애로사항



- 교육 경험자들의 참여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비용부담(39.7%), 시간부족(31.7%), 관심 없는 강좌 없음(10.8%) 순서로 높게 나타남
- 교육 경험자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앞서 제시된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에 관한 질문에 서양음악과 미술전시회 참여에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주었음. 관련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악기구입, 단계별 교육 비용 지급, 관람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비용부담을 1순위로 응답한 것으로 보임
- 교육 비경험자는 시간 부족(32.2%), 관심 있는 강좌 없음(25.0%), 비용부담(21.2%) 순으로 응답함
- 비경험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시 다양한 대상들의 활동 시간을 고려한 세분화된 진행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수요파악과 홍보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참여자들의 재참여 의지는 높은 것으로 파악됨. 한 번의 교육 경험이 지속적인 교육 참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비경험자의 교육 참여 유발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임

2)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여건

■ 전라북도 문화예술 관련 시설 현황

- 문화예술교육 기반 형성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문화기반시설 현황 비교를 위해 제1차 전북계획 발표 직전에 해당하는 2017년도와 제1차 전북계획 종료 직전에 해당하는 2021년 문화예술 관련 시설현황을 비교함
- 최근 5년간 문화기반시설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었는데, 공공도서관이 162개 증가(16.03%)하여 가장 많이 늘어났음. 이는 문화예술교육 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줌
- 시군별로 없던 유형의 시설 새롭게 들어선 곳도 있음. 김제는 미술관과 생활문화센터가, 정읍에는 미술관이, 고창은 생활문화센터와 문화재단이, 부안은 생활문화센터가, 순창은 미술관, 장수는 미술관과 생활문화센터가 새로 만들어짐

[표 2-9] 문화기반시설 현황

구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자방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문화재단
전체	1010/1172	853/900	229/271	236/262	228/230	100/147	76/104
전북	58/63	42/42	15/18	15/17	14/14	12/14	4/5(1)
전주	13/14	10/8	3/3	3/4	1/1	5/5	1/1
익산	7/7	9/9	2/2	2/2	1/1	0/0	1/1
군산	6/7	2/3	2/2	1/1	1/1	0/0	0/0
김제	5/5	2/2	0/1	1/1	1/1	0/1	0/0
정읍	5/5	4/4	0/1	1/2	1/1	1/1	0/0
남원	3/4	1/1	2/2	1/1	1/1	0/0	0/0
완주	5/6	4/4	2/2	2/2	1/1	2/3	1/1
고창	3/3	2/2	0/0	1/1	1/1	0/1	0/1
부안	2/2	2/2	2/2	1/1	1/1	0/1	0/0
임실	2/3	1/1	0/0	0/0	1/1	1/0	0/0
순창	2/2	2/2	0/1	1/1	1/1	1/0	0/0
무주	2/2	2/2	2/1	0/0	1/1	1/0	0/0
진안	1/1	1/2	0/0	0/0	1/1	1/1	0/0
장수	2/2	0/0	0/1	1/1	1/1	0/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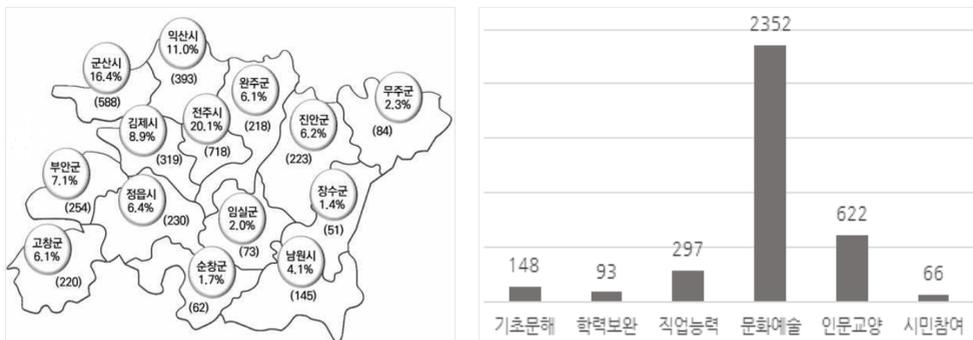
주1. 2017년도, 2021년도 비교

주2. 기관의 설립 주체는 국립, 지자체, 교육청, 대학교, 사립 시설을 포함함

자료: 해당년도 「문화기반시설총람」 참고

- 2019년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라북도에서 확인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수는 612개임
- 공공 시설 중에서는 주민자치기관(210개)이 가장 많았고 복지관(63개) 도서관(49개) 순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49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익산시 81개, 군산시 69개 순으로 나타남. 시설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장수군 14개, 무주군 21개, 순창군 24개임
- 2019년에 파악된 612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2019년 진행 기준)는 3,578개임. 전주시는 718개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군산시 588개, 익산시 393개 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됨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관련 교육(2,352개)이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음.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도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평생교육 분야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그림 2-8] 전라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자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2020), 「전라북도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실태조사」 참고

[표 2-10] 전라북도평생교육기관 현황(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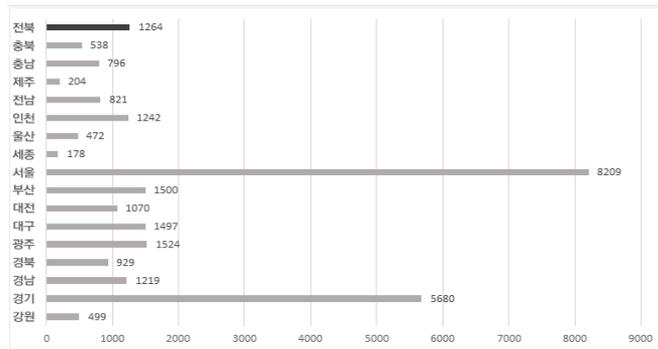
기관분류	시군분류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총계 612개	149	69	81	38	33	39	29	25	21	14	26	24	35	29	
지자체	2	5	2	2	2	3	1	2	1	0	1	0	0	2	
학교형태 시설	12	6	6	2	6	0	0	0	0	0	1	0	0	0	
문화센터	16	0	3	0	3	1	0	0	0	0	0	0	0	0	
시민사회 단체	5	5	6	0	6	0	0	0	0	0	1	0	0	1	
교육산업 관련시설	4	1	1	0	1	0	0	1	1	0	0	0	0	1	
도서관	13	2	5	3	5	3	5	1	1	1	1	2	8	2	
박물관 미술관	7	2	5	3	5	0	1	1	3	0	1	3	2	2	
문화시설	7	2	2	4	2	1	3	2	1	1	2	2	1	2	
복지관	16	7	7	6	7	5	1	3	3	2	3	1	3	2	
청소년 관련시설	5	2	2	3	2	3	2	1	2	1	1	2	3	2	
직업훈련 관련시설	18	6	5	0	5	0	0	0	0	0	0	0	0	0	
여성관련 기관시설	4	3	3	2	3	2	1	1	1	0	0	1	1	1	
주민자치 기관	35	26	29	9	29	19	10	11	6	7	12	11	14	13	
다문화 관련시설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시민사회 단체	0	0	1	0	1	0	0	0	0	0	0	0	0	0	
기타	4	1	3	3	3	1	2	0	1	1	1	1	2	2	

자료: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2019), 「전라북도평생교육기관실태조사」 참고

■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력 현황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현황(2022년 1차 기준)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전국의 27,642명이 자격증을 교부받았음
 - 지역별 교부 현황을 보면 서울이 8,20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5,660명, 광주 1,52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의 경우 1,264명이 문화예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 2-9] 2급 문화예술교육사 지역별 교부 현황



자료: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 홈페이지(<https://acei.art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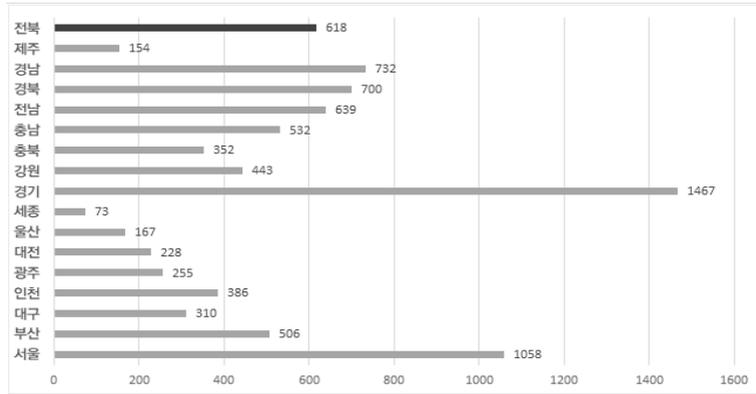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 현황(2021년 기준)을 살펴보면 전국 8,620개 학교, 5,065명의 강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함
 -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곳은 경기도로 1,467개의 학교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고 서울 1,058개교, 경남 732개교 순으로 지원을 받음. 전북의 경우 618개의 학교가 참여함

[표 2-1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운영기관 목록(17개 지역 16개 단체, 지역중복 포함)

서울	상명대 서울산학협력단	인천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	강원	강릉문화원	전남	국악협회 전남지회
부산	부산문화예술 교육연합회	대전 세종	한남대 산학협력단	충북	서원대 산학협력단	경북	금수문화예술 마을운영협의회
대구	국악협회 대구지회 (꿈꾸는 씨어터)	울산	문화예술센터 결	충남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경남	문아트컴퍼니 주식회사
광주	서구문화원	경기	성결대 산학협력단	전북	사)전통문화마을	제주	국악협회 제주지회 (서귀포문화원)

주. 괄호 안에 작성된 기관은 컨소시엄 기관임

[그림 2-10]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 현황(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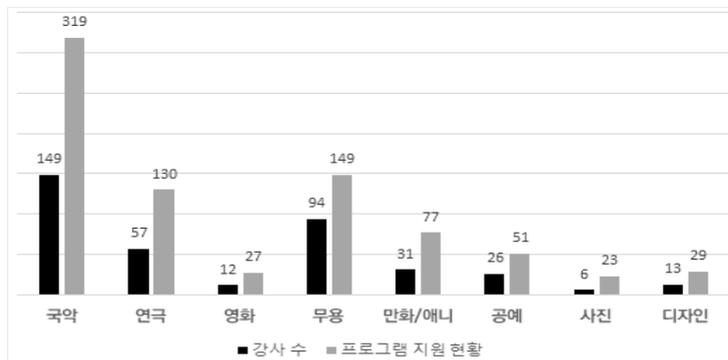


구분	학교 수(개교)	지원시수(시수)	강사 수(명)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실적('21년도 기준)	8620	1,376,580	5,065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arte.or.kr>)

- 2022년 도내 602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악(319개) 분야 교육이 가장 많음. 무용(149개), 연극(130개)분야의 프로그램이 뒤를 이음

[그림 2-11] 전라북도 학교예술강사 및 분야별 현황(2022년 진행 사업 기준)



구분	초	중	고	대안	특수	총합계
전북 (중복학교 제외)	412	124	56	0	10	602

주1. 그래프(강사 수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는 중복학교 수를 포함함

주2. 학교급별 현황은 2022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전라북도교육청) 참고

자료: (사)전통문화마을 홈페이지(<http://www.tcvilleage.kr>)

■ 전라북도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 2022년 도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교예술교육은 2022년 3월에 발표된 「2022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정리함
- “예술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 아래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학생 1예술활동 지원, 내실 있는 예술교육과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소외 계층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함
- 학습자 중심의 교과 연계 예술활동 강화와 더불어 교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지원을 통해 내실있는 예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여건상 예술교육에 학생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소외계층 및 지역특화 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술교육 인프라 조성(앱, 온라인 활용 등)을 위한 사업을 시도함

[표 2-12] 「2022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세부추진 사업 내용

구분	추진과제	세부 추진 계획	주요내용
1. 예술 교육 과정 역량 강화	1-1 예술교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육과정 내 학생중심 예술활동 지원 운영	교과 융합 예술 분야 주제 활동 운영 교당2,000천원~5,000천원 2022년까지 350교 이상 지원 목표
		초등교육연극 지원	어린이 연극제 운영 연극동아리 운영(10팀)
		등교·원격수업을 위한 콘텐츠 홍보강화	학교예술교육 포털 활용
	1-2 교원 예술교육 전문성 제고	학교예술교육 수업 역량강화 연수	교원 실기 직무연수 지원
		교원 대상별 맞춤형 전문성 신장 연수	교원 역량 강화 및 예술 신규교사 멘토링 실시
		교원 예술교육연구회 운영	전북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공동주관 중등 음악/미술 교육 연구위, 전북 영상/교육연극 연구회 운영
	1-3 예술강사 협력수업 내실화	예술강사 지원(문체부 협업)	예술강사 파견 지원 사업 추진 예술강사 출간 온라인 승인, 학생지도, 만족도 조사 등 협조
2. 학생 예술 활동 기회 확대	2-1 학생 맞춤형 예술동아리 운영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지원(59교)	초(19), 중(29), 고(11) 규모별 차등 지원 (10,000천원~25,000천원)

		단체예술동아리 참가 지원	경연대회 참가지원 (팀당 1,000천원~2,000천원)	
		노후악기 관리전환 운영(잠자는 악기 깨우기 프로젝트)	과보유 및 미활용 악기 관리전환	
		학교예술동아리 지원	253개교 예술동아리 지원	
	2-2 다양한 예술 체험 기회 제공		〈전통문화예술교육 운영학교 역량강화〉지원	남원지역 국악분야 특화 브랜드 개발 한국전통문화고/남원국악예술고 운영비 지원
			전북청소년 영화캠프 및 영화제 운영	영상, 방송관련 활동 및 진로 희망학생 대상 캠프 운영
			전북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운영	예술동아리 및 오케스트라 예술활동 발표 기회 마련
			〈영화교육 중점학교〉 운영 지원	초 3개교 선정학교 지원
			학생 중심 온라인 예술 공감터 구축	중 3개교, 고 1개교 대상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 및 온라인 공연기회 제공
			예술교육연구회 주관 예술활동 운영	실기대회, 작품전, 연극제 등 주관 예술행사 실시
	2-3 예술 우수인재 발굴 지원		꿈사다리 장학제도 운영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대상 예술분야 장학금(월 30만원), 예술캠프, 멘토링 실시
			농어촌지역 영상교육사업(전북영화아카데미)	중고등학생 대상 매주 토요일, 하계 방학 중 영상제작교육 실시
			음악 우수인재 교육사업(전북음악아카데미)	음악 우수인재양성 위탁교육 (교육소외계층 50%이상)
	3. 지역 협력 네트워크 조성	3-1 지역 예술교육 인프라 활용	지역예술교육자원지도 '우리동네 예술터' 앱 고도화	지역 예술자원 정보 제공 등교수업: 지역예술가 협력 실기지도 원격수업: 지역예술단체 온라인 공연 및 전시 활용
3-2 지역 예술활동 확대에 예술교육 확산			민간단체 예능활동 지원	34개 단체 문화소외지역 대상 예능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총 443,850천원)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 내실화	초(2), 중(4), 고(2) 총 8개교 지원	
		지역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남원용성중 국악관현악단(15,000천원), 순창무지개국악오케스트라 (35,000천원) 운영 지원	
3-3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지원 협의체 구축			지역예술교육협의체 활성화	예술교육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 운영	진흥위원 9명 위촉 정기협의회 연 2회 이상 개최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혜 현황(2021년 진행사업 기준)

- 지난 2021년 전라북도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전체 618개 학교, 389명의 예술강사가 참여했으며 총 822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95,50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음. 이는 전체 학생(초·중·고, 대안, 특수학교 포함)의 52.1%에 해당하는 비율로 진흥원에서 발표한 전체 지원 평균보다 7.1% 높은 수준임

[표 2-13]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혜 현황

사업 단위		구분		전체현황(진흥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 수	618	8,620
		예술강사	389	-
		프로그램	822	-
		수혜학생(a)	95,500	2,436,750
		전체학생(b)	183,404	5,370,449
		지원비율(a/b)	52.1%	45%
지역문화 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단체	28	
		프로그램	28	
		수혜자	545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프로그램	단체	30	
		프로그램	30	
		수혜자	761	
	인문클래스 운영단체 지원 신규 프로그램 지원	단체	11	
		단체	4	
		단체	4	
		단체	1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단체	7		
	수혜자	7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단체	62		
	수혜자	1,361		
창의적 문화영재교육프로그램운영	단체	4		
	수혜자	184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단체	4		
	프로그램	4		

주1.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임(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외)

주2. 수혜현황은 해당년도 연차보고서를 참고함

■ 문화예술교육 관련 도-재단 예산 비교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2018년, 2022년 예산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와 재단 모두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은 증가함. 다만 관련 예산이 증가하였지만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 비율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문화예술과 2.61%p, 문화유산과 0.07%p, 재단 4.71%p)

[표 2-14] 도-재단 문화예술교육 예산

구분	2018년 예산(천원)	2022년 예산(천원)	비교증감
전라북도 (A+B+C+D)	4,779,590	4,887,350	107,760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A)	2,751,000	2,891,960	140,960

[표 2-15]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예산

사업명	2018년 예산(천원)	2022년 예산(천원)	비교증감
· 청년문화예술대학 운영	60,000	-	△60,000
·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 프로그램	100,000	100,000	
· 국악분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785,000	784,560	△440
·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사업	-	1,105,400	1,105,400
·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00,000	530,000	230,000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	172,000	172,000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	200,000	200,000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470,000	-	△470,000
· 토요일문화학교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	1,036,000	-	△1,036,000
합계(A)	2,751,000	2,891,960	140,960
전북문화관광재단 전체 예산	21,822,000 (12.6%)	32,526,560 (8.89%)	

자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연도별 예산공개자료 참고

[표 2-16]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예산

구분	사업명	2018년 예산(천원)	2022년 예산(천원)	비교증감
문화 예술 과	· 청년문화예술대학 운영(재단출연금)	60,000	-	△60,000
	· 창의적 문화예술재 교육프로그램 운영(재단출연금)	100,000	100,000	
	· 학교예술강사 지원	784,560	784,560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470,000	-	△470,000
	·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1,036,000	-	△1,036,000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	172,000	172,000
	· 전북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300,000	530,000	230,000
	·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	-	1,105,400	1,105,400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	200,000	200,000
	· 어린이꿈나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육성	728,460	661,320	△67,140
	·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194,000	194,000	
	· 융복합콘텐츠 체험 아카데미 운영	200,000	-	△200,000
	·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	280,000	259,000	△21,000
	·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55,000	43,000	△12,000
	·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24,000	15,000	△9,000
	소계(A)	4,232,020	4,064,280	167,740
	문화예술과 전체 예산	63,180,582 (6.7%)	99,454,392 (4.09%)	
문화 유산 과	·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117,450	158,050	40,600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	38,280	38,280
	·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185,900	117,000	68,900
	소계(B)	303,350	313,330	9,980
문화유산과 전체 예산	75,777,290 (0.4%)	93,919,813 (0.33%)		
도립 미술 관	· 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C)	55,000	278,820	223,820
	도립미술관 전체 예산	3,107,249 (1.78%)	4,055,985 (6.87%)	
도립 국악 원	· 국악연수 및 교재발간 등(D)	189,220	230,920	41,700
	도립국악원 전체 예산	17,729,507 (1.07%)	20,934,377 (1.10%)	

주1. 2018년 간주 1차, 2022년 본예산 자료

주2. 2018년 유희공간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지원(전주 꿈꾸는 예술터) 1,000,000(천원)제외

자료: 전라북도 연도별 예산공개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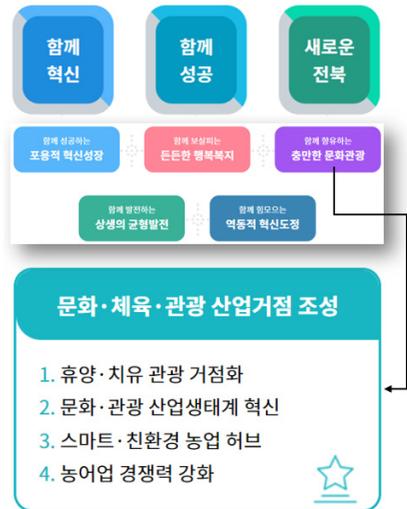
나. 전라북도 민선 8기 방향

1) 주요 도정 방향

■ 비전

- 민선 8기 전북도정 비전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임. 5대 도정 지표는 포용적 혁신성장, 든든한 행복복지, 충만한 문화관광, 상생의 균형발전, 역동적 혁신도정임
- 문화 분야 세부 전략은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임. 민선 8기 도정에서는 문화의 산업화를 강조하며, 관련 사업을 공약에 담고 관련 부서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산업과로 전환함
- 문화예술교육정책에 있어서 참조할 도정 방향은 두 가지임. 첫째, 문화의 산업화에서 알 수 있듯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가치의 창출임. 둘째, ‘함께’라는 도정 비전이 보여주듯 사업 추진에 있어 ‘협치’가 강조됨

*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2) 민선 8기 도정방향 관련 문화예술교육 정책 시사점

■ 산업 강조하는 도정 방향을 반영,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창출 강화

- 문화 분야와 관련한 도정 과제는 문화·관광 산업 생태계 혁신임. 기존에 주민 향유 수준에서 확장하여 산업적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전략으로, 문화예술교육 분야 역시 산업화로 나아가는 환경을 마련하고 민간영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화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의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도 중요함.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교육적 효과 외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함께 실현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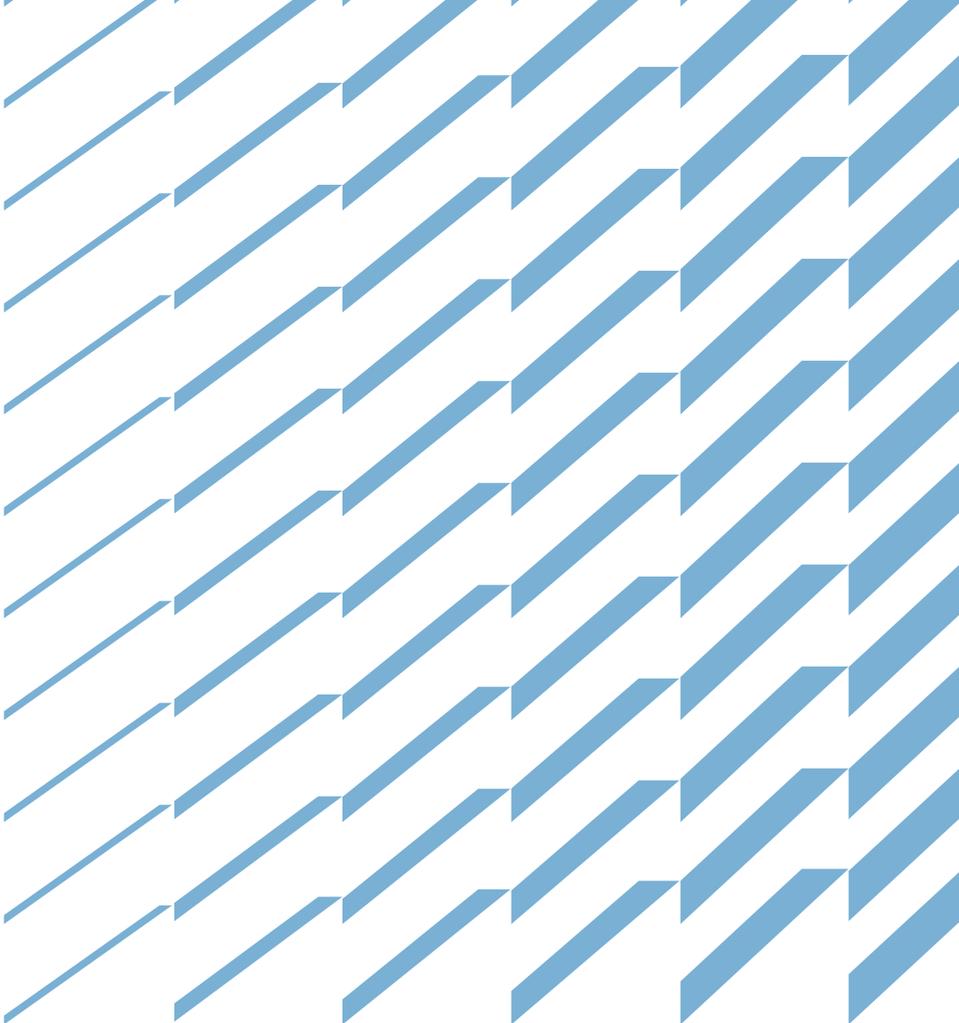
■ 관계기관, 민간단체, 타 분야와의 협치 강화

- 세부 공약(과제)으로 대학 연계 문화예술 콘텐츠 교육 플랫폼 구축이 포함됨. 이 공약은 문화산업화(콘텐츠)와 대학과의 협치(대학인력 활용 콘텐츠 교육)라는 민선 8기 도정의 두 축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음

[그림 2-12] 전라북도 민선 8기 공약: 대학 연계 문화예술 콘텐츠 교육 플랫폼 구축

- **(수준높은 교육내용)** 대학연계를 통해 대학의 교육자원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실시
-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산업수요 대비 전문인력의 공급 부족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학연계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게임개발, 콘텐츠 편집, 웹툰창작 등 전문인력 양성으로 산업수요 공급
-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 도내 콘텐츠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교육·일자리창출 발전방향 모색
- **(새로운 공간창조)**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통해 공간적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3D공간 구축으로 교육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공간
- **(참여와 교류)** 생산자와 이용자의 참여와 교류로 업데이트되는 교육내용과 방식의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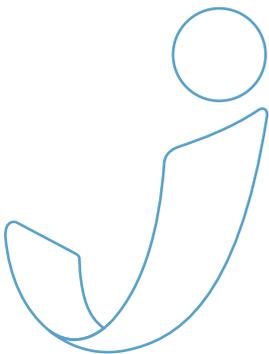
- 지금까지 주로 추진하던 문화예술교육 영역(예술 주도)은 아니나,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문화산업이 포함되고 대학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음
- 이 공약을 계기로 제1차 전복계획에는 담기지 않았던 문화콘텐츠 분야 교육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대학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치 교육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제 3장

계획 방향 설정

1. 제2차 전북계획의 수립 방향
2. 제2차 전북계획의 방향과 전략



제3장 계획 방향 설정

1. 제2차 전복계획의 수립 방향

가. 환경 분석에 따른 주요 과제

1)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

■ 정책 대상과 수혜 규모 확대

- 문화예술교육은 다른 분야와 차별화되는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자 노력함. 단발성 체험이 아니라, 예술의 가치로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적 성과를 중요하게 고려함
- 이러한 정책 방향은 문화예술교육을 독자적 영역으로 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한편으로 문화예술교육이 확대하는 데 한계로 작용함. 독자적 가치를 가진 문화예술교육 수혜대상을 특정 참여자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 가치를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함
-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 정책 대상은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에서 진행한 사업, 문화기반시설 및 생활문화시설 등과 연계하여 진행한 프로그램이었음.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려면 문화 외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백화점과 대학교의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도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문체부-교육진흥원-광역센터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문화기반시설(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등)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문체부-교육진흥원과 관련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포함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범위(영역)는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구축에서 협력대상으

로 설정할 전망이다

- 하지만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시설이 있더라도 운영 인력이 없는 문화시설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전라북도에서는 영역을 더 넓힐 필요가 있음. 대학 평생교육시설, 백화점 등 민간의 문화교육센터, 지자체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단순히 협력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함
- 기초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재원과 인력과 시설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면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교육시설(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단계·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기초단위 통합 운영 모델이 필요함
- 주민센터,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 관계자가 모여 연간 사업을 공동으로 구상하고, 공간별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협의체가 구성되고, 이를 총괄하는 실무 간사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기초지원센터,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실무 간사 단체를 맡음
- 광역에서 기초의 유사조직 간 공동 추진이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에 제공하고, 기초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또한, 정책 대상과 수혜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다른 분야와 연계 전략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표 3-1] 문화예술교육-주민자치센터-생활문화-평생교육 협력사업 예시

- (예시) 시설 간 단계별 운영 : 기타 강습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초반을 운영하고, 생활문화센터에서 중급반을 운영하고,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 타 분야와의 융합 또는 기타연주곡 창작 수업을 진행
- (예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강사 또는 기획인력을 제공하고, 생활문화시설의 동호회가 참여하여 기초지역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예술교육사업을 단계별로 진행

■ 민간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제2차 전북계획에서는 제1차 전북계획에서 구상하였던 민간시장 활성화를 실현하는 단계로 설정함. 수요-공급 매개 역할로서 도 지원센터 역할을 고민하고, 교육콘텐츠를 보유한 민간단체(또는 문화예술교육사)를 문화예술교육을 희망하는 개인·단체·시설·기관 등에 매개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함

2) 정책의 지역화 관련 과제

■ 완전 지방이양 대응, 자치 요소별 활성화

- 자치와 분권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지역으로 이양되며, 2023년에 사업이 전체 이양됨. 문화자치의 구성요소는 제도와 재정과 추진체계 및 자치역량으로, 제1차 전북 계획에서 추진한 사업을 이어받아 제2차 전북계획에서는 정책의 지역화를 실현하는 과제가 발굴되어 구체적인 사업으로 담겨야 함

-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독려하고(예, 14개 시군 중 50% 이상 지역에서 조례제정),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그림 3-1] 지역화 대응 방향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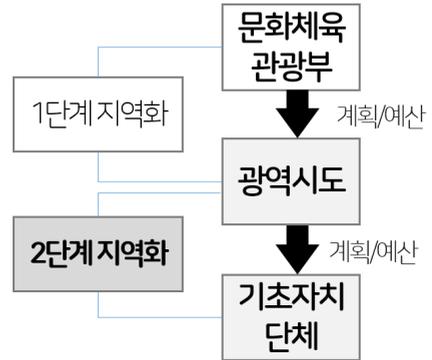


- 둘째, 시군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계획이 수립되면 정책에서 관심을 들뿐 아니라 최소한의 사업이 진행됨. 계획 수립 과제에서 지역주민의 관심도 높아짐. 문체부 사업을 이양받은 전라북도가 재정을 지원하는 전제로 시군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기초거점 사업을 진행한 지자체에서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계획이 수립되도록 광역의 역할이 필요함
- 셋째,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나아가 확장된 예산 확보가 필요함. 전라북도는 공모 사업을 유치하면서 계획된 예산보다 더 많이 확보함. 하지만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정적이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함
- 넷째, 거버넌스는 종합계획에서 검토되듯이, 지역에서도 종적 네트워크(광역-기초)와 횡적 네트워크(개별 정책 단위)가 구축되어야 함. 횡적 네트워크에서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정책분야(생활문화, 평생교육 등)뿐 아니라, 도교육청 및 교육현장, 민간 예술교육 시장영역까지 확장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함

■ 광역-기초 연계 및 시군 자율성 확대

- 제1차 전복계획에서는 광역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기초거점 및 기초문화재단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기초단위 추진체제와 연계 협력체제의 기틀을 다졌으나, 참여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가 적지 않고, 사업의 연계 협력 수준이 예산을 균등하게 나눠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그침

[그림 3-2] 단위별 지역화의 단계



- 정부에서 광역으로 사업이 이양되고 예산이 포괄 보조되어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듯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할 기초거점과 문화재단이 있는 지역에 광역에서 포괄 예산을 지원하여 기초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전라북도 내 지역화가 필요함
-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는 지자체가 운영비를 확보하여야 사업을 계속되는 데 전주시조차 장담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자체에서 기초거점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나 광역이 기초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야 함. 예를 들어, 기존 공모사업 중 관련 시군 예산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하여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등에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함.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것으로, 기초거점 사업을 진행하는 장수군까지 포함하면 10개 지역과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협력하는 기반이 만들어짐.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협력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함
-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고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의지가 많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여 기초거점, 혹은 장기적으로 문화재단 설립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홍보·마케팅 전략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교육청과의 공동사업 발굴, 협력 강화

- 2018년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연간 30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꿈지락 예술+> 사업을 추진함.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여 예술향유와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었으나, 문화예술단체와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이어지지 못함
- 민선 8기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행정·교육 간 협치를 강조함. 단순하게 협의체 참여 수준이 아니라, <꿈지락 예술+> 사업처럼 교육현장과 문화예술교육현장이 협력하는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협치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함

3)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의 고도화

■ 전용시설 확충과 기존 시설의 활용 병행

- 지자체에서는 전용공간을 새롭게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꿈꾸는 예술터라는 전용공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존 문화시설을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지자체 문화시설 중에서 변화가 가장 많은 시설이 도서관임. ‘떠드는 도서관’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기능을 확장함. 지자체에는 많은 공립도서관이 조성되었고, 계속 조성 중임. 시군별 여러 도서관 중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핵심 기능으로 설정한 도서관을 지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군 문예회관은 활용도가 크지 않음.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공간이자 문화활동 체험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방안도 발굴하여 지자체에 제시하는 것도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음

■ 사회적 가치 실현형 교육 전략과 사업 확대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감수성 증진을 1차 목표로 설정하되, 교육으로 형성된 문화감수성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에 주목해야 함. 현대 사회의 위협에 대응하거나, 문화적 돌봄, 문화적 치유, 문화적 키움 등과 관련한 문화

예술교육 사업이 개발되어야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대됨

- 정책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나, 실제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는 예가 많지 않음. 특히 제1차 전북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기초연구 수준에서 사회적 가치가 논의됨. 제2차 계획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도록 정책 설정과 과제발굴이 필요함

[표 3-2]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화예술의 개입 지점

사회 이슈	먼저 온 미래 현상	현재 정책방향	문화적 처방 요구 지점
인구감소	· 인구감소의 가속화 · 노동인구 축소로 이주노동의 증가 · 학령기 아동의 감소 및 대학의 위기	· 출산 장려 정책 · 이주민 정책	· 문화적 돌봄(문화안전망)을 위한 활동 · 문화다양성 관점의 활동
고령화	· 노인층의 욕망표출과 분노 · 사회 복지 비용의 증가 · 1인 노인 가구 증가	· 노인복지 정책 강화	· 노인의 사회적응 및 재활 성화 위한 문화정책 필요
개인화	· 다양한 사회적 욕망 표출 · 1인 가구 증가 · 갈등과 혐오 표출 증대 · 불의에 대한 저항 강화 · 가부장과 권위에 대한 분노 표출	· 청년정책 강화 · 직장 내 갑질 관리 · 성평등 정책 수립	· 생애주기별 영역과 세대 통합적 영역의 확장 · 인권, 생명, 성평등 등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 확대
기술혁신	· 기존 일자리 축소 · 새로운 일자리 영역 증가 · 플랫폼 노동의 증가 · 기술 리터러시의 문제 증가 및 소외	· 불안정 일자리 공급 · 새로운 노동쟁점 관리 · 기술보급 장려	· 정보 리터러시 문제를 중점적으로 접근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2019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로드맵(안) 보고서」에서 인용

■ 일자리보다 일거리 확대에 집중

-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 등은 모두 일자리 사업임. 일자리 확대로 사업방향이 설정되면서 개인에게 사업이 집중되는 문제를 가져옴. 문화예술교육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려면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단체, 기업, 기관 등이 늘어나야 함. 이는 일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 가능함
-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되, 점차적으로 일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하겠다는 단체나 기업이 계속해서 일하도록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일거리가 늘어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나.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1) 의견수렴 개요

■ 도 행정(공무원), 도 지원센터와 시군 기초거점·문화재단 관계자

- 도 담당공무원, 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시군(전주, 익산, 완주, 고창, 부안, 장수)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및 문화(관광)재단 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함
- 연구진이 검토한 제1차 전북계획의 이행결과를 설명하고, 관계자에게 계획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2차 전북계획에 담았으면 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청취함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사업 사례와 관계자 인터뷰

- 전라북도 내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한계와 과제 등을 인터뷰함
 - (사례) 전주문화재단의 창의예술교육 랩, 임실군 삼삼오오협동조합의 다문화 관련 교육, 군산시 문화단체 우만의 여성 주제의 영화교육 사업 등

■ 지역 내 평생교육정책 및 생활문화정책 관계자 인터뷰

-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평생교육부 담당 직원을 인터뷰함. 평생교육 분야도 다른 분야와 연계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문화예술교육과 연계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함. 생활문화정책 관계자와는 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눔

2) 의견수렴 결과

■ 신규 사업추진의 한계,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전략 필요

- 계획과제의 내용이 변경되어 이행된 과제가 적지 않음. 계획과제의 내용 변경이나 과

제의 미이행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정 확보의 어려움임. 지원된 국비와 국비 매칭 도비를 제외하고 새롭게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내용을 변경하게 됨

- 제2차 전복계획에서도 문화예술교육 재정을 대폭 확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유사한 기존 사업, 다른 부서 사업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문화예술교육 범주에 포함되나 전복계획에 담기지 않았던 사업(문화유산교육, 미디어교육, 도립기관의 예술교육 등)과 연계하는 과제가 필요함

■ 광역과 기초의 역할 구분과 기초의 자율성 중요

- 도 지원센터는 문체부로부터 이양된 사업, 시군 대상의 공모사업, 협력사업, 도 자체 사업이 집중됨. 여기에 조사통계, 컨설팅과 모니터링, 협의체 운영 등까지 담당해야 해서 과다한 업무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 특히 광역 조직으로서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르면서 중장기 정책을 개발·기획하여야 하는 역할도 주어짐
- 이와 달리 기초(기초거점·문화재단)에서는 공모사업 방식의 참여,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 자체 사업의 부족 등으로 단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급급함. 즉 광역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로 비쳐질 수 있음
- 지역화라는 큰 흐름에 따라 광역에서 기초로 '지역 내 지역화'가 이뤄져야 하며, 지역화를 전제로 광역과 기초 단위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기초에서는 광역으로부터 이양받은 사업과 재정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시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직접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실행주체의 역할을 담당함. 광역에서는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과 세부 사업을 발굴함. 지역별 재정을 지원하되, 기초거점 또는 문화재단 등 사업을 담당할 중간 지원조직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광역이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광역센터 기초사업소 기능을 담당함
- 또한, 기초 관계자는 기초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함. 지역별 여건이 다르므로 재정을 지원하되,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임. 다만 기초거점 사업을 하거나 문화재단이 운영되더라도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시군 여건을 고려한 자율성 부여가 필요함

■ 생활문화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 필요

- 문화가 있는 날 사업(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지원, 지역문화진흥원 주관)을 보면 대부분 문화예술교육을 핵심 사업으로 진행함(문화가 있는 날(매마수, 매마주) 프로그램 중 단순 강좌부터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전문인력이 참여하지 않으며, 단체 관계자 또는 예술인력, 다른 분야 전문인력(다문화 프로그램 전문가)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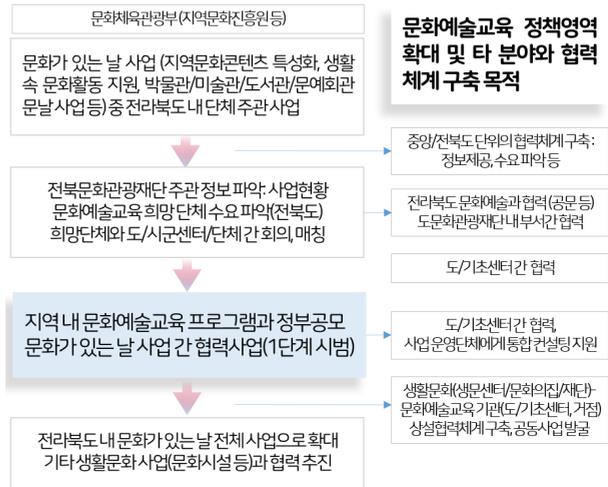
-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원하지만,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존재, 혹은 활동 내용을 알지 못함.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이나 관련 단체는 생활문화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해 자기 프로그램(콘텐츠)을 생활문화에 활용하지 못하는 예가 많음

- 생활문화 활동과 문화예술교육은 밀접한 관계인데도 실제 관련 단체나 전문인력의 협력 활동이 미흡함. 제2차 계획에서는 형식적인 협의 수준(예, 지원기관 간 정보제공 수준의 협의체)을 넘어 현장에서 전문역량이 융합되도록 시범 프로젝트가 필요함

- (예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지역문화진흥원 사업, 문화기반시설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과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 프로그램 공동개발, 전문인력 활용 등

- 문예회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기존 계획에 담겼으나, 생활권 시설(예,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2차 전복계획에 이를 담아줄 것으로 희망함

[그림 3-3] 문화예술교육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협력 예시



■ 평생교육 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사업 필요

- 평생교육 분야와 MOU를 체결하여 상설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우선 필요함. 이를 토대로 각 분야의 공모 지원사업을 상호 활용하는 방안, 전문역량 강화 보수교육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필요성 확대와 교육 효과의 과학적 검증

-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관계자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얻어지는 사회적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대부분 동의함. 특히 교육 효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사회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전주문화재단에서 창의예술교육 랩 사업(원예치유와 문화예술교육 융합을 통한 치유교육콘텐츠 개발)을 진행하면서 교육 효과의 과학적 검증이 어렵다고 말함. 기존 사업에서 설문지 외에 효과를 검증한 사례가 적고, 검증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면서(예, IRB)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많다는 것임
- 기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 일반화되어야 함. 정부, 전라북도 차원에서 교육 효과검증 방법을 현장 관계자가 활용하도록 기초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이른바 교육효과 검증기반사업이 필요함

■ 교육목적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콘텐츠 개발과 적용 필요

-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감정노동 집단, 육체노동 집단(예, 소방직 공무원, 청소노동자 등), 노인층(노인 중에서도 치매노인, 거동불편 노인, 고령노인, 활동적인 노인 등), 학교 밖 청소년 등 목적대상별로 필요한 치유효과는 다름. 그만큼 특정 목적에 맞는 치유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이러한 이유에서 관계자들은 교육 효과검증을 통해 특정 목적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화(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델)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재정 확보의 어려움, 계기성 사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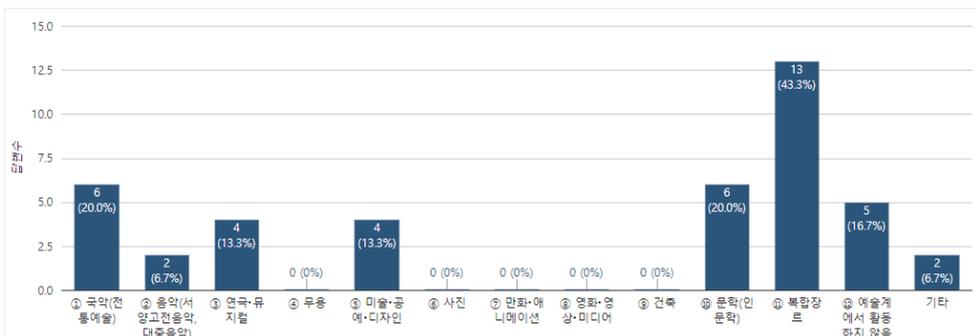
- 시군에서 문화예술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마중물로서 광역과의 계획계약 방식의 포괄보조 지원,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하는 매칭 사업 신규 발굴 등이 필요함

2. 제2차 전북계획의 방향과 전략

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조사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환경 분석, 정책 동향 검토, 제1차 전북계획 이행 점검, 관계자 심층면접 등을 통해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에게 의견을 물어 제2차 전북계획 전략과 추진과제의 방향을 설정함
- 조사 시기와 방법 : 2022년 9월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총 2회 실시함
 - 1차 :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장애요인, 환경변화 변화 내용, 주요 이슈에 대한 전략적 접근, 주요 과제 등
 - 2차 :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전략을 도출하고, 전략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조사
- 조사 참여 인원 : 30명
 - 지자체 공무원 1, 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위탁기관) 관계자 10, 문화예술교육 단체·기획자 9,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4,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1, 교사·교원·교육청 1, 문화 시설 종사자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등) 2, 문화예술교육 전문가(학계, 연구자 등) 2
 - 조사 참여자의 활동 분야(복수 응답)



- 조사 활용 : 1~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차 전북계획의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과제 선정과정에서 조사 참여자의 항목별 답변 비율을 고려함

2) 조사 결과

■ 1차 조사 결과

○ 문화예술교육 사업 진행의 장애요인

- (응답 가중치가 높은 항목)¹¹⁾ 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부족 36 > ②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 예산 투자의 부족 31

답변	누적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부족	36.0	26.7	13.3	13.3
②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부족	14.0	6.7	13.3	0.0
③ 문화예술교육 조례의 부재와 실효성 낮은 조례 내용	14.0	13.3	0.0	6.7
④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 예산 투자의 부족	31.0	16.7	23.3	6.7
⑤ 지자체-문화재단(지원센터)-현장의 사업 체계성 부족	16.0	10.0	10.0	3.3
⑥ 평생교육과 생활문화와의 연계 협력사업의 부족	5.0	0.0	6.7	3.3
⑦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의 부족	16.0	6.7	13.3	6.7
⑧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미흡	6.0	3.3	0.0	10.0
⑨ 다종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콘텐츠)의 부족	11.0	6.7	6.7	3.3
⑩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	17.0	3.3	13.3	20.0
⑪ 소수 중심 집중교육에 따른 정책 수혜자의 절대적 부족	2.0	0.0	0.0	6.7
⑫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협력 부족	11.0	6.7	0.0	16.7
⑬기타	1.0	0.0	0.0	3.3

○ 제2차 전북계획(2023-2027) 기간 내 가장 주목하거나 대응해야 할 환경적 변화

- (응답 가중치가 높은 항목) ① 문화정책의 지방이양 가속화와 지역의 역할 증대 51 > ② 도시(수도권·전주) 집중화로 시군(도농) 불균형 심화

답변	누적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고령화 사회, 외국인주민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	20.0	6.7	20.0	6.7
② 도시(수도권·전주) 집중화로 시군(도농) 불균형 심화	32.0	23.3	13.3	10.0
③ 문화정책의 지방이양 가속화와 지역의 역할 증대	51.0	46.7	10.0	10.0
④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18.0	10.0	13.3	3.3
⑤ 친환경/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 제기	8.0	3.3	6.7	3.3
⑥ 양극화, 사회적 갈등 심화에 대한 문화의 역할 강조	17.0	3.3	10.0	26.7
⑦ 예술대학 축소 등 예술인 양성기반의 축소와 변화	18.0	6.7	13.3	13.3
⑧ 시군문화재단 설립 등 공조직을 통한 문화정책 확대	16.0	0.0	13.3	26.7
⑨기타	0	0.0	0.0	0.0

11) 1순위와 누적 가중치를 종합하여 두드러지게 값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제2차 전북계획(2023-2027)에서 집중해야 할 전략적 접근

답변		비율
3-1	① 특정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26.7%
	② 일반 국민 대상으로 확대, 더 많은 도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73.3%
3-2	① 공공 기능의 문화시설 등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에 집중 지원	70.0%
	② 민간시설(백화점문화센터, 대학 평생학습원 등)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30.0%
3-3	① 문화예술교육의 독자적 영역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프로그램 운영	63.3%
	② 생활문화 및 평생교육과 통합하여 포괄적인 사업으로 진행	36.7%
3-4	① 시설학원 등은 제외한 공공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유지	33.3%
	② 생활체육처럼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시장의 활성화	66.7%
3-5	① 예술의 기능교육 및 감수성 증진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6.7%
	②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그램	73.3%
3-6	① 소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	16.7%
	②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	83.3%

○ 제2차 전북계획의 비전 관련 강조 내용

- (응답 가중치가 높은 항목) ① (인식의 확산)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인식 확산 > ② (특성화 강화) 문화예술교육의 전북 특성화 > ③ (목적의 확장)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문화예술교육

답변	누적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인식의 확산)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인식 확산	52.0	46.7	10.0	13.3
② (다양성 증진) 다종다양한 문화예술교육	23.0	13.3	13.3	10.0
③ (대상의 확대) 더 많은 도민의 교육 참여	26.0	13.3	10.0	26.7
④ (방법의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체계 구축	2.0	0.0	0.0	6.7
⑤ (목적의 확장)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문화예술교육	28.0	10.0	26.7	10.0
⑥ (특성화 강화) 문화예술교육의 전북 특성화	29.0	13.3	16.7	23.3
⑦ (전문성 심화) 교육 관계자의 전문역량 강화	20.0	3.3	23.3	10.0
⑧ 기타	0	0.0	0.0	0.0

○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정책 중 중요한 항목

- (응답 가중치가 높은 항목) 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및 전문단체의 지원 > ② 전북도 정책 예산의 시군으로 포괄 보조(이양)

답변	누적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전북도 정책 예산의 시군으로 포괄 보조(이양)	34.0	30.0	10.0	3.3
②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의 확충과 활성화	28.0	10.0	23.3	16.7
③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및 전문단체의 지원	38.0	26.7	13.3	20.0
④ 다종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29.0	13.3	20.0	16.7

⑤ 문화예술교육의 민간 시장 활성화 지원	8.0	3.3	0.0	16.7
⑥ 생활문화·평생교육과의 협력체계구축과 공동사업	5.0	3.3	3.3	0.0
⑦ 시군 간 문화예술교육 불균형(격차) 해소 사업	16.0	3.3	16.7	10.0
⑧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	21.0	10.0	13.3	13.3
⑨ 기타	1.0	0.0	0.0	3.3

○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 (응답 가중치가 높은 항목) ① 일반 국민 전체 대상의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 ② 지역 특화형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 ③ 사회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과 전문단체의 양성

답변	누적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대	22.0	16.7	6.7	10.0
② 일반 국민 전체 대상의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38.0	30.3	10.0	6.7
③ 지역 특화형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28.0	16.7	16.7	10.0
④ 사회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의 확보	22.0	0.0	30.0	13.3
⑤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	23.0	10.0	20.0	6.7
⑥ 학교-사회 간 문화예술교육 협력	12.0	3.3	10.0	10.0
⑦ 사회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과 전문단체의 양성	25.0	13.3	6.7	30.0
⑧ 사회 문제 해결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10.0	6.7	0.0	13.3
⑨ 온라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발	0	0.0	0.0	0.0
⑩ 기타	0	0.0	0.0	0.0

○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 (응답 가중치가 높은 항목) ① 지역 문화예술자원의 적극 활용 > ② 학교 예술강사의 처우 개선 > ③ 정규 교과 중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답변	누적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학교 예술강사의 처우 개선	27.0	23.3	6.7	6.7
② 신규 학교 예술강사의 발굴	6.0	6.7	0.0	10.0
③ 정규 교과 중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25.0	20.0	6.7	10.0
④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교수 방법의 다각화	11.0	0.0	13.3	10.0
⑤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	22.0	6.7	16.7	20.0
⑥ 학교-사회 간 문화예술교육 협력	23.0	10.0	13.3	20.0
⑦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25.0	13.3	16.7	10.0
⑧ 지역 문화예술 자원의 적극적 활용	36.0	20.0	23.3	13.3
⑨ 온라인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개발	2.0	0.0	3.3	0.0
⑩ 기타	3.0	0.0	0.0	0.0

■ 1차 조사 결과 분석과 2차 조사 결과

- (1차 조사 결과 분석) 문화예술교육의 장애요인, 환경변화 전망, 집중할 전략적 접근, 제2차 전복계획(2023~2027)의 비전 방향,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1차 조사의 응답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모두 여섯 개의 내용으로 정리함

1. 지자체 인식 부족, 예산 투자 부족, 미흡한 사업 체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지방이양(문화자치), 도농 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3. 민간시장 연계, 대중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4. 전북특화 콘텐츠,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야 한다.
5. 전문인력(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 처우를 개선하고 단체를 육성·지원해야 한다.
6.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차 조사) 여섯 개의 의견(전략)별로 필요 과제에 대하여 질문함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 (응답 가중치가 높은 항목) ① 지자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교육 재정목표 설정 > ② 문화예술교육 행정 전문가의 지자체 배치 > ③ 시군 문화예술교육 법정계획 수립(현재 도만 수립), 재정 확보와 프로그램 질 제고 유료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 ④ 시군 문화예술교육 조례의 제정

답변	누적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1) 시군 문화예술교육 조례의 제정	27.0	26.7	3.3	3.3
2) 시군 문화예술교육 법정계획 수립(현재 도만 수립)	28.0	16.7	16.7	10.0
3) 지자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교육 재정목표 설정	43.0	26.7	23.3	16.7
4) 시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18.0	3.3	20.0	10.0
5) 공무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연수)	6.0	0	6.7	6.7
6) 문화예술교육 행정전문가의 지자체 배치	29.0	16.7	13.3	20.0
7) 재정 확보와 프로그램 질 제고 유료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28.0	10.0	16.7	30.0
8) 기타	1.0	0	0	3.3

- 지방이양(문화자치), 도농(수도권-지역, 전주-기타 시군) 간 격차 심화, 고령화와 외국인 주민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
- (응답 가중치가 높은 항목) ① 시군이 직접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광역(도)의 예산을 시군에 포괄 보조 > ②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동력으로서 민간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육성과 지원 > ③ 시군 역량이 부족하므로 광역(도)이 직접 시군 간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

답변	누적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1) 문체부에서 광역(도)으로 이양된 사업을 다시 기초(시군)로 이양	20.0	16.7	6.7	3.3
2) 시군이 직접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광역(도)의 예산을 시군에 포괄 보조	44.0	30.3	20.0	6.7
3) 시군 역량이 부족하므로 광역(도)이 직접 시군 간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	23.0	23.3	0	6.7
4) 인구소멸에 대응하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강화	21.0	3.3	20.0	20.0
5) 아동/청소년 중심 사업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확대	10.0	0	13.3	6.7
6)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개발과 지원	10.0	0	10.0	13.3
7) 기초(시군) 중심의 사업추진 기반으로 시군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설립	20.0	10.0	13.3	10.0
8)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동력으로서 민간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육성과 지원	30.0	13.3	13.3	30.3
9) 기타	2.0	0	3.3	0

○ 더 많은 도민이 문화예술교육을 받도록 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

- (응답 가중치가 높은 항목) ①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개발과 지원 > ② 기존 문화시설 활용 교육사업 확대 > ③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홍보 강화 > ④ 전용시설(꿈꾸는 예술터) 확충

답변	누적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1)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꿈꾸는 예술터) 확충	25.0	16.7	16.7	0
2) 민간 문화예술교육 시설의 지원	17.0	13.3	3.3	10.0
3) 교육기간이 짧지만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산	19.0	13.3	6.7	10.0
4)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홍보 강화	26.0	6.7	13.3	40.0
5) 사회복지/평생교육 분야 연계 및 공동사업 확대	24.0	6.7	23.3	13.3
6) 기존 문화시설 활용 교육사업 확대	29.0	16.7	20.0	6.7
7)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개발과 지원	35.0	23.3	16.7	13.3
8) 시설 학원 지원을 통한 교육 대상자 확대	0	0	0	0
9) 기타	5.0	3.3	0	6.7

○ 전라북도 특화 문화예술교육, 사회문제 해소형 문화예술교육 관련 필요 사업

- (응답 가중치가 높은 항목) ① 사회문제 관련 분야와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사업 > ② 문화예술교육의 산업화 기반 마련과 지원 > ③ 문화예술교육으로 사회문제 해소 성공사례 발굴

답변	누적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1) 문화예술교육 리빙랩 사업 추진	23.0	10.0	16.7	13.3
2) 문화예술교육으로 사회문제 해소 성공사례 발굴	26.0	16.7	6.7	23.3
3) 문화예술교육 관련 효과 검증 연구	17.0	10.0	10.0	6.7
4) 사회문제 관련 분야와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사업	51.0	30.0	30.	13.3
5)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사업 발굴	19.0	6.7	16.7	10.0
6) 문화예술교육의 산업화 기반 마련과 지원	34.0	26.7	6.7	20.0
7) 사회적 이슈(ESG) 사업에 지원 집중	9.0	0	10.0	10.0
8) 기타	1.0	0	0	3.3

○ 전문인력과 문화예술교육단체 활동 활성화 관련 필요 사업

- (응답 가중치가 높은 항목) ① 정규 교과 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확대 > ② 전문인력/단체에 문화예술 교육 일거리 제공 > ③ 문화예술교육사의 활용(배치) 사업 발굴과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활용 인센티브 제공

답변	누적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1) 문화예술교육사의 활용(배치) 사업 발굴과 지원	27.0	20.0	10.0	10.0
2) 문화예술교육단체의 개념 정립과 전문화	24.0	16.7	10.0	10.0
3)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활용 인센티브 제공	27.0	13.3	20.0	10.0
4) 전문인력/단체관계자의 역량 강화 지원	23.0	6.7	20.0	16.7
5) 전문인력/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일거리 제공	29.0	10.0	16.7	30.3
6) 정규 교과 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확대	31.0	26.7	6.7	10.0
7) 정책 결정과정에 전문인력/단체의 적극 참여	17.0	6.7	13.3	10.0
8) 기타	2.0	0	3.3	0

○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직접 참여자 확대 관련 필요 사업

- (응답 가중치가 높은 항목) ① 대중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정보 제공 > ③ 언론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필요성 홍보

답변	누적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1) 대중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50.0	40.0	16.7	13.3
2) 언론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필요성 홍보	37.0	23.3	20.0	13.3
3) 문화예술교육 축제 등 대중 이벤트 개최	9.0	0	10.0	10.0
4) 사회복지/평생교육 등과 협력사업 강화	18.0	6.7	13.3	13.3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정보 제공	44.0	26.7	23.3	20.0
6) 기후위기 등 사회이슈 관련 사업 추진	11.0	3.3	10.0	6.7
7) 치유/돌봄 등 건강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9.0	0	6.7	16.7
8) 기타	2.0	0	0	6.7

3) 조사 결과에 따른 계획수립 방향

■ 제2차 전북계획의 정책 방향

- 관계자들은 1차 조사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 첫째, 지자체의 정책기반 마련, 둘째, 환경변화의 적극적 대응, 셋째, 정책 수혜자의 확대, 넷째, 지역특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 다섯째, 전문인력과 단체의 지원, 여섯째, 사회적 인식 확대를 제안함
- 이를 종합하면, 관계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기반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민간 영역의 활성화를 요구하며, 지방소멸이나 기후위기 등 사회적 문제를 문화로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함

■ 재정, 전문성, 계획 등 기초의 정책기반 마련

- 관계자들이 정책기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재정임. 재정목표를 설정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함.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의견에도 상당수가 동의함. 전문성을 갖춘 행정전문가가 필요하며, 현재 도만 수립하는 법정계획을 시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됨
- 기초의 자율성도 강조되며, 이를 실행할 조건으로서 전라북도 예산을 시군에 포괄 보조하는 사업방식이 광역이 직접 시군 간 격차 해소하는 사업방식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임. 즉 시군에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자율적 사업 추진이 강조됨

■ 대중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를 통한 수혜자 확대

- 더 많은 도민이 문화예술교육을 받도록 대중적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추진과제로 찾아 가는 서비스와 기존 문화시설 연계 등이 강조됨. 제1차 전북계획의 평가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소수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대중적으로 확산하여야 한다는 지적임
- 사회복지와 평생교육, 문화유산 등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문화예술교육 분야 외 교육과 관련된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하는 방향도 강조됨

■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문화예술교육의 확산

- 관계자 대부분이 사회문제에 직접 관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예술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공동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예를 들어, 가장 많이 협력하는 분야가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의 연계인데, 단순한 예술체험 등이 아니라 도시재생의 핵심인 공동체 회복에 문화예술교육이 역할을 할 수 있음
- 구체적인 과제로 문화예술교육으로 사회문제를 해소한 성공사례 발굴과 문화예술교육 리빙랩(생활실험실) 사업 등이 제안됨. 고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사회갈등, 지역 불균형, 범죄, 정신심리적 문제 등과 관련한 문화예술교육의 사례를 발굴하거나, 지역에서 직접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함

■ 민간의 일거리 확충과 문화예술교육 산업화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관련해서는 일거리 제공이 가장 큰 과제로 제안됨.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숙제도 중요한데, 결국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이 민간 영역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임. 유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이런 취지에서 이해되며, 학교 정규과정 문화예술교육 확대도 마찬가지임
- 문화예술교육을 사회서비스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산업의 대상이자 지역 활성화의 방법으로 이해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임. 조사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이 산업화에 긍정적 의견을 내놓았는데, 민간시장의 활성화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 대중화, 언론 홍보, 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인식 제고

- 지자체의 인식, 도민의 인식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중적 프로그램의 확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정보의 제공, 언론을 통한 필요성 홍보 등이 주요하게 제안됨
-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내 삶에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사례(예, 문화예술교육의 치유 효과)를 발굴하고, 이를 언론 등에 홍보하며, 이와 관련한 대중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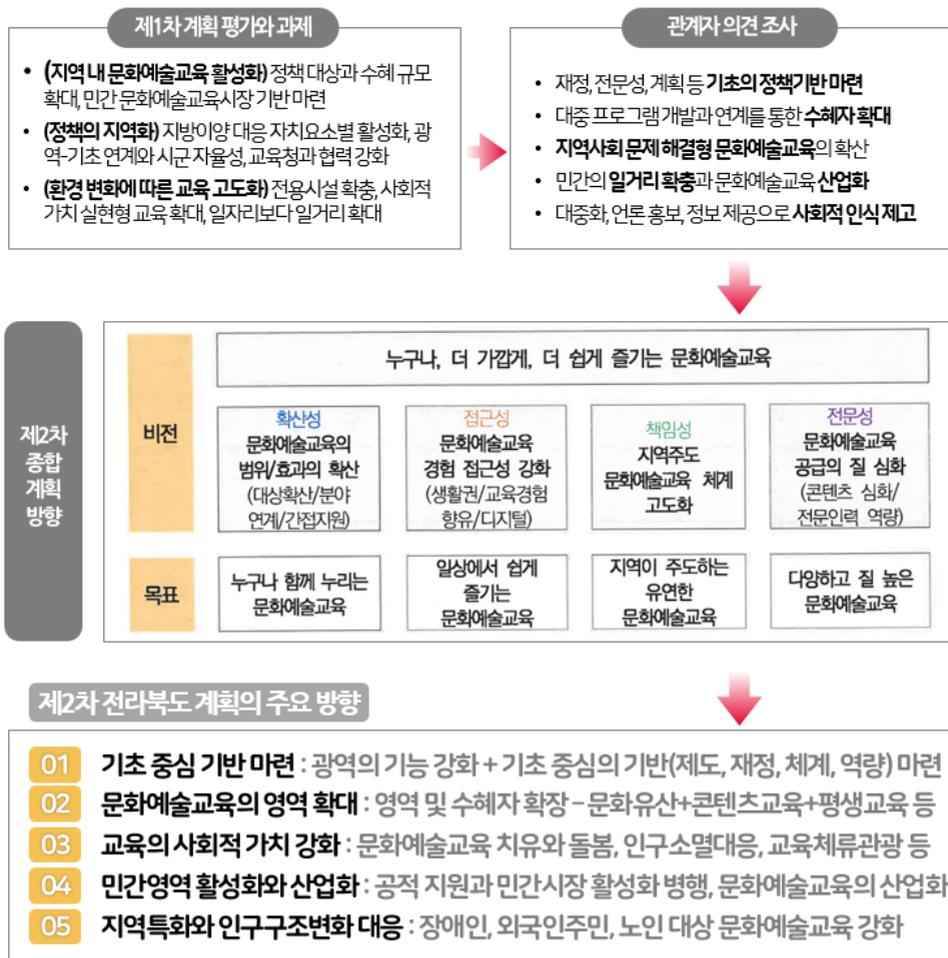
나. 제2차 전북계획의 방향과 비전 체계

1) 제2차 계획의 주요 방향

■ 제1차 전북계획의 평가와 관계자 의견조사 종합

- 제1차 전북계획의 평가와 과제, 의견수렴, 관계자에 대한 텔파이조사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을 종합하여 제2차 전북계획의 주요 방향을 설정함

[그림 3-4] 제2차 전북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 설정



■ 기초 중심의 기반 마련

-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지역화와 관련하여 ‘책임성’을 강조하며 ‘지역주도 문화예술교육 체계 고도화’를 비전에 담고, 지역이 주도하는 유연한 문화예술교육을 목표로 설정함
- 정부의 지역화(지방이양과 문화자치)에 대응하면서, 제1차 전북계획에서 광역의 정책 기반 마련을 강조하였다면 제2차 전북계획에서는 광역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기초(시군)에 문화예술교육 기반(제도, 재정, 체계, 역량)이 마련되도록 사업을 집중함

■ 정책영역과 수혜자 확대

-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더 많은 국민이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하도록 “누구나, 더 쉽게, 더 가깝게”라는 개념을 비전에 담음
- 제1차 전북계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독자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 독자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였음. 제2차 전북계획에서는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고, 문화예술교육의 가치가 다른 분야로 확산하도록 정책영역을 넓히고 수혜자를 확대하는 데 집중함
- 국민문화활동실태조사(문체부)에서도 나타났듯이, 3.5%(2021년 기준)에 불과한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을 높여야 함과 동시에, 이를 실현할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함(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프로그램 수준 제고가 36.9%로 1위)
-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었으나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문화유산교육,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연계가 가능한 평생교육, 문화예술교육으로 고도화가 가능한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의 교육·체험, 현대사회에서 더 강조되는 디지털 및 콘텐츠 관련 교육, 기타 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 등을 제2차 전북계획의 대상으로 설정함

■ 교육의 사회적 가치 강화

- 전라북도 민선 8기 도정 방향인 산업화를 문화예술교육에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매

개가 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발굴함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각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 문화예술교육 치유, 문화예술교육 돌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관광 활성화, 인구소멸 대응, ESG 대응 문화예술교육 등이 대상임
-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형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전라북도가 여러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실효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한 시설과 기관에 보급함

■ 민간 영역 활성화와 산업화

- 전라북도 민선 8기 도정에서는 협치를 강조함.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유연과 자율이라는 원칙을 강조함
-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대부분 공적 지원에 의존함. 또한 민간의 다양한 예술교육(예, 학원과 온라인의 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음. 공적 지원으로 구축된 문화예술교육의 고유한 가치가 시장에 적용되는 방안이 필요함
- 시장으로의 접근과 산업화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일거리 창출이자, 민간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전략임. 특히 이러한 계획 방향(일거리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의 산업화)은 민선 8기 전북도정의 핵심 방향과 무관하지 않음

■ 장애인, 외국인주민, 노인

- 국정과제(장애예술 진흥)와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외국인주민 증가)에 대응하여 제2차 전북계획의 특화 대상으로서 장애인, 외국인주민, 노인을 선정함
- 더 많은 대상이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대상별 관련 기관·시설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평생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각 지원 공모사업에 각 분야의 단체가 상호 참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함

2) 제2차 계획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기초 중심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다른 분야와 협력, 민간영역 활성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관심 제고 등으로 더 많은 도민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비전에 담음
- 제2차 전복계획의 비전은 “더 많은 도민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자치 실현”으로 설정함

주요 개념	주요 내용
더 많은 도민과 함께	· 민선 8기 전북도정의 비전 ‘함께 혁신, 함께 행복, 새로운 전북’의 핵심 방향을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를 주요 개념으로 설정 · 제2차 종합계획의 비전인 ‘누구나, 더 가깝게, 더 쉽게 즐기는 문화예술교육’을 반영하여 교육의 확장성, 접근성을 ‘더 많은 도민과 함께’에 담아냄
문화예술교육 자치 실현	· 제2차 종합계획의 가치인 책임성, 전문성을 준용하여 광역과 기초 연계형 지역화와 더불어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자치’라는 개념에 담아냄 · 제1차 전복계획에서 광역의 자치기반을 마련하였다면, 제2차 계획에서는 기초의 자치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담음

■ 목표

- 첫 번째 목표는 자치라는 비전과 연계된 ‘지역화 기반 강화’임. 정량적 목표는 14개 시군별로 기초거점 또는 기초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거점 체계 구축임
- 두 번째 목표는 더 많은 도민이 더 좋은 교육을 누리도록 ‘참여 확대와 고도화’로 정함. 정량적 목표는 지난 1년 동안의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을 2021년 기준(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3.5%에서 2027년 기준 10%(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10.2% 수준까지 회복한다는 목표, 2021년 기준의 2.86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설정함
- 세 번째 목표는 특화목표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임. 사회적 가치는 포괄적 의미로, 협의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정치적 가치 등을 포괄함. 정량적 목표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중에서 사회적 기능 관련 사업의 전체 사업 대비 비중으로 설정하고, 연간 지원되는 90여 개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사업 비중이 최소 15% 이상(시군별 최소 1개 이상의 사업을 시행한다는 가정)을 목표치로 설정함

3) 제2차 계획의 지원 전략

■ 지역화 기반 강화의 전략

- ‘지역화 기반 강화’ 목표와 관련한 전략으로 자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함. 구체적으로 기초 중심의 기반 마련, 안정적 재정 확보, 공급기반 확충과 강화를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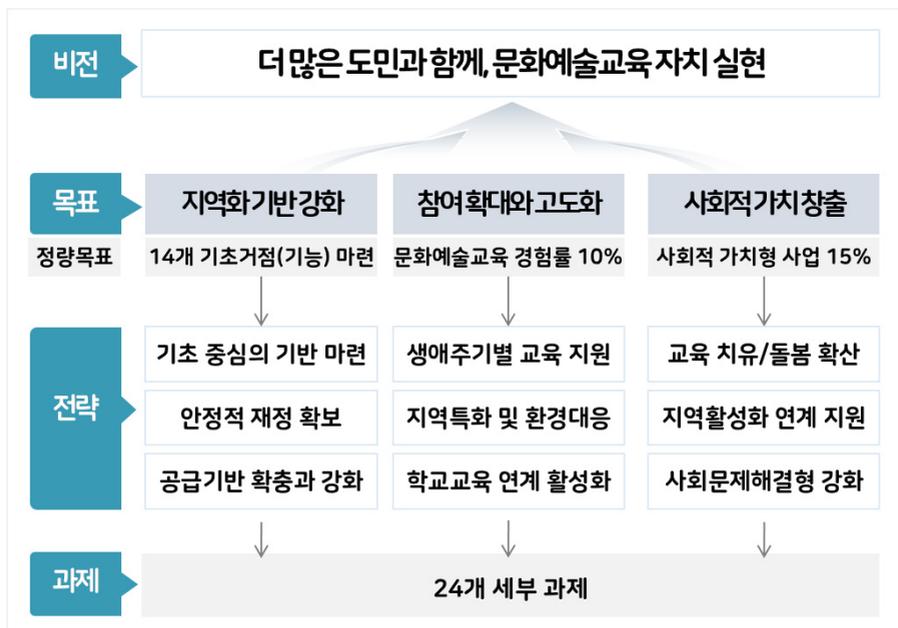
■ 참여 확대와 고도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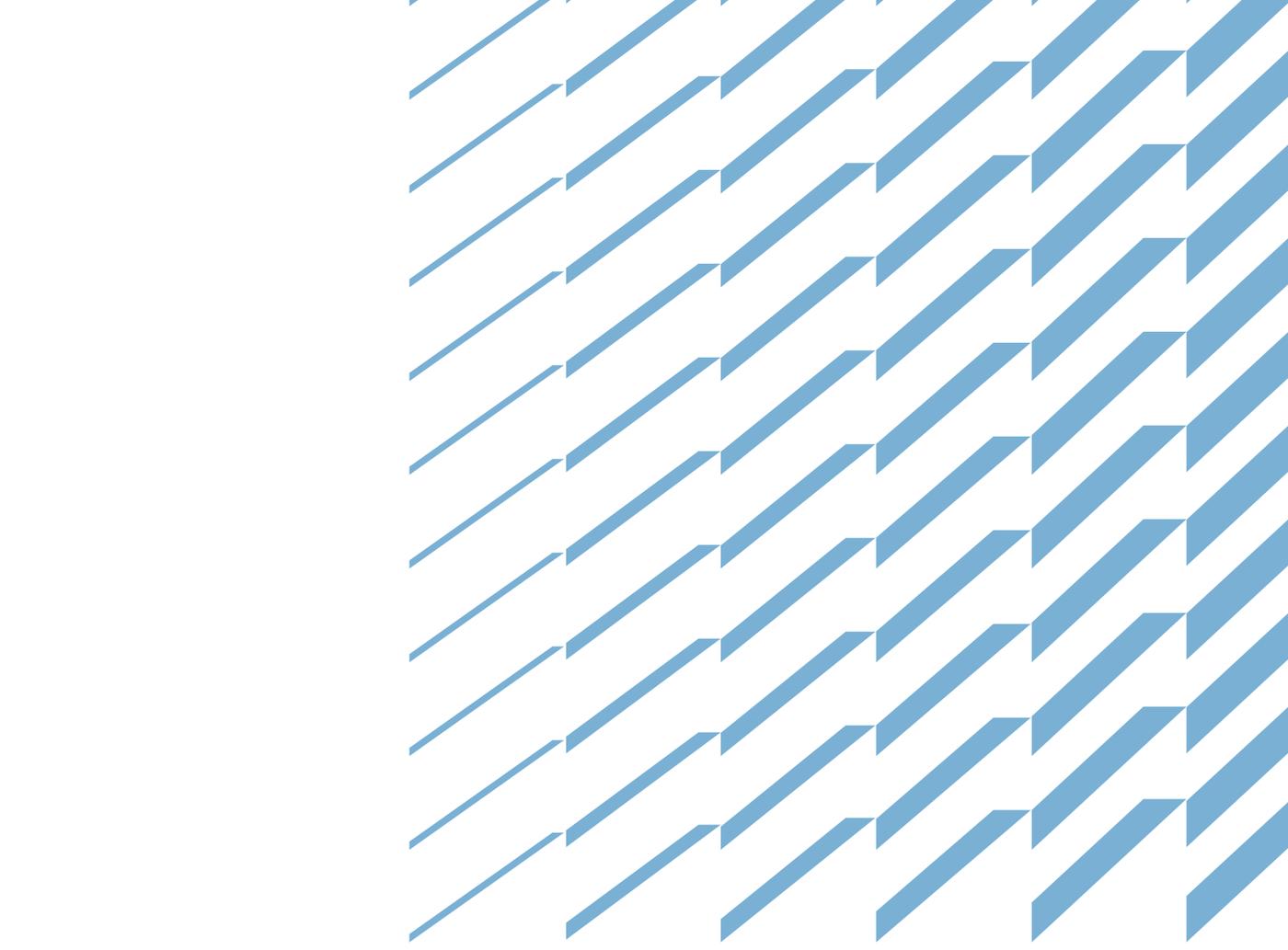
- ‘지역특화 활성화’ 목표는 더 많은 도민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도록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지역특화 및 환경 대응, 학교교육 연계 활성화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함

■ 사회적 가치 창출의 전략

-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한 전략으로 제2차 계획의 특화 분야로 문화예술교육 치유·돌봄의 확산, 관광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 연계지원, 사회문제 해결형 강화를 설정함

[그림 3-5] 제2차 전복계획의 비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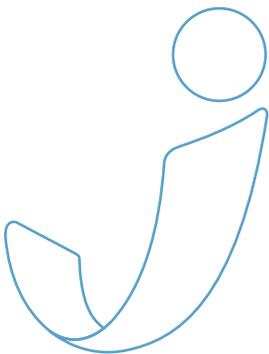




제4장

문화예술교육 지원과제

1. 지역화 기반 강화
2. 참여 확대와 고도화
3. 사회적 가치 창출



제 4 장 문화예술교육 지원과제

1. 지역화 기반 강화

가. 기초 중심의 기반 마련

1-가-1.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개정

■ 사업목적

- 제1차 전북계획에서 조례 관련 목표는 전라북도과 3개 시군 조례제정임. 계획기간에 전라북도 및 전주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다른 시군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 기초거점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시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

[표 4-1] 전라북도 내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정 현황 (2022년 9월 기준)

지역	조례명	제정연도	주요 내용
전라북도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년	· 5개년 교육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 도지원협의회 설치 · 도지원센터 지정 및 역할
전주시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0년	· 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육 지원

- 전라북도 조례에서는 법정계획 수립과 도 지원협의회 설치, 도지원센터 지정에 따른 지원을 의무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하지만 재정, 역량, 체계 등 지역화에 필요한 기반 관련 조항이 없거나 권고조항이라는 한계를 가짐
- 전주시 조례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기타 사업 지원을 권고조항에 머물. 기초지원센터 설치와 지원, 재정 확보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 제2차 전북계획에서는 조례가 없는 시군에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지역화 기반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도록 개정을 유도함
- 계획기간 내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시군구는 9개인데, 전북에서는 전주시만 2020년에 제정됨

시군구 조례 현황	· 충남 홍성군(2021.12), 경기 수원시(2021.09), 경기 고양시(2021.06), 전남 신안군(2021.03), 경남 진주시(2020.12), 전북 전주시(2020.11), 부산 중구(2020.10), 경남 김해시(2020.07), 인천 서구(2020.05), 경남 창원시(2017.09), 전남 목포시(2017.04), 경기 성남시(2016.06), 경기 구리시(2019), 경기 광명시(2016.12), 강원 춘천시(2018.11)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
- 사업내용
 - 시군 조례의 제정 유도
 - 기초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표준안 마련
 - 전라북도 및 시군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의 개정
- 사업예산 : 비예산

■ 사업의 세부내용

- 문화예술교육 조례의 필요성 홍보와 시군 조례의 제정 유도
 - 14개 시군 전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군과 시의회를 대상으로 제정 참여를 독려
 - 문체부의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사업 지역(완주군, 장수군)과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협의. 다른 지역에 관해서는 조례의 필요성을 홍보
- 다른 지역 사례를 참조하여 전라북도 시군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표준안 마련
 - (조례 포함 내용) 시군 지원센터 설립 및 위탁운영 및 지원 조항,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

정계획(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민간 협력체계 구축, 전용공간 조성 등

[표 4-2] 전라북도 시군 조례의 주요 조항 예시

주요 조항	주요 내용	참고 조례
시군 지원센터 운영	· 지원센터 설립, 운영, 지원 의무화 · 지원센터의 세부업무 구체적 명시	· 구리, 춘천, 광명, 창원, 성남 · 구리, 춘천, 고양, 신안, 김해, 목포
문화예술교육 지원	· 지원센터 지원, 특성화 콘텐츠 개발, 시설과 프로그램 등 구체화	· 조례 대부분 포함
법정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 수립	· 홍성군
민간 협력체계 구축	· 시군지원협의회, 실무위원회 설치	· 전주시

○ 전라북도의 시군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조례제정 여부를 반영

-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라북도 공모사업, 또는 계획계약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시군으로 포괄 보조하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선정) 기준에 시군 조례제정 여부를 반영

○ 전라북도 조례를 개정하고, 전주시 조례의 개정을 유도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지역화에 대응하는 핵심 기반으로 재정 확보, 전용공간 조성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시군의 자율적 운영에 따른 지원, 평생학습과 생활문화 영역과의 공동사업, 민간 영역의 육성과 활성화, 실태조사를 비롯한 정보 구축 등이 반영되도록 개정을 추진
- 다른 지역 조례를 참조하여 전주시 조례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내용(지원센터 설립·지원, 계획(5개년/시행)수립 등)을 전주시에 제안하여 조례가 개정되도록 유도

■ 참고자료

○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주요 조항

지역	주요 조항
구리시	<p>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사업 참가자의 창작활동 지원 2. 기념품, 상품권 등의 경품을 활용한 지원센터 사업 홍보 3.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4.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지원 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6조(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둔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p> <p>제7조(지원센터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홍성군	<p>제4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목표 및 기본방향 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자원 4.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연계·협조사항 및 전문 인력 양성 5.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1-가-2. 시군별 문화예술교육 정책 정립과 시군계획 수립 활성화

■ 사업목적

- 기초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하려고 해도 시군에 관련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문화예술교육이 시군 문화정책의 주요 업무로 설정되고 관련 담당자가 지정되도록 전라북도 차원에서 환경을 만들어야 함
- 관련 업무 설정과 담당자 지정과 더불어, 시군의 자체 계획이 필요함. 문화예술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북도는 계획기간 1년 차에 수립한 계획을 문체부장관에 제출하지만, 법에는 시군계획을 반영하여 전복계획을 수립하거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상위 기관에 제출하는 조항이 없어 시군에서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표 4-3] 「문화예술교육법 시행령」의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관련 조항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별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광역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까지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함

[표 4-4] 「문화예술교육법 시행령」 중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시군구 관련 조항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② 시도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법 개정과 무관하게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을 추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
- 사업내용
 - 시군별 문화예술교육 업무 설정과 담당 부서장 회의 개최
 - 시군별 계획 수립 의무화 조항 시설에 관한 법 개정 요구
 - 시군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전라북도에서 권고 및 행정적 지원
 - 시군별 수립 계획의 제출과 연차별 이행 점검
- 사업예산 : 비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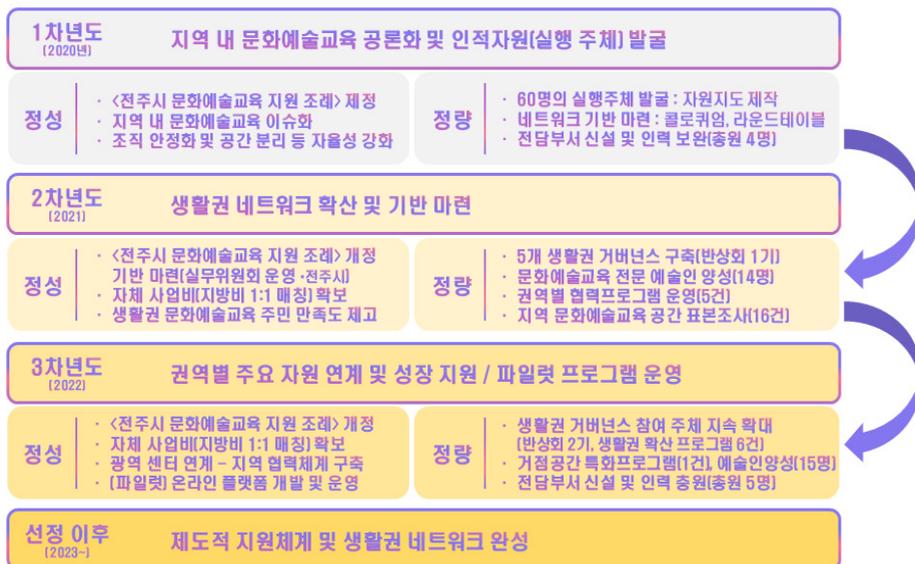
■ 사업의 세부내용

- 시군별 담당 업무 설정과 담당자 지정 및 담당부서장 회의 개최
 - 시군별 문화 관련 업무에 문화예술교육 업무를 설정하는 것과 담당부서와 담당 직원을 지정하도록 요청
 - 시군별 담당부서장이 참석하는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정책회의(도 과장 주재, 시군별 담당과장 또는 팀장 참석)를 개최(문체부가 주관하는 시도 국장단 회의 형식) :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주요 내용,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설명과 협력 요청, 시군별 문화예술교육계획과 세부 사업 관련 협력방안 논의 등
-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문체부에 요청
 - 시도 문화국장단회의, 문체부-시도 문화예술교육협의체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요청
- 시군별 계획수립 관련 행정적 지원
 - 시군별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수요조사 후 희망 시군에 계획수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정보 제공, 계획 수립에 따른 컨설팅 지원 등
- 시군에 도 계획 준용하도록 정보 제공, 시군 수립 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요청
 - 계획에 담긴 세부 내용과 함께 전복계획을 발표한 해 12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 마련

- 전복계획을 준용하되, 법에서 정한 계획 항목 등과 달리 시군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
- 시군별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대한 연차별 이행을 점검
 - 전라북도에서 이행 점검표를 제작하여 시군 사업의 이행을 점검한 뒤, 이를 전라북도협의회에 보고
- 계획기간 마지막 해(2027년)에 시군 계획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성과 분석에 반영

■ 참고자료

-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조성 사업계획



1-가-3.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 사업목적

- 문체부가 기초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1차 종합계획(2017~2022)에 포함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됨

· 국정과제: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운영
 · 과제내용: 2023년부터 매년 기초거점 10개소씩 지원 확대(2025년 50개소)

- 문화예술교육 거점조성사업은 기초 단위의 지역화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함.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완주군, 장수군이 사업에 선정되어 거점을 조성함

[표 4-5] 문체부의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2022년) 개요

사업목적	· 지역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풀뿌리' 문화예술교육 협력거점 조성으로 지역 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
지원대상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한 기초단위(사군구) 기관 및 단체
지원규모	· 총 27개소 내외 - (2·3년차 지원) 15개소 - (신규 지원) 12개소 내외(예정)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지역역할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거점 주체)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계획(로드맵) 수립,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실행(기초조사, 워킹그룹 운영, 공문화 등 지역 내 논의구조 구성운영, 협의체 운영 등) · (기초지자체) 지원 주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적극적 행정 지원(협의문서 작성, 공간 지원, 지방비 매칭 등)
사업절차	· 계획 수립→사업 공모(5~6월), 심사(6~7월)→사업추진(7~12월), 결과물 제출 및 평가(12월)
지원예산	· 거점 주체별 평균 50백만원 내외 (국비 100%)

- 2025년까지 50개소를 조성하는 국정과제에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라북도 내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이 조성되도록 노력함
- 또한 기존 기초거점을 조성하고 국비 지원이 끝난 지역에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기존 거점과 신규 거점이 연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지원센터
- 사업내용
 - 신규 기초거점 조성사업 추진 (문체부 공모사업 대응)
 - 기존 기초거점의 활성화와 신규 거점과의 연계사업 지원
- 사업예산 : 480백만원 (국비 300, 도비 90, 시군비 90)
 - 문체부 지정(공모) 지역별 연 50백만원(국비), 시군 간 연계사업 연 60백만원(3개소×개소당 20)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480			210	160	110
국비	300			150	100	50
도비	90			30	30	30
시군비	90			30	30	30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국정과제 대응, 모두 7개 지역(전라북도 시군의 50%)에 기초거점을 조성
 - 2022년 기준 기초거점 조성 3개 지역(전주, 완주, 장수)을 포함하여 국정과제 수행 3개년 동안 최대 4개 지역에 기초거점 조성사업을 추진(공모를 통한 지정)
 - 시군별 기초거점 조성계획 수립 시 전라북도에서 계획서 작성 관련 컨설팅을 제공 : 시군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관련 전문가를 통한 통합컨설팅 진행(컨설팅 희망 지역에 대하여 지원)
- 기존 기초거점 지역 중심의 활성화 사업 지원과 신규 기초거점 연계 공동사업 지원
 - 기존 지정된 기초거점과 새롭게 지정된 신규 거점 간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마중물 지원

■ 참고자료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의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필요성과 목적	· 해당 지역의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필요성 및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분석 필수 포함)
사업계획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의 내용만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떠한 조사를 거쳐서, 지역 내 주체 누구와 무슨 과정을 통해, 어떠한 내용이 도출되었는지 전체적인 과정 제시
협업체 운영계획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논의·협력·실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지역내 협력 주체가 형성되어 있는지, 지역자원 및 주체간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거쳐 거버넌스를 형성했는지 서술
시범사업 운영계획	· 통상적인 문화예술교육 체험 방식 외에도 지역현황 및 수요를 활용한 워크숍, 랩(LAB)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시도(개발·운영체계)에 대해 서술
공간 활용계획	· 거점의 역할과 성격에 따라 필요한 공간의 형태가 다를 수 있음을 염두, 활동을 위한 공간 혹은 사무/행정을 위한 공간 등,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활용/제공 계획 포함
예산 집행계획	· '핵심기능' 및 '세부 추진내용'에 근거하여, 항목별 예상되는 소요예산계획 작성

1-가-4. 문화예술교육 통계·정보체계 구축과 지수화

■ 사업목적

-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고도화하려면 신뢰 있는 통계 기반의 증거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함.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영역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는데도 관련 통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특히 조사·분석·활용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이 개발되기 어려움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통계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되 광역 중심의 통계와 정보에서 기초 중심의 통계와 정보를 구축하고, 정보와 통계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용되도록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
- 제1차 전북계획을 통해 구축된 통계 체계, 시군별 기초거점 사업으로 추진된 자원지도, 시군별 실태조사, 수요-공급 매개 체계 등을 종합하여 전라북도에서 문화예술교육 통합 통계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연차별 성과를 검토하는 지수를 개발하여 측정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지원센터
 - (도 문화산업과) 행정통계 자료 수집
 - (도 지원센터) 전북 문화예술교육 통계 체계 구축과 관리, 지수화 등 정부 계획에 따른 대응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행정·조사통계 구축과 활용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통합과 활용도 제고
 - 문화예술교육 관련 수요-공급 정보체계 구축과 활성화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수 개발과 분석 (정부 계획에 따른 대응)

○ 사업예산 : 180백만원 (도비 180)

- 통계 구축과 문화예술교육 지수 분석 연구용역 100백만원(연 20백만원×5년),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통합 자원지도 개발 및 활성화 50백만원, 수요-공급 매개시스템 활성화(플랫폼 구축 등) 50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180	20	60	60	20	20
국비						
도비	180	20	60	60	20	20
시군비						
기타						

■ 세부 사업내용

○ 연차별 문화예술교육 행정통계와 조사통계 구축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북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연말에 행정통계를 생산하고, 공공문화시설 및 비문화시설(예,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 등의 실태를 조사
- 연말에 통계를 생산하여 이듬해 연초에 전라북도 연차별 문화예술교육 통계 결과를 공개
- 2019년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화한 전라북도 문화예술통계 지표를 활용(참고자료 참조)

○ 시군별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제작과 통합지도 개발

- 기초거점 조성사업을 진행한 지역에서 자원지도를 제작함. 이를 연계하여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자원DB를 구축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수요-공급 매개 시스템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 단체별 프로그램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주요 기관·시설·단체 등에 제공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대표지표 개발 및 지수화 추진 (정부 계획에 따른 대응)

- 전라북도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를 설정하고, 연차별로 조사하여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수화를 추진
- 연차별 지수 결과를 기준으로 연차별 문화예술교육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결과를 파악하여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에 반영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

- (지수 개발 관련 예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3년마다 조사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 방식을 준용. 정책기반, 교육자원, 교육활동, 교육성과 등을 구분(대분류)하여 세부 지표를 설정한 뒤 기준점(예, 2023년, 계획기간 1년 차)을 정해 연차별로 조사하여 비교 분석

[표 4-6]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수화 관련 실태조사 지표 예시

대분류	지표명	자료출처
정책 기반	·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 제정 건수	지자체
	·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라북도 및 시군의 자체 사업 수	지자체
	· 전체예산 대비 문화예술교육예산 비율(또는 예산증감률)	지자체
	
교육 자원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 수	도/시군 지원센터
	· 연간 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 수	도/시군 지원센터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수 (또는 전체 면적)	지자체
	
교육 활동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	도/시군 지원센터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수	도/시군 지원센터
	· 평생교육 및 생활문화 연계 프로그램 수	도/시군 지원센터
	
교육 성과	·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도/시군 지원센터
	·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예술교육 의향률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
	

■ 참고자료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통계 생산 방법(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19 참조)
- 행정통계 : 전북지원센터에서 총괄하여 작성(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지원사업 중심)

[표 4-7] 교육지원센터 진행사업의 통계생산 주체 및 방법

지표명	통계 생산 주체 및 통계생산 방법
단위사업별 프로그램 수	· 행정통계 · 교육지원센터 집계
참여 예술 강사의 수	· 행정통계 · 교육지원센터 집계(진흥원 협력)
참여 예술 강사의 특성	· 행정통계 · 교육지원센터 집계(진흥원 협력)
참여 교육단체 및 운영기관의 수	· 행정통계 · 교육지원센터 집계(진흥원 협력)
참여 교육단체 및 운영기관의 특성	· 행정통계 · 교육지원센터 집계(진흥원 협력)
교육참여 인력의 수	· 행정통계 · 교육지원센터 집계(진흥원 협력)
교육참여 인력의 특성	· 행정통계 · 교육지원센터 집계(진흥원 협력)
교육참여 시설의 수 및 비율	· 행정통계 · 교육지원센터 집계(진흥원 협력) · 참여교육 가능시설 수는 시설별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예를 들어 노인복지관 수를 의미함. 비율 작성을 위한 것임)
교육참여자 수 및 참여비율	· 행정통계 · 교육지원센터 집계(진흥원 협력) · 참여 가능자 수는 각종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예를 들어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참여가능자인 유아인구 수를 의미함. 비율 작성을 위한 것임)
단위사업별 참여자 특성	· 행정통계 및 조사통계 · 행정통계: 교육지원센터 집계(예를 들어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시설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작성하거나, 교육주체가 작성할 수 있음) · 조사통계: 교육지원센터에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때 파악함
단위사업별 참여 만족도	· 조사통계: 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 교육지원센터 조사(진흥원 협력)
단위사업별 예산	· 행정통계 · 교육지원센터 집계(진흥원 협력)

- 조사통계: 전북지원센터에서 총괄,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통계(사회문화예술교육 중심의 통계구축)

[표 4-8] 공공 문화기관 및 공공 비문화기관 진행사업의 통계생산 주체 및 방법

지표명	통계 생산 주체 및 통계생산 방법
문화예술교육 기관[시설]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통계 및 조사통계 · 행정통계: 공공문화기관은 「문화기반시설 총람」 참조, 평생기관 및 비문화공공기관은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참조하여 교육지원센터 작성 · 조사통계: 교육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공공문화기관에 한정될 것으로 보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 및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통계 및 조사통계 · 행정통계: 공공문화기관은 「문화기반시설 총람」 참조, 평생기관 및 비문화공공기관은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참조하여 교육지원센터 작성 · 조사통계: 교육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공공문화기관에 한정될 것으로 보임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통계 · 교육지원센터가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북도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음
기관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통계 · 교육지원센터가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북도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음
기관별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통계 · 교육지원센터가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북도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음
기관별 문화예술교육 참여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통계 · 교육지원센터가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북도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아동 문화예술 교육 참여율 및 지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통계 · 교육지원센터가 별도의 조사 실시

나. 안정적 재정 확보

1-나-1. 문화예술교육 재정목표 설정

■ 사업목적

- 지역문화진흥계획에서는 전체예산 대비 지역문화 분야의 목표를 설정하나, 문화예술교육계획에서는 재정의 중요성만 강조될 뿐 목표 재정 비율을 따로 설정하지 않음

[표 4-9]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문화재정 목표 설정 계획

· 계획기간 내 달성해야할 전라북도 지역문화재정 목표를 설정			
· 전라북도 문화재정(문화예술 분야) 목표(전체 예산 대비 비율) : 전국 지자체 평균(1.6%, 2019년)을			
* 참조하여 2차 기본계획 목표(1.8%, 2024년)를 도 계획에 적용**			
* 지방예산 대비 문화 분야 비율(전국 평균): 1.4%(2015)→1.6%(2017)→1.6%(2019)			
**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기본계획 목표 : 2019년 1.6%→2024년 1.8%			
· 2024년 기준, 전체 예산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 목표: 1.8%(2019년 대비 0.6%p 증가)			
구분	2019년 기준	2024년 기준	비고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재정 비율(억원)	1.2%(743억원)	1.8%(1,407억원)	0.6%p ↑ (664억원)
* 주 : 전라북도 중기재정계획(2020~2024) 기준, 2024년 전체 일반회계 78,163억원 추정			

- 문화예술교육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도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목표 재정을 확보하려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전체예산 대비 재정 확보 목표를 설정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과, 도립미술관, 도립국악원 등
- 사업내용
 -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세출예산 대비 문화예술교육 예산 목표를 설정
 - 목표 재정 달성 관련 연차별 이행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 사업의 세부내용

○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 대비 문화예술교육 예산 비율의 목표치 설정

- 2022년 전라북도 전체 예산(안) 중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사업(복합시설 건립 제외, 일회성 체험 교육 제외)은 15개이며, 사업예산은 4,887,350천 원임. 이 예산은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예산 (371,885,763천원) 대비 약 1.3%임
- 전북지원센터를 비롯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2018년 2,751,000천원에서 2022년 2,891,960천 원으로 140,960천원이 증가함. 전북문화관광재단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교육 예산 비율은 2022년 기준 8.89%로, 2018년 기준 12.6%보다 3.71%가 감소함

[표 4-10] 전라북도-전북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예산

구분	2018년 예산(천원) (전체예산대비 비율)	2022년 예산(천원)	비교증감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도립국악원, 도립미술관)	4,779,590	4,887,350 (1.3%)	107,760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751,000 (12.6%)	2,891,960 (8.89%)	140,960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재정 목표 설정(안) : 2027년 기준, 전체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 대비 2%

구분	2022년 기준	2027년 기준	비고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예산 대비 문화예술교육 재정 비율	1.3%	2%	0.7%p ↑

* 주 :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문화재정 목표(0.6%p 증액)를 적용

○ 재정목표 달성과 실행계획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대응 조치를 마련

- 매해 목표 대비 달성도를 관리
- (연차별 목표 안) 2023년 1.4%, 2024년 1.5%, 2025년 1.7%, 2026년 1.9%, 2024년 2.0%

■ 참고자료

○ 재정 목표 설정 사례 : 지역문화진흥계획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재정 목표 : 문화예술 재정 비율, 2019년 1.6%→ 2024년 1.8%

[표 4-11]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재정 관련 목표 설정 사례

비전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가치· 목표	자 치	포 용	혁 신
	내가 만드는 지역문화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사회를 혁신하는 지역문화
	◆ 지자체 문화예술 재정 비율 증대 ('19년 1.6% → '24년 1.8%)		
	◆ 지역규모별 문화향유 격차감소 ('19년 12.7%p → '24년 10%p)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계획의 문화재정 확보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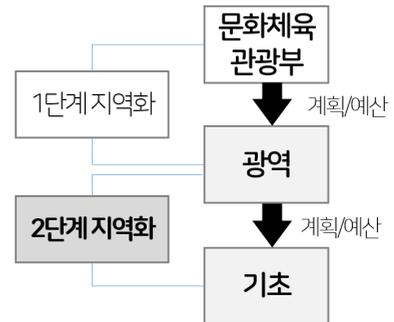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문화재정 확보 목표를 설정
- 제1차 종합계획(2014~2018)에서는 2018년 경기도 예산 대비 문화재정 3% 확충을 목표로 2014년 기준 문화재정 1.54%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충(1.54%→2.0%→2.4%→2.7%→3.0%) 방안을 제시. 2차 종합계획(2020~2024)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2019년 경기도 예산 대비 문화재정 1.87%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충(1.87%→2.0%→2.4%→2.7%→3.0%) 방안 제시(경기도, 2020 참조)

1-나-2. 도 직접 수행 공모사업의 시군별 통합 지원과 매칭 통한 재정 확보

■ 사업목적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기반은 지역 스스로 정책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량과 더불어 이를 실현하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함
- 문체부는 계획과 예산을 시도에 이양하였으므로, 전라북도에서도 자치역량을 갖춘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기획과 재정을 이양하여 시군 스스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유도함

[그림 4-1] 지역화의 단계



- 문화도시 조성사업처럼,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던 단위 사업을 묶어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운영 예산을 함께 시군에 통합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함
 - (사례: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적 도시발전을 목표로 문화적 사람, 문화적 시설, 문화적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이를 실행할 운영 예산을 포괄하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지원센터
 - (도 문화산업과) 시군 수요 파악과 시군비 매칭 협약
 - (도 지원센터) 시군별 계획 심의, 이행점검, 컨설팅 지원
- 사업내용
 - 도 직접 수행 공모(민간단체) 사업에 대해 희망하는 시군별 포괄 지원



○ 사업예산 : 5,000백만 원 (도비 2,500, 시군비 2,500)

- 1개 시군별 운영 및 사업예산(센터 기능, 지원 사업 등) 200백만 원(도비 100, 시군비 100) × 7개 지역(기초거점 조성사업 시군 및 문화재단 설립 시군) = 연간 최대 1,400백만 원

* 단계별 지원대상 시군 확대 : 2024년 5개소(기초거점 3개 시군, 문화재단 설립 지역 2개 시군), 2025년 6개소, 2026~2027년 7개소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5000		1000	1200	1400	1400
국비						
도비	2500		500	600	700	700
시군비	2500		500	600	700	700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공모사업 중 일정 비율을 희망 시군에 통합 지원하는 세부 지침 마련과 수요 조사

- 전라북도 차원에서 시군의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하는 시군에 대하여 시군비 매칭에 대하여 협약

○ 도 지원센터-기초 거점 간 시군 문화예술교육 특성화사업 추진 협약과 통합 지원

-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지역 여건에 부합되면서 지역의 특성화 전략을 담은 시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확정된 시군 계획에 대하여 2년 단위로 통합 지원 협약을 체결

- 협약된 계획에 따른 시군별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을 통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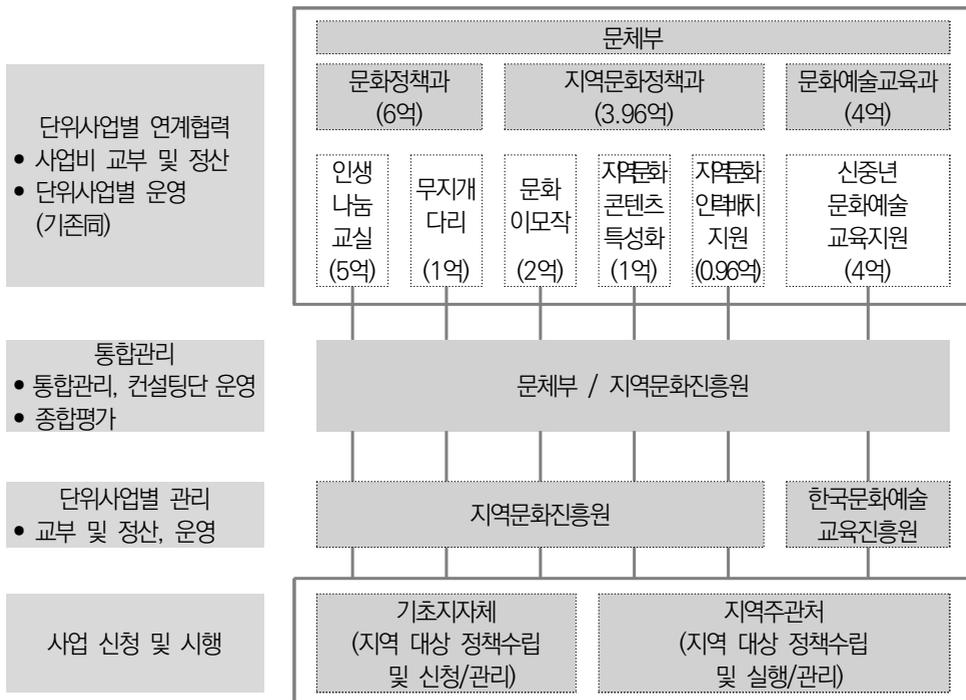
○ 시군별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과 컨설팅 지원

- 시군별로 계획에 따라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시군 추진 세부 사업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 참고자료

○ 문체부의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지원 사업 사례

[그림 4-2] 2020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운영 사업 추진체계



1-나-3. 민간단체의 자율적 유료 프로그램 확대와 자립 강화

■ 사업목적

- 민간 예술교육 시장에서는 상당한 수강료를 지급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라는 인식이 강함. 무료라는 인식이 교육프로그램·콘텐츠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재정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함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콘텐츠를 적절한 금액으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환되어야 함
- 전용시설을 활용하여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유료 문화예술교육 콘텐츠·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민간단체가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립을 강화하도록 유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도지원센터, 문화유산과, 도립미술관, 도립국악원 등
 - (도 문화산업과) 유료 교육프로그램 현황 파악 및 통계 구축, 활성화 협력방안 추진
 - (도 지원센터) 민간단체 등과의 유료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 사업예산 : 비예산 사업

■ 사업의 세부내용

- 문화예술교육 관련 세외수입 확장 방안 마련
 - 기존 사업을 분석하여 유료화 가능 콘텐츠·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유료화 전환 방안을 구상
- 기존 세외수입 외 문화예술교육 세외수입항목 설정 및 확대

- 문화체육관광국 세외수입 중 교육 관련 세외수입은 국악연수 수강료와 교재 판매대금(총 62 백만원)
- 전북도립국악원(국악원 신축에 따라 2025년부터 유료화), 전북도립미술관, 전북대표도서관 등 전라북도 지역 문화시설 내 유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군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내 유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
- 우수 유료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이후 민간단체와 공동 사업화 구상
 - (사업 예시) 전용시설 등에서 공적 지원으로 개발된 유료 교육프로그램·콘텐츠를 민간단체가 위탁 운영하도록 협약을 체결,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을 정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

■ 참고자료

- 전라북도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현황 중 ‘임대 및 교육 관련 수입’

구분		2022년 예산(안)	
210 경상적 세외수입		123,699천원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5,035천원	
	<도립미술관>	15,035천원	
	◦아트샵 임대료	6,248천원	
	◦카페테리아 임대료	8,787천원	
	212-08 기타사용료 수입	48,664천원	
	<도립미술관>	48,664천원	
	◦강당 대관료	4,210천원	
	◦서울관 대관료	44,454천원	
	213-05 기타수수료	60,000천원	
	<도립국악원>	60,000천원	
	◦국악연수 수강료	60,000천원	
		224-07 그 외 수입	22,000천원
<도립국악원>		22,000천원	
◦외부공연 출연료		20,000천원	
◦교재 판매대금		2,000천원	

다. 문화예술교육 공급기반 확충 및 강화

1-다-1. 문화기반·생활문화 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사업목적

- 독자적인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되고, 특히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과 단체 등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
- 기존 추진되던 문예회관 내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고도화되도록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활성화 지원체계를 마련. 또한 생활문화 시설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 자원(인력, 프로그램)이 활용되도록 분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지원센터, 도립미술관
 - (도 문화산업과) 공공도서관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회관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 (도 지원센터) 문화기반·생활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등
- 사업내용
 - 1공공도서관 1문화예술교육 공동 진행
 - 문예회관 내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 지원
 - 생활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자원 활용 지원
 - 전북도립미술관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예산 : 4,850백만원 (국비 3,250, 도비 900, 시군비 700)

- 꿈다락 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한국문예회관연합회) 연 200백만원,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한국문예회관 연합회) 연 150백만원,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한국문예회관연합회) 연 300백만원
- 생활문화시설 대상 프로그램 개발 공모 연 200백만 원(도비 60, 시군비 140)
- 독립미술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120백만 원(도비 120)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4850	970	970	970	970	970
국비	3250	650	650	650	650	650
도비	900	180	180	180	180	180
시군비	700	140	140	140	140	140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1공공도서관 1문화예술교육 공동 진행

- 약 1,000개에 달하는 공공도서관에 최적으로 1개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도서관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공공도서관의 기존 사업과 전라북도 지원센터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도서관별로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공공도서관의 1차 수요를 파악한 후에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공모하여 공공도서관과 매칭하여 주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

○ 문화예술회관 내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꿈다락 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 시군별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시군별 공모 제안서 작성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컨설팅 지원 : 기획 전문가 섭외, 제안서 보완 지원
- 선정된 문예회관 사업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과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가 참여하도록 정보를 제공 : 문화예술교육 인력과 단체의 일거리 확보와 교육프로그램의 질 제고 목적

○ 생활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자원 활용

-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집, 작은도서관, 미디어센터 등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
- 생활문화센터협의회, 작은도서관협의회 등과 도 지원센터와 MOU 체결 : 시설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통계) 교류와 전문인력·시설의 공유,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
 - 생활문화시설·작은도서관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지원 : 기존 공모사업 등을 통해 생활문화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권고(예, 공모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 등)
 - 기존 문화예술교육단체의 활동성과(교육콘텐츠 현황, 프로그램 커리큘럼 등)를 생활문화시설에 제공하여 생활문화시설이 교육 관련 사업 구상 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활용하도록 유도
- 전라도립미술관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북도민(일반인/어린이)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사업규모) 일반인교육 60여회, 어린이교육 20여회, 체험교육 5건 이상(2022년 기준) 운영
 - 일반인에게 이론·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린이에게 전시와 연계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1-다-2. 문화예술교육의 추진체계 내실화

■ 사업목적

- 문화예술교육법에 의거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나,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데 역할이 그쳐 실질적인 활동이 많지 않았음

- 문화예술교육법(제9조)에 의거,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구성 (임기 2년)
- 의결사항 :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

- 문화예술교육단체 협의체, 시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구성, 평생교육·생활문화 분야와의 협력체계 등 추진체계가 (코로나 팬데믹이 영향을 주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전라북도 주도와 몇몇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 한계를 보임
- 법적 추진체계(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비롯하여 민간의 자생적 협의체, 시군 관계자 워킹그룹 등을 구성하고, 기초 및 민간 중심의 추진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도지원센터
 - (도 문화산업과) 전북문화예술교육협의회 운영
 - (도 지원센터) 기초 주도 워킹그룹(실무협의체), 민간협의체 지원
- 사업내용
 -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활성화
 - 기초가 주도하는 워킹그룹(협의체) 구성과 운영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 민간 협의체 구성과 운영 활성화

○ 사업예산 : 2,750백만 원 (국비 1,325, 도비 1,425)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연 530백만 원, 문화예술교육협의회 운영 연 5백만 원, 기초 주도 워킹그룹 운영 연 10백만원, 민간협의체 운영지원 연 5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2750	550	550	550	550	550
국비	1325	265	265	265	265	265
도비	1425	285	285	285	285	285
시군비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된 광역지원센터의 위상 재정립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 제2차 전북계획의 핵심 이행 주체로서 역할 강화, 기초거점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 전체로 문화예술교육 확대 추진, 지원센터 관련 예산 확보의 적극적인 지원 등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활성화

- 제2차 전북계획과 관련한 협의회 구성
 - 실질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계획 심의와 평가 외 주요 지원사업에 심의 진행 : 시군별 포괄보고와 관련한 계획계약의 심의와 지원 결정 등

○ 기초 주도 워킹그룹(협의체) 구성과 운영 활성화

- 14개 시군의 문화예술교육 핵심 주체(기초거점, 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등) 발굴과 이들이 주축이 되는 기초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워킹그룹을 정기적으로 운영 : 시군 문화예술교육 격차 해소 사업 발굴

○ 문화예술교육 민간협의체 구성과 운영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자율적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고, 활성화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2. 참여 확대와 고도화

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2-가-1.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사업목적

- 유아를 비롯하여 유·초·중·고등학생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과 교육목적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이용자가 참여하도록 사업을 지원함
- 유아·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유아원이 참여하되, 지역 내 문화시설이 보유한 고유 콘텐츠를 활용하여 누리과정과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함
-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는 교육 기회를 두텁게 제공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지원센터
- 사업내용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의 확대 운영 및 지역 브랜드화
 - 창의적 문화영재 창의캠프 운영
 - 꿈의 무용단 관련 국가 공모 대응
- 사업예산 : 2,400백만 원 (국비 500, 도비 1,900)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연 200백만원,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연 80백만원, 창의적 문화영재 창의캠프 운영 연 100백만원, 꿈의 무용단 연 100백만원(국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2400	480	480	480	480	480
국비	500	100	100	100	100	100
도비	1900	380	380	380	380	380
시군비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고유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문화기반시설이나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를 선정하고, 이들 기관과 시설이 지역 내 영·유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2021년 기준 : 문화기반시설 3개소 선정, 62개소 영·유아교육기관 운영 - 1,361명

- 영·유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교육콘텐츠에 대한 브랜드화 지원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의 확대 운영과 지역 브랜드화

-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시설 이용 희망 수요와 문화시설의 꿈다락 문화학교 수요를 매칭
- 생활문화 등과 차별화되는 문화예술교육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브랜드화가 가능한 교육콘텐츠(프로그램)를 중심으로 지원 : 시군별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는 단체와 콘텐츠(프로그램) 발굴

○ 창의적 문화영재 키움캠프 운영

- 기초예술을 넘어 과학, 인문학, 사회학, 타 장르 예술분야와 융합한 창의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성장하는 리더 역량을 갖춘 창의문화영재가 발굴·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단체 선정, 통합형 예술캠프 프로그램 연구·개발·운영

○ 꿈의 무용단 공모 대응 및 운영

- 아동·청소년 대상(사회문화적 취약계층 비율 50% 이상)으로 진행
- 국공립무용기관(단체)에서 개발한 무용교육모델을 운영하는 지역기관 선정 공모에 대응하고, 선정 이후 꿈의 무용단 사업을 진행

2-가-2. 청·장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사업목적

- 국민문화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별로 선호하는 교육방식에서 20대에서는 사설학원 및 강습소가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30대 이상은 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그림 4-3] 문화예술교육의 선호 방식 (2021 국민문화활동실태조사 참조)

구분	표본수	공공기관	사설학원, 강습소	개인 레슨, 아는 사람에게서	사실단체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	인터넷 사이트	대학교 부설 사회 문화 교실	동호인 모임 등에서	교육방송	기타	
전체	425	32.3	21.8	11.0	10.3	10.3	6.2	5.8	1.8	0.4	
성별	남성	154	28.3	22.4	13.6	10.2	10.8	2.3	10.5	1.5	0.4
	여성	271	34.6	21.4	9.6	10.4	10.0	8.5	3.1	2.0	0.3
연령	15-19세	56	16.6	45.5	17.6	3.0	6.2	3.4	4.9	2.8	-
	20대	89	14.2	29.9	17.6	14.2	8.3	10.7	5.3	-	-
	30대	76	31.5	10.9	6.9	9.1	17.5	14.7	6.1	2.0	1.2
	40대	73	39.1	13.6	11.9	16.4	10.3	3.0	5.0	0.7	-
	50대	54	39.9	28.8	6.3	5.8	15.1	-	3.1	-	1.0
	60대	48	52.7	4.4	7.2	10.0	6.9	1.9	12.6	4.3	-
	70세 이상	29	65.1	11.7	-	11.4	-	-	3.3	8.5	-

- 연령대별 선호하는 프로그램 방식에 맞춰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지원센터
- 사업내용
 - (청년) 청년 문화예술동호회의 교육활동 지원
 - (직장인) 직장인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신중년) 인문학 연계형 신중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업예산 : 2,600백만 원 (도비 900, 시군비 1,700)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2600	520	520	520	520	520
국비						
도비	900	180	180	180	180	180
시군비	1700	340	340	340	340	340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청년 문화예술동호회의 교육활동 지원

-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을 활용, 청년 문화예술동호회의 교육적 활동에 대하여 강사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

○ 직장인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문화시설의 야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야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별도 예산 지원 검토
-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 인문학 연계형 신중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에 따른 정부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고, 이를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문화예술단체의 인문정신문화 사업 참여 유도
- 책방, 도서관 등 생활권역 내 다양한 인문학 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 지원 : 정보 제공, 문화예술단체 매개, 공모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등

2-가-3. 지역 노인복지관 연계, 노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사업목적

-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르면 노인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노인이 선호하는 교육방식은 공공기관이 절반 이상(60대 52.7%, 70대 이상 65.1%)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30~50대는 평균 30%대) 공공기관이 압도적으로 높음(2021 국민문화활동실태조사 참조). 특히 노인은 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전라북도 노인 인구 약 40만 명 중 20%인 8만 여명이 전라북도 내 25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전라북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참조)
- 노인복지관에서는 단순한 예술체험 형식의 교육이 이뤄지는데, 노인복지관 관계자나 이용 노인은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요구함. 특히 노인이라는 특성에 맞는 목적성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요구와 노인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확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연계하여, 역량이 축적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에 적용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연계 하면서, 전라북도에서 독자적으로 노인복지관과 협력사업을 진행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지원센터(노인복지과 협력)
 - (도 문화산업과) 노인복지관 연계사업 관련 부서 협력체계 마련 (필요 예산 확보)
 - (도 지원센터) 노인복지관협회와 협력체계 구축,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 연계사업 추진

○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협회와 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간 MOU 체결
-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고도화(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컨설팅 지원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노인 특화 교육프로그램 정보 구축 및 노인복지관 제공
- 문화예술교육단체와 노인복지관 연계 노인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공모)
- 문화시설 및 문화단체 선정, 25개 노인복지관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사업예산 : 70백만 원 (도비 70)

- 정보제공과 통합컨설팅 제공 연 10백만원, 노인복지관 협력 공동사업 개발(공모, 실험운영) 20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70	10	30	10	10	10
국비						
도비	70	10	30	10	10	10
시군비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노인복지관협회와 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간 MOU 체결

- 전라북도 노인복지관협회(25개 노인복지관 참여)와 MOU를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발굴
- (협력사업 예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제공,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교육콘텐츠 DB 구축과 제공,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지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등

○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고도화(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컨설팅 지원

- 노인복지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 (예) 지역 내 강사비 통합, 노인복지관 주변 문화시설과의 연계 활용 등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내 통합컨설팅단을 활용, (희망하는) 노인복지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고도화를 지원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노인 특화 교육프로그램 정보 구축 및 노인복지관 제공
 -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와 노인특화 교육프로그램 DB를 구축(문화예술교육 지도)하고, 이를 노인복지관에 제공(자료 제공, 또는 설명회 방식)하여 노인복지관에서 고도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유도 :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일거리 창출과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고도화 효과
- 문화예술교육단체와 노인복지관 연계 노인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공모)
 - 노인복지관과 문화예술교육단체(시설/기관)이 협력하여 노인특화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문화예술교육단체가 개발을 담당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실험 운영
 - 실험 운영을 통해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다른 노인복지관에 전달하여 지역특화형 노인 프로그램 활성화
- 문화시설 및 문화단체 선정, 25개 노인복지관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 문화시설·단체를 선정하여 지역 내 영·유아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처럼, 지역 내 문화시설·단체를 선정하여 노인복지관 25개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 전라북도 시군을 권역으로 구분하여 4개 단체·시설을 선정, 각 권역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

■ 참고자료

-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연극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노인분야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 연극반을 운영. 매년 노년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연말에는 연극 한 편을 발표. 전문적인 소극장을 대관해 공연을 진행하기도 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복지시설 공모'

구분	내용
주요과정	· 연간 교육활동 협력 운영
과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접수기간	· 2021년 10월 4주 ~ 11월 2주
모집분야	· 전국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노인 분야는 노인복지관
지원규모	· 노인 : 234개 시설, 234개 프로그램
지원분야	· 노인: 무용, 미술, 연극, 음악, 사진
지원내용	· 노인분야 예술강사 지원 (근로계약 체결, 강사비/교통비 지원)

○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현황

연번	시군	복지관명	소재지	운영주체	설립일
	계	25개소(도위탁 1, 시군위탁 22, 직영 2)			
1	도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완산구 김나무4길29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97.4.13
2	전주시	안골노인복지관	덕진구 안골1길 11	사복)중부복지재단	'94.12.3
3	"	금암노인복지관	덕진구 삼송5길 12	사단)나누는사람들	'01.6.21
4	"	서원노인복지관	완산구 따박골5길 36	사복)금산사복지원	'02.1.1
5	"	덕진노인복지관	덕진구송천중앙로 36	사단)나누는사람들	'07.3.25
6	"	양지노인복지관	완산구 성자산로 55	사복)삼육재단	'08.5.13
7	"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완산구 평화14길 27-53	사복)이랜드	'10.2.2
8	군산시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둔배미길 29	사복)삼동회	'00.10.9
9	"	금강노인복지관	백릉로 245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14.1.9
10	익산시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동서로 103	사복)신광복지재단	'05.6.8
11	"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목천로 328	익산시 직영	'14.10.30
12	"	황등노인종합복지관	황등면 황등 8길 7	익산시 직영	'16.11.23
13	"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	함열읍 와리 중앙로 83	사복)신광복지재단	'21.5.21
14	정읍시	정읍시노인복지관	금봉1길 211	사복)삼육재단	'04.4.2
15	"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신태인읍신태인중앙로40	재단)대한성공회 유지재단	'09.3.30
16	"	정읍시섬진강노인복지관	칠보면 칠보중앙로 103-33	사복)케이워터 나눔복지재단	'20.12.3
17	남원시	남원시노인복지관	금동로 50	사복)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12.7.26
18	김제시	김제노인종합복지관	하동1길 79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08.7.17
19	진안군	진안군북합노인복지타운	진안읍 마이산로 76	사복)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08.12.4
20	무주군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무주읍 한풍루로 425	사복)삼동회	'05.12.9
21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수읍 노하3길 16	사복)자광재단	'10.11.15
22	임실군	임실군노인복지관	임실읍운수로 33-46	사복)삼동회	'11.11.1
23	"	북부권 노인복지관	관촌면 사선1길 24	사복)삼동회	'11.11.1
24	고창군	고창군노인복지관	고창읍 율계리 114-2	사복)선운사복지재단	'08.1.1
25	부안군	부안군실버복지관	부안읍 석정로 250	사복)한기장복지재단	'20.5.1.

나.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나-1.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 사업목적

- 문화예술 중심이었던 기존 계획의 과제와 달리, 제2차 계획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포함되면서 전라북도 특화 주제로서 문화유산교육을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함
- 전라북도 내 문화유산 관련 다양한 사업을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사업을 지원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도립국악원, 도립미술관)
- 사업내용
 - 문화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사 배치
 - 청소년 대상 지역문화유산 교육
 - 도립국악원 국악연수 운영 및 활성화
 - 전통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업예산 : 4,620백만 원 (국비 1,130, 도비 1,975, 시군비 1,515)
 - 문화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273백만원(국비 110, 도비 49, 시군비 11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사 배치 66백만원(국비 26, 도비 12, 시군비 28), 청소년 대상 지역문화유산 교육 180백만원(국비[기금] 90, 도 27, 시군 63), 도립국악원 국악연수 프로그램 운영 250백만원(도비 250), 전통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155백만원(도비 57, 시군비 98)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4620	924	924	924	924	924
국비	1130	226	226	226	226	226
도비	1975	395	395	395	395	395
시군비	1515	303	303	303	303	303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문화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 무형문화재 전승의 핵심 공간인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시설활용)를 통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역량 강화
- 전수교육관이 있는 6개 시·군(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에 10개 프로그램 지원
-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직접 수행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사 배치

- 문화예술사를 배치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영역을 확대
- 연 평균 문화예술교육사 2명(2022년 배치 인원, 임실군·고창군) 이상을 배치

○ 청소년 대상 지역문화유산 교육

- 지역 내 청소년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직접 체험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진행 : 2022년 4개 시·군 4개 프로그램 지원
- 지역의 문화유산을 찾아 답사하고 역사, 고고(발굴) 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도립국악원 국악연수 운영 및 활성화

- 도립국악원의 상설 국악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14개 시군) 국악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연간 상설 국악 연수 이용자 수 목표 설정과 관리 추진

○ 전라북도 전통놀이 지도 전문인력 양성과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전라북도 특화 전통놀이를 주제로 하는 전통놀이 지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 별 특화 전통놀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
- 수요조사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선정

2-나-2.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사업목적

- 문화예술교육의 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함. 국정과제인 장애예술 진흥, 제1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대응하여 정부 사업을 유치하거나, 지역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
- 전라북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수립 예정)의 주요 내용 중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함. 또한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인 대상의 전문 교육단체를 발굴하여 전문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함

[그림 4-4] 제1차 전라북도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계획(좌), 장애인 문화예술 공감콘서트(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지원센터
 - (도 문화산업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증진계획의 수립과 실행
 - (도 지원센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존 공모사업 등 활용)

○ 사업내용

- 국가 기본계획과 공모사업 대응
- 전라북도 조례에 의한 전라북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증진계획의 주요 과제 실행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 육성
-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공감 콘서트

○ 사업예산 : 400백만원 (국비 125, 도비 275)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등 연50백만 원, 장애인 문화예술 공감 콘서트 연 3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400	80	80	80	80	80
국비	125	25	25	25	25	25
도비	275	55	55	55	55	55
시군비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제1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국정과제 등 국가사업 대응

-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도내 장애인에게 추진되도록 지원 : 공모 참여 단체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컨설팅) 등

○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증진계획(2022~2026) 수립과 실행

-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증진계획의 추진과제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실행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과 관련 전문단체 육성(2023~2027)

- 기존 문화예술교육단체 중에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특화하는 단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장애인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기존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공감 콘서트

- 도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는 콘서트 개최: 시군 순회 콘서트, 미술전시, 인식개선 강연 등

■ 참고자료

○ 시각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단체: (사)우리들의 눈

- (설립년도) 1996년

- (설립목적) “1996년부터 시각장애를 또 다른 창의적 가능성으로 바라보며 시각장애인과 함께 경계 없는 융·복합적인 미술교육을 진행”

- (주요활동) “예술가들이 맹학교를 찾아가 진행하는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작품 전시, 점자촉각책 제작, 교육용 APP개발 등 창의적인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미지로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를 끊임없이 만들어감. 시각장애인 전용 갤러리 ‘우리들의 눈 갤러리’(삼청동)를 2006년에 개관. 시각장애인의 작품 전시, 시각장애인 예술가탄생을 위한 워크숍과 인큐베이팅프로그램 등을 운영.”

[표 4-12] (사)우리들의 눈 주요 활동 현황 (http://www.fdca.or.kr/bbs/content.php?co_id=ms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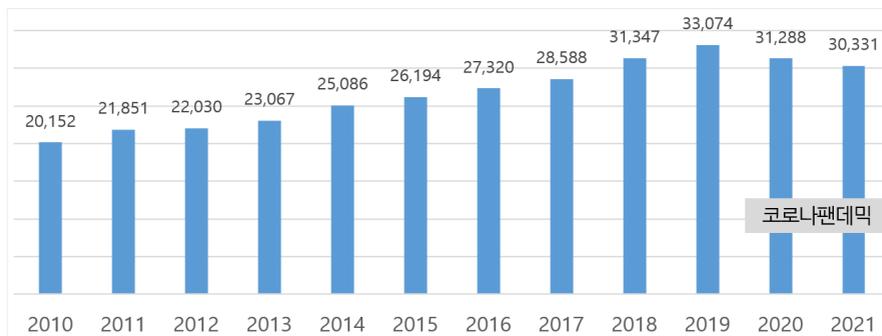
1996	· 충주성모학교 미술 워크숍
1997	· 충주성모학교 미술 워크숍, 이후 국립서울맹학교, 한빛맹학교, 청주맹학교 등 맹학교 미술수업
1998	· <제1회 국제 시각장애 학생 작품 교류전> 개최, 전국 시각장애학생 미술공모전 <프리즘 프라이즈> 개최
2000	· <제2회 국제 시각장애 학생 작품 교류전> 개최
2001	· <제3회 국제 시각장애 학생 작품 교류전> 개최, <시각장애와 시각예술> 포럼 개최
2004	·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점자촉각아트브로슈어 제작
2006	· <우리들의 눈 갤러리> 오픈, 이후 매년 5-6회 기획전시
2008	· <시각장애인 미술대학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보다> 포럼 개최
2009	· <u>코끼리만지기</u> 프로젝트 - 인천해광학교 진행
2010	· <u>코끼리만지기</u> 프로젝트 - 대전맹학교 진행
2011	· <u>코끼리만지기</u> 프로젝트 - 강원명진학교, 국립서울맹학교 진행
2012	· 국립민속박물관 시각장애미술교육프로그램 교재 ‘점자도-문자도’, 소리와 색을 매치시키는 앱컨셉 개발(인크로스 혁신상(나비상) 수상), <u>코끼리만지기</u> 프로젝트 - 청주맹학교 진행
2013	· 시각장애인 사진수업 매뉴얼 <오감으로 사진 찍기> 교재개발 및 앱 개발, <u>코끼리만지기</u> 프로젝트 - 충주맹학교 진행
2014	· 시각장애인 사진작가 데뷔를 위한 인큐베이팅, 시각장애 학생 미대 진학 지원, 패션점자촉각아트북제작,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시각장애미술교육프로그램 교재 ‘미술관을 만지다’ 개발, 전시/작품 설명 앱<도슨트> 개발
2015	· 시각 장애 미술교육 현장과 확산 가능성을 위한 <한·일 포럼> 개최, 시각장애 미술교육 사례집 제작, <코끼리 주름 펼쳐다展> 개최 및 강의(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파주 블루메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소개 앱<미술관을 듣다> 개발
2016	· 시각장애인 사진작가 데뷔 전시 <김경식 사진전>, 시각장애 미술교육과 예술활동 인문학 강연 <시인 아카데미>, 시각장애 미술교육 사례집 제작, 시각장애 특수학교 초등교과(수학, 과학, 미술) 학습지도 촉각책 ‘점선을 만지다’ 제작, 한글놀이 감각 촉각책 ‘한글을 만지다’ 제작 등

2-나-3. 외국인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사업목적

- 지역의 외국인주민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함.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외국인주민은 33,074명이며, 전체 인구(1,818,917명) 대비 1.3%임
- (외국인주민)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귀화자) 및 그 자녀”를 말함. 법률 용어는 아니며, 지원·관리 대상·범위를 정한 개념임

[그림 4-5]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수 현황(2010~2021)



-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계절노동자,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주민으로서 문화활동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받아야 함.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중점대상인 취약계층으로서 외국인주민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함
-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관련 사업을 활용하고,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발굴
-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다문화지원팀) 문화·체육행사를 지원. 한국음식문화 체험,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다문화가족문화 탐방,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등 진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 (대외협력과, 여성가족과 협력)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 담당 부서 사업 연계 외국인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 외국인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련 기관·시설 제공

○ 사업예산 : 50백만 원 (국비 50)

-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연평균 5, 외국인주민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연평균 5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50	10	10	10	10	10
국비	50	10	10	10	10	10
도비						
시군비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대상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사업 연계

- 도 국제협력과 다문화지원팀에서 외국인주민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함. 시군에서도 진행되는데, 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문화·체육행사로 진행됨. 한국음식문화체험,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다문화가족문화탐방,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등의 사업이 추진됨. 문화다양성 제고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전시, 음식체험, 문화체험, 공연관람 등의 사업이 진행됨
- 도와 시군이 진행하는 외국인주민 대상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연계하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과 도지원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 고도화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

○ 외국인주민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련 기관·시설 보급

- 도지원센터의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외국인주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외국인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시설에 제공하여 사업을 활성화함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교육을 연계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

■ 참고자료

○ 외국인주민 관련 부처의 법정계획과 사업

부처	계획과 사업	주요 내용
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년 제정) 5조를 근거로 2008년부터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부처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외국인정책기본계획(안) 발표. 제3차(2018-2022)까지 발표됨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기본계획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2를 근거로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수립하고 현재 제3차(2018-2022)까지 발표됨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중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은 외국인 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주민 문화경연 대면행사로 개최 예정.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자체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2021~2022년 사업을 2번 실시함 · 지자체당 약 1천만원 정도의 국비를 교부 받아, 지자체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활동을 지원함

○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사례

지자체	계획과 사업
경상남도	· 지원대상 : 도내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문화체육 동아리, 동아리당 50만원 한도 내 · 문화활동(연극/영화/뮤지컬 관람, 프로스포츠관람 등) 관람료 지원 최대 50만원 · 체육활동(경기장 사용료, 체육용품구입비) 사용료와 구입비 지원 최대 50만원
전라북도	· 선정대상 : 외국인주민 지원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2개소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표에 따라 신청서 평가 후 선정 · 지원규모 : 2개소(단체별 5,000천원) · 지원내용 : 외국인 주민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p>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8.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학교 및 평생교육 연계사업 활성화

2-다-1.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 사업목적

-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청소년의 감수성과 창의성이 개발되도록 교육과정 내 국악 분야 예술강사를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지원센터
- 사업내용
 -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 지원
- 사업예산 : 3,920백만 원(국비 1,960, 도비 1,960)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3920	784	784	784	784	784
국비	1960	392	392	392	392	392
도비	1960	392	392	392	392	392
시군비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 지원으로 국악교육 활성화
 - 도내 300개교, 예술강사 150명(국악 분야)

2-다-2. 평생교육 연계 강화 및 공동사업 발굴

■ 사업목적

- 평생교육은 정부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 하며, 문화예술교육도 평생교육의 주요 분류에 포함됨
 -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 :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안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김진화 외(2010) 참조)
- 문화예술교육 영역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교육적 역량을 갖춘 평생교육 분야와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교육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협력을 강화함
 - 제1차 전북계획에 평생교육 분야와의 협력사업 과제가 포함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
 - 2022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처음으로 문화예술단체(1개)가 참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지원센터, 교육협력추진단(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협력)
- 사업내용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과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간 MOU 체결
 -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두 영역 간 정보 및 인적 교류, 공모 지원사업 연계,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 문화예술교육 시설과 평생교육시설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사업예산 : 150백만 원 (도비 150)
 - 평생교육 분야와 공동사업 발굴 추진 연평균 50 (평생교육장학진흥원·전북지원센터 5대5)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150			50	50	50
국비						
도비	150			50	50	50
시군비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단계별 협력 강화

- 1단계 : 중간지원조직 간 정보와 인력 교류, 민간 교육단체 간 공모사업 상호참여 등을 통해 접촉 확장
- 2단계 : 지역사회의 공동주제(예, ESG, 장애인 예술교육 등)에 대한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협력 추진

○ (1단계) 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간 MOU 체결

- 양 기관 간 MOU 체결
- 실무협의회(워킹그룹: 지원센터장 및 직원, 평생교육부장 및 담당직원) 상설 운영 : 연 2회 이상
- (협력 사업 예시) 각 분야 단체가 자기 분야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 각 분야 공모사업에 대한 자기 분야 단체 홍보 및 정보 제공,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위원 교류, 상호 건설당단 구성, 분야별 축제(시군 평생학습축제,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주간 등)의 상호 참여, 전문인력 및 단체의 공동 연수 등

○ 문화예술교육-평생교육 간 협력사업 발굴 추진

- 평생교육 공모사업에 문화예술교육단체 참여 유도 : 대상, 미래사회 역량, 전북형 자원 특화 분야

* 공모 참여 가능 평생교육시설 유형 : 9유형(시민사회단체형 교육기관)의 비영리 민간단체 자격

[표 4-13]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공모, 2022년)

분야	내용	지원금액	지원 수
대상 특화	· 다문화가정·노인·청소년·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93,000천원	15기관
미래사회 역량특화	· 4차 산업관련 신기술 교육(AI, SW 등 미래 디지털 역량강화), 직업준비 프로그램, 직무 역량 프로그램 등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진입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38,000천원	6기관
전북형 자원특화	· 지역 특성 반영, 다양한 인문자원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 시민참여형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	7,000천원	1기관

- 평생교육단체가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공모 방법 마련 및 홍보
- 문화예술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인력과 단체 관계자의 공동 연수 추진 : 각 기관의 연수 및 역량 강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공동 연수 방안(프로그램과 강사 제공 등)을 마련

[표 4-14]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52,000천원 · 사업대상 : 평생교육 관계자(평생교육사, 시군 담당자, 평생교육 강사, 행복학습매니저 등) · 사업방법 :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권역별 연수, 성과공유회 등 · 사업내용 : 평생교육 업무 추진 능력 향상 교육(평생교육 관계자 및 평생교육 강사 등), 도내 평생학습사례 공유 등
--

○ (2단계) 공동의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콘텐츠) 공동 연구개발 및 운영

- 지역사회의 문제, 사회적 이슈 등과 관련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각 분야 민간단체·전용시설(꿈꾸는 예술터-평생학습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
- (예시) 전북도민 평생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교육 관련 표준 교육과정 개발. 기본적인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인문교양 방식의 커리큘럼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융합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공동정책으로 개발하여 운영)
- (예시) ESG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창의교육랩 사업에 평생교육 분야가 공동으로 참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인문교양교육, 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

○ 연계 협력 분야 확장

- 문화예술교육과 평생교육 표준 강사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
- 평생교육 축제(현재 시군별로 진행. 전라북도 축제는 미개최)와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주간의 공동 추진 또는 연계협력 방안 마련
- 문화예술교육시설(꿈꾸는 예술터, 생활문화시설, 문화기반시설 등)과 평생교육시설 간 협력 강화 : 프로그램 제공, 문화예술교육사 및 전문인력의 지원, 공간 공유 등)

3. 사회적 가치 창출

가. 문화예술교육 치유와 돌봄 확산

3-가-1. 문화예술교육 치유의 활성화 기반 마련

■ 사업목적

- 2000년대 중반부터 문화예술교육의 치유기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치유사업을 공모형식으로 진행함. 하지만 현재 문화예술교육 치유는 의료적 기능보다 문화예술 활동 측면에서 이뤄짐
- 문화예술교육 치유 분야는 문화예술교육의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동력이 됨.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치유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지원센터
 - (도 문화산업과) 조례 개정, 법 개정 요청 등
 - (도 지원센터)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전문인력 양성, 의료기관 내 프로그램 활용 지원 등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치유에 대한 제도 마련 (법 개정 요청)
 - 문화예술교육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문화예술교육 치유 전문인력 양성

- 의료기관 내 문화예술교육 치유프로그램 활용 지원

○ 사업예산 : 380백만원 (국비 100, 도비 280)

-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으로 치유관련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 치유프로그램 개발지원 연평균 60백만원(1건당 20×3건, 3개년), 문화예술교육 치유전문인력 양성과 치유프로그램 활용 지원 등은 기존 사업 활용 또는 행정적 지원으로 추진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380	200		60	60	60
국비	100	100				
도비	280	100		60	60	60
시군비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문화예술교육 치유에 대한 제도 마련

-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등 분야별로 치유를 법제화하였듯이, 문화예술교육 치유의 법제화가 필요. 문화예술(교육)치유에 대한 법제화를 건의 : 문화예술(교육)치유법 제정, 또는 문화예술교육법 개정

- 법률 제정과 별도로 '문화예술교육치유' 개념과 지원 조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

○ 문화예술교육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많은 연구개발로 효과를 검증한 타 분야와 융합하여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콘텐츠를 개발

- 타 분야의 의료적 효과검증방법을 도입하여 치유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보편적 실행 모델을 정립. 다른 단체나 전문인력이 활용하도록 교육 지도안을 제작하여 배포

○ 문화예술교육 치유 전문인력 양성

- 기존 민간 차원의 예술치유사 등의 경력자와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치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 : 치유 관련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의료기관 내 문화예술교육 치유 프로그램 활용 지원

-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문화예술교육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검증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교육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도록 지원 : 민간단체 등이 보유한 문화예술교육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매개 역할을 수행
-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치유 공모사업을 개발하여 지원 : 병의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 참고자료

○ 병의원 연계, 문화예술(교육)치유 사업 사례

· 인지행동 통합예술치료

-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는 개인의 사고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로 시작된 행동치료와 인지치료를 통합한 심리치료 모델이다. 인지란 인간의 포괄적 인지를 의미하고 인간이 지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체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인지행동치료는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인지라고 여기고 인지를 교정하여 행동을 변화시킨다”(홍지영, 2017: 26-27). 통합인지행동치료는 다양한 심리적 치료기법을 통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명지병원에 근무하는 정영희(신경과 의사)와 이소영(예술치유센터장)의 연구에 따르면,¹²⁾ 알츠하이머 환자(경증~중등)에게 인지치료와 미술치료와 음악치료가 포함된 통합인지치료(2014~2019, 59명)를 운영한 결과 “치료 전보다 일상생활능력, 정서불안, 우울증, 인지기능 장애, 치매 등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화, 요리, 외출 등 일상생활에 대한 문항과 함께 복합적인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일상생활능력평가(S-IADL)는 17.6±7.6에서 15.7±9.5로 개선됐다. 정서 불안 정도를 검사하는 단축형 노인성 우울증 검사(S-GDS)에서는 5.6±3.5에서 4.2±3.0으로, 인지기능 장애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는 18.7±4.5에서 19.7±5.0으로 인지수치가 증가했다”(디멘시아 뉴스, 2021.04.22.)

명지병원의 백세총명 가족교실

- 명지병원이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단으로 ‘백세총명 가족교실’을 운영한다
- 경도인지장애, 치매환자 가족에게 치매 특강, 스트레스 극복하는 가족치료, 예술치료 등을 제공한다.
- 명지병원을 통합적 치매환자 프로그램(뇌건강인지클리닉-백세총명가족교실-치매극복)으로 진행되며, 특히 전문 의학과 예술치유가 융합하는 다학제적 접근을 한다는 게 특징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예술치유센터, 노인의학센터

자료 : 명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홈페이지(public.mjh.or.kr/senior-family-class)

12) <https://www.dementia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7>

3-가-2.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치유와 돌봄의 '문화보건소' 운영¹³⁾

■ 사업목적

- 농촌지역 거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위축감을 겪는 청년 등 심리적 위기 상황에 집중하여 문화예술교육 치유 전문인력·단체가 읍면으로 찾아가감.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치유사업으로 지방소멸지역 주민의 생활 활력 증진과 읍면 주민의 문화활동 활성화가 기대됨
- 단기적으로 14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에 이른바 '문화보건소' 기능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14읍 145면 82동(241개) 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치유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문화보건소' 적용 사업을 추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지원센터(보건의료과 협력)
 - (도 문화산업과) 시군 보건소 관련 협조체계 구축, 국비 지원 신규 사업화
 - (도 지원센터) 보건소 방문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문화보건소 조성사업 개발
- 사업내용
 - 읍면 주민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치유프로그램 지원
 - 문화보건소 사업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
- 사업예산 : 9,740백만 원 (국비 4,820, 도비 2,510, 시군비 2,410)
 - 14개 시군별 1개소 시범(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50백만원(2024~2025년), 241개 읍면동 문화보건소 운영 연평균 4,820백만원(1개소당 20×241개소, 2026년 이후 추진)

13) 본 사업안은 익산시(2022)의 「익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을 참조하였음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9740		50	50	4820	4820
국비	4820				2410	2410
도비	2510		50	50	1205	1205
시군비	2410				1205	1205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치유프로그램 활용, 읍면으로 찾아가는 치유프로그램 서비스
 - 창의교육랩 등을 통해 개발된 치유프로그램을 활용, 추진단체를 선정하여 시군별 1개소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
 - 문화보건소별로 수요를 파악, 심리위기상황, 연령, 예술장르, 목적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 프로그램 제공
- 읍면동별 문화보건소 운영 : 상설 문화예술교육 치유프로그램 제공
 - 읍면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매칭, 이용자 대상 모집, 공간 활용
 - 보건소 위치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맞춤형 상설 프로그램을 제공
 - 보건소별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전문역량을 갖춘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을 배치하거나, 문화예술교육단체에게 시군별 위탁하여 운영

■ 참고자료

- 서울문화재단 ‘예술치유 프로젝트’ 사례

대상	사업내용
취준생 은퇴자	· 〈나를 읽는 아트테라피, 내 삶을 위한 아트테라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미술 주제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개별 창작 및 공유 활동
성인	· 〈Visual 낭독〉 : 불필요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해소되도록 도구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 몸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운용해보는 비대면 치유활동
청소년	· 〈김'마씨'프로젝트〉 : 청소년 스스로 시선으로 세상을 탐색 및 이해하고자 '우리동네 영웅 찾기' 미션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속 자신들의 영향력을 인식함
저소득 어르신	· 〈나와의 대화, 창작하는 나〉 : 예술키트 제공을 통해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 개인에게 삶의 만족을 제공하고 다시금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함

나. 문화예술교육의 경제적 가치 창출

3-나-1. 문화예술교육 체류 관광 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 예술로 한 달을 사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함. 예술인 대상 사업은 지원 규모가 매우 적고, 지역 체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작음. 이에 반해 일반인이 특정 도시에 장기체류하면서 예술교육을 받는 등 일반인의 예술 목적형 장기체류의 경우 지역경제 미치는 효과를 비롯하여 관계인구 유입 효과도 큼
- 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특정 도시에 장기체류하는 관광(모노테스티네이션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지원센터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방안과 함께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체류형 관광사업을 연계하여 체험학습(교육) 관광을 활성화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지원센터(관광산업과 협력)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활용 체류 관광 활성화 사례 발굴과 보급
 - 시군 연계 문화예술교육 체류관광 지원 시범사업 추진과 확산
- 사업예산 : 비예산 사업

■ 사업의 세부내용

○ 문화예술교육 활용 체류 관광 활성화 환경 지원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체류 관광 활성화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 기관·단체, 시군 담당 부서 등에 제공
- 체류 관광을 지원하는 다른 부서 업무와 연계 추진 가능하도록 협력체계 구축 : 관련 정보 제공
- (예시) 문화예술교육 주제로 문체부의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참여 시군에 대해서 계획수립 컨설팅 제공
- (예시) 문화예술교육단체, 관련 기관에게 체류 관광 관련 사업(인구소멸대응 시군 사업, 지역별 한달 살기 사업, 전라북도 및 시군의 체류형 관광 지원 사업 등)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사업 참여 유도

○ 문화예술교육 체류 관광 지원 : 외지 관광객의 '예술로 한 달 살기'

- 예술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레지던시형 사업이 아니라, 일반인이 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한 달 이상 장기 체류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 관광 관련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추진
- (예시) 시군별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포함된 워케이션 사업과 연계하여 예술교육으로 휴가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남원김병종미술관(아트에듀센터) 연계 '아트 워케이션' 운영
- (예시) 완주군에서 진행한 예술인의 한 달 살기 사업을 비 예술인의 '예술로 한 달 살기'사업으로 확대

■ 참고자료

○ 2022년 문체부의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선정 보도자료

-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유형
 - (현지살아보기형) 지역에 장기간 머물며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 지역민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여행. 일정기간(3일 이상) 체류(숙박)하면서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 더 나아가 그 지역의 지역다움을 체험하고 지역민의 삶을 공유하는 관광
- 2022년 선정 지자체
 - 강원 속초시(웰니스 도문해), 충북 청주시(문의 살아보기 '문의해봄'), 충북 충주시(반려동물과 더 가까이), 경북 포항시(소소한 낭만여행 '촌스럽GO, 자연스來'), 경남 사천시(별주부전 비토섬), 경남 통영시(슬기로운 섬마을 생활), 경남 함양군(여행을 일상처럼 함양 On 데이), 전북 전주시(전주 골목길 역사 산책, 서학동편 '학동네 이야기'), 전남 해남군(해남에 살러와 땅끝으로 마시나와 '땅끝마실')
- 지원내용
 - 지자체당 국비 100백만 원 지원
 - 프로그램 개발사업, 연계활용 사업, 관리운영 사업 등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2022 생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8쪽

3-나-2. 문화예술교육과 콘텐츠산업의 연계 지원

■ 사업목적

- 문화콘텐츠 분야도 문화예술교육에 포함됨.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지역주민의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교육사업이 필요함.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산업화하는 방안으로서 주요한 교육프로그램을 디지털 콘텐츠 또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한 사업을 총괄하는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을 비롯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사업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의 콘텐츠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
 - (도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주민시네마스쿨 운영 등
 - (도 지위센터) 문화콘텐츠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연계사업(정보·컨설팅 등) 지원
- 사업내용
 - 문화콘텐츠 관련 주민교육 사업 추진 :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주민시네마스쿨 운영
 - 문화콘텐츠산업 연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확산
- 사업예산 : 2,380백만원 (도비 1,600, 시군비 780)
 -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연평균 200백만원(도비), 주민시네마스쿨 연평균 260백만원(도비 104, 시군비 156)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2380	460	480	480	480	480
국비						
도비	1600	304	324	324	324	324
시군비	780	156	156	156	156	156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도내 콘텐츠 기업 맞춤형 창의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문화콘텐츠 아카데미를 운영
- (사업내용) 지역 콘텐츠 제작 전문인재 양성 및 콘텐츠 분야 진로체험, 콘텐츠 편집 기초양성과정, 콘텐츠 키움센터 창의융합 체험 등
-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주관, 도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연계

○ 영화예술교육사업으로서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

- 시군별 영화제작 및 영화상영 장소를 연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상 촬영·편집·제작 등 기초교육과 영화 관련 대학진학 및 영화감독 기초교육을 제공
- 시·군에 조성된 작은영화관 등 문화시설을 활용, 영상제작 과정 운영 및 UCC공모전 개최 등
-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와 도지원센터 간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콘텐츠화 지원

- 현장에서 활용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시장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교육콘텐츠로 개발되도록 관련 기관의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
- 콘텐츠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발 이후에 전라북도 대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로서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

다.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예술교육 강화

3-다-1. ESG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및 지원¹⁴⁾

■ 사업목적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모든 분야에서 다뤄야 할 이슈임. 문화예술교육에서도 ESG를 주제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또한, 기업의 생존 전략인 ESG를 문화예술교육 시장과 연결하면 문화예술교육 영역의 일거리가 확대되고 민간의 생태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전라북도가 지자체 최초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역임.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의 특화 영역이자, 기업과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상생 전략으로서 ESG 관련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개발·추진함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2021.7.9 제정) 주요 내용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생태문명 가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문명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를 위하여 전라북도 생태문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문명 비전과 전략 2. 생태문명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별 이행 전략 3. 도민의 생태문명 실천·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문명 선도와 관련된 사항
제5조(생태문명 지원)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지원센터

14) 이 사업안은 전라북도 박화선 주무관(문화예술교육 담당)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재구성함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관련 ESG 교육 및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 문화예술교육 분야(인력·단체·콘텐츠)와 기업연계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사업예산 : 200백만 원 (도비 200)

-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연 평균 50백만 원 × 4년(2024~2027)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200		50	50	50	50
국비						
도비	200		50	50	50	50
시군비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과 전문단체를 대상으로 ESG 교육

- 연계방안, 사례조사, 사업제안서 작성 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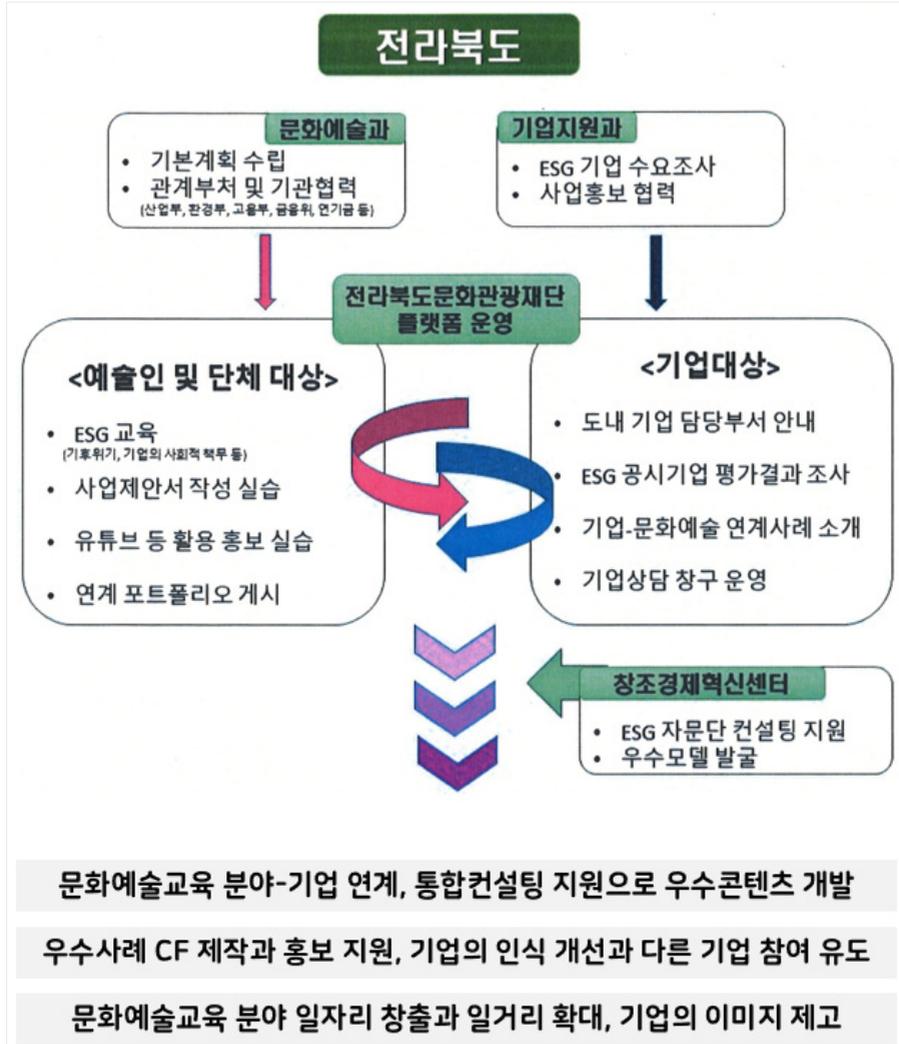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분야-ESG 공시대상 기업 연계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과 단체별 포트폴리오와 유튜브 게시, CF 제작 및 배포
- 도내 주요기업 활동 동향과 전담부서, 담당자 정보 제공
- 연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대상 전문가 컨설팅 지원

[표 4-15] 기존 사례 활용 문화예술교육 연계 모델 예시

활동 분야	기존 활동 방식	문화예술교육 연계 모델
장학금 기부	기업이 아동복지관에 장학금 직접 기부	→ 기업이 교육단체/예술강사에게 강사비를 지급하고, 단체/예술강사가 아동복지관에서 예술교육 진행
장애인 공연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여 공연제작 및 공연단 운영	→ 장애인 예술단체와 협력, 기업이미지 제고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연활동 협력을 추진

[그림 4-6] ESG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추진 체계와 기대효과



■ 참고자료

- 전라북도 내 ESG 공시 대상 기업 현황
 - (코스피 상장기업) 일진하이솔루스, 두산퓨얼셀, 솔루스첨단소재, 미원에스씨, JB 금융지주 등 12개

3-다-2. 지방소멸 대응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사업목적

-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구 감소는 지역의 중요한 이슈임. 시군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지방소멸대응과 관련한 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됨. 이 중에서 개성 있는 '매력 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억제'가 핵심적인 전략임. 이 전략에서 단순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역 자체를 매력이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게 주요 방향임
-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하여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외지인을 유입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주민의 유출을 방지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문화산업과·도지원센터(청년정책과 협력_인구소멸기금 대응)
 - (도 문화산업과)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 구축
 - (도 지원센터) 인구소멸대응기금 중 문화 분야 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보급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매력 공간 창출과 생활인구 확보 정책 발굴
 -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활용 문화예술교육 사업 연계 추진
- 사업예산 : 비예산 사업

■ 사업의 세부내용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매력 공간 창출과 생활인구 확보 정책 발굴
 - 인구소멸 대응 전략으로 지역문화를 활용한 매력적인 지역만들기 관련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
 - 기존 공모사업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문화예술교육 독자사업 발굴
-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활용 문화예술교육 사업 연계 추진
 - 2024년 이후 시군별 투자계획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사업 포함 노력
 - 시군별 계획에 포함되도록 전라북도(지원센터) 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시군이 참조하도록 제공

■ 참고자료

- 전라북도 10개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중 문화 분야 사업 현황

시군	주요 전략	문화 분야 사업	주요 내용
익산시	· 30만 인구가 넘겨낸 삶을 누리는 자족도시 익산 건설	· 생활 속이 힐링도시 프로젝트: 행복생활권 조성 · '더 가까이 누리는 문화, 행복생활권 문화도시'	· 도서관 조성 및 보수 10개소, 박물관 미술관 등 30개소 · 시민예술가 1만명, 생활체육인 10만명 프로젝트 · 역사로 다이로운 문화도시 추진
정읍시	· 청년 정착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 지역활력을 위한 건강 힐링 기반 구축	· 평생학습관 · 청년일자리와 생활인구 확충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평생교육관 조성과 운영 · 정읍 드림랜드 조성 · 실감형 콘텐츠 중심의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
남원시	· 생활거점 기능 강화를 통한 정주민구 증가 · 관광거점기능 강화를 통한 체류인구 증가	· 지리산 관광휴양벨트 조성 · 지리산권 위케이션 둘다 빌리지 조성	· 남원관광단지-광한루원 일원 연계 관광, 훈불문학관-서도역 연계 도보 관광지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 위케이션 기능 보강
김제시	· 함께 돌보고 키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 대울캠핑장 아동 어드벤처 조성(공간) · 숲&아이 생태놀이터, 김제아	· 가족단위 휴양문화 공간 조성 · 검점지 노후화된 공원을 아이들 친화공간으로 재조성

	<p>ALL STEP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제 지평선 도시브랜드화로 젊은 이미지 제고 	<p>이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 (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화된 시립도서관을 아동친화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모델 · 찾아가는 놀이터, 주말 놀이터, 놀이터 페스티벌을 운영
진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희망일터 함께 가꾸고/ 매력창출로 생활인구 늘리고/ 지역 꿈나무 미래 인재 키우고/ 진안고원 혁신마을 주거행복 채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찾고 머무는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 · 진안 살아보기 체험관광 활성화 :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관광 활성화, 마을숲 활용 캠핑장 조성 · 평생학습관 건립 ·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
무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ART생태계조성 · 관광생태계재창조 · 농촌 의료복지에너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 및 축제 전시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아트 영상관 조성 · 우주 반딧불이 및 우주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 · 축제 전시관 조성
장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증가·유지전략 · 교류인구 증가전략 · 소득 증가전략 	· 없음	· 없음
임실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 좋은 힐링 임실 · 머물고 싶은 힐링 임실 · 눈이 즐거운 힐링 임실 	· 임실문예담터 건립	· 문화예술공간 신축(가창·임실문예담터)
순창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원활한 지역탐색 지원 · 청년들의 탄탄한 지역정착 지원 · 청년들의 행복한 지역살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창형 청년허브 구축 · 청년가족 지역탐색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진강 연계 치유문화체험 기반 확충 · 서남부권 역사문화체험 연계 도농교류기반 확대
고창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활력 · 청소년의 꿈 	·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 서남부권 중위거점인 무장면에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
부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 소득·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유입 · 소생활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 매력 공간 조성으로 정주인구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형 한지학교 조성 · 위케이션센터 구축 · 부안 아트 플랫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편 식재부터 한지 완성까지 전 과정 체험 공간 조성 · 유희공간 활용 위케이션센터 1~2관 조성 · 부안예술회관 공연장 장비 교체 및 미디어센터·소공연장 리모델링

3-다-3.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예술교육의 확산

■ 사업목적

-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데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함.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이 낮고, 대부분 문화예술교육기관이 사회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전라북도 지역문화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기반의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문화로 해결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생활실험실을 추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7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지원센터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성공사례 발굴과 보급
 -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교육 생활실험실
- 사업예산 : 100백만원 (국비 80, 도비 20)
 - 문화예술교육 혁신사업 발굴과 자료집 제작 20백만원,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예술교육 생활실험실 지원 연평균 $20 \times 4 = 80$ 백만원(기존 전라북도 사업 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 활용)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100	20	20	20	20	20
국비	80		20	20	20	20
도비	20	20				
시군비						
기타						

■ 사업의 세부내용

○ 문화예술교육 기반 사회혁신 성공사례의 발굴과 보급

- 분야별, 지역별, 세대별로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하여 사회를 혁신시킬 수 있는, 이른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로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 성공사례를 활용하도록 보급
- (연구용역) 사업의 방향 설정, 성공사례 발굴, 전라북도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예시 등

○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 도지원센터에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단체의 공모사업 대응에 대한 컨설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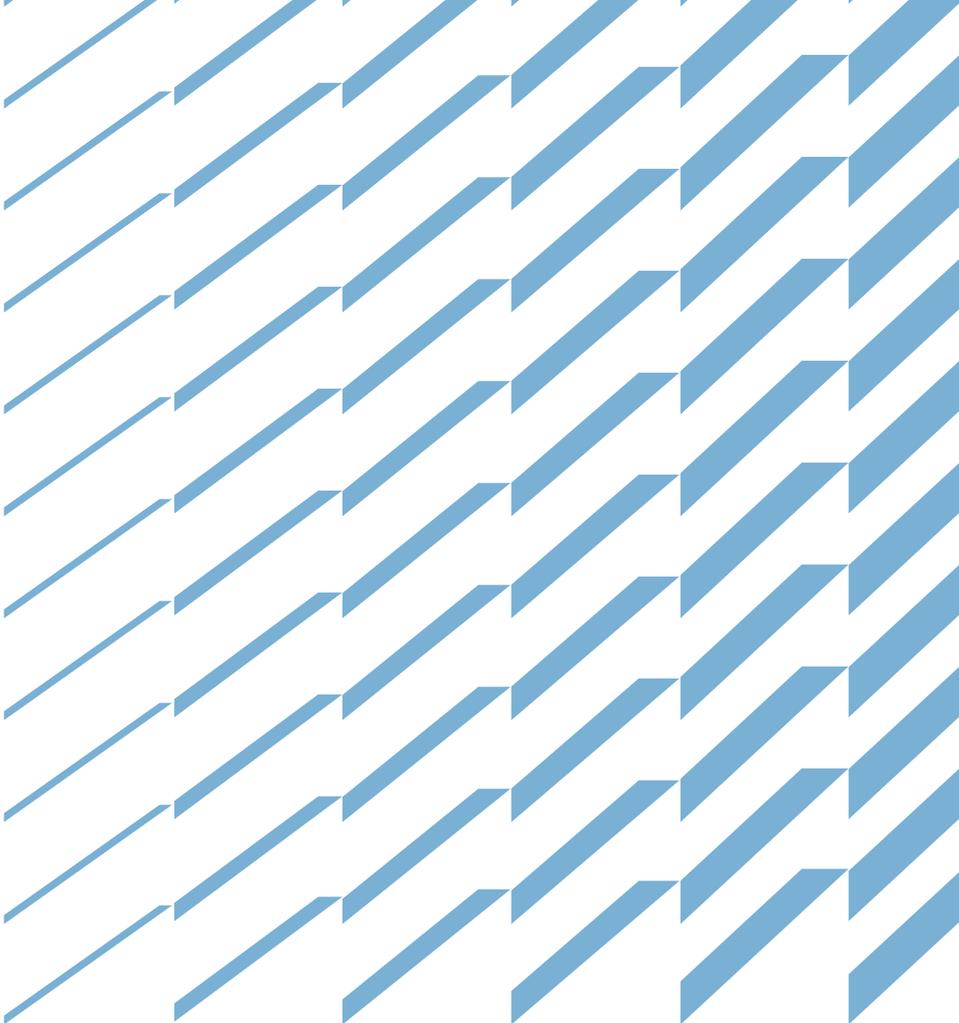
○ 전라북도 자체 생활실험실 사업 발굴 지원

- 정부 공모사업 대응 외에 지역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생활실험실 사업을 지원: 기존 공모 사업 활용
- 청년 기본계획에 포함된 <예술있슈Issue> 등 기존 사업을 활용

■ 참고자료

○ 전라북도 청년 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Issue> (제2차 청년기본계획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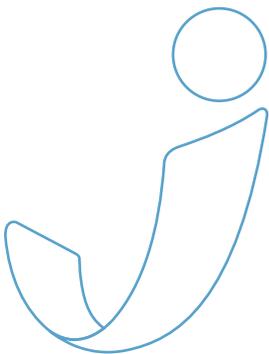
- 필요성 및 목표
 - 청년이 주축이 되어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화예술 활동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청년의 창의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
 - 청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탐구와 경험으로 청년 커뮤니티 조성 및 청년 문화 저변확대
-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2023~2027
 - 사업 추진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39조
 - 사업 시행 방식 : 간접사업,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위탁
 - 주요 내용
 - 도내 거주 청년(만19~39세)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서 변화를 꾀하는 다양한 환경·이슈·문화 등을 제안하고 해결하는 과정 지원
 - 청년 커뮤니티의 자율적 활동 지원, 지역의 공공과제 및 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프로젝트 지원, 멘토링 제도 지원
 - 사업비 : 250백만원 (도비 50)



제 5 장

결론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 3대 목표, 9대 전략, 24대 과제

- 이 연구에서는 제2차 종합계획을 준용하되, 제1차 전북계획의 이행점검에 따른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고, 관계자 의견수렴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주요 사례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 문화자치 시대와 전라북도 여건에 따른 3대 목표, 9대 전략, 24개 세부 과제를 제안하였음
- 계획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설정하였고, 전체 사업비는 40,270백만 원으로 설계하였음

■ 제2차 전북계획의 특징

- 제1차 전북계획과 비교하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심에서 법률이 정한 정책 범위(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등)로 확장하여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도 제2차 전북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하였음
- 또한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광역시·도로 주요 정책·사업이 이양된 만큼 달라진 전라북도(도지원센터) 역할(기존 문체부의 역할)에 맞춰 세부 과제와 추진체계를 고민하였음
- 제1차 전북계획이 광역의 자치기반에 주목하였다면 제2차 전북계획에서는 기초의 자치기반에 주목하여 과제를 발굴하였음. 기초에 자율성을 주려는 포괄 보조 방식 계획계약 제도, 계획기간에 달성해야 할 재정목표 제시, 전라북도 특화형 문화예술교육 대상(문화유산교육, 장애인과 외국인주민 교육 등) 선정과 과제 제안, 세부 사업이 아니라 3대 목표로 설정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도 제2차 전북계획의 특징임

전략	과제	내용	기간	예산 (백만원)	
1. 지역화 기반 강화					
가. 기초 중심 의 기반 마련	1	문화예술교육 지원조 례 제·개정	· 시군 조례의 제정 유도 · 기초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표준안 마련 · 전라북도 및 시군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의 개정	23-27	-
	2	시군별 문화예술교육 정책 정립과 시군계획 수립 활성화	· 시군별 문화예술교육 업무 설정과 담당 부서장 회의 개최 · 시군별 계획 수립 의무화 조항 시설에 관한 법 개정 요구 · 시군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전 라북도에서 권고 및 행정적 지원 · 시군별 수립 계획의 제출과 연차별 이행 점검	23	-
	3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 육 거점 조성	· 신규 기초거점 조성사업 추진(문체부 공모사업 대응) · 기존 기초거점의 활성화와 신규 거점과의 연계사업 지원	25-27	480
	4	문화예술교육 통계·정 보체계 구축과 지수화	· 문화예술교육 행정·조사통계 구축과 활용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통합과 활용도 제고 · 문화예술교육 수요-공급 정보체계 구축과 활성화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수 개발과 분석(정부 계획 에 따른 대응)	23-27	180
나. 안정적 재 정 확보	1	문화예술교육 재정목 표 설정	·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세출예산 대비 문화 예술교육 예산 목표를 설정 · 목표 재정 달성 관련 연차별 이행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23-27	-
	2	도 공모사업의 시군별 통합 지원과 매칭 통 한 재정 확보	· (도 문화산업과)시군 수요 파악과 시군비 매칭 협 · (도 지원센터)시군별 계획 심의, 이행점검, 컨설팅 지원	24-27	5000
	3	민간단체의 자율적 유 료 프로그램 확대와 자립 강화	· (도 문화산업과)유료 교육프로그램 현황 파악 및 통 계 구축, 활성화 협력방안 추진 · (도 지원센터) 민간단체 등과의 유료 프로그램 개발 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23-27	-
다. 문화예술 교육 공급기반 확충 및 강화	1	문화기반·생활문화시 설 연계 교육 활성화	· 1 공공도서관 1 문화예술교육 공동 진행 · 문예회관 내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 지원 · 생활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자원 활용 지원 · 전북도립미술관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3-27	4850

	2	문화예술교육의 추진 체계 내실화	(도 문화산업과)전북문화예술교육협의회 운영 (도 지원센터)기초 주도 워킹그룹(실무협의체), 민간 협의체 지원	23~27	2750
2. 참여 확대와 고도화					
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1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의 확대 운영 및 지역 브랜드 · 창의적 문화영재 창의캠프 운영 · 꿈의 무용단 관련 국가 공모 대응	23~27	2400
	2	청·장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청년)청년 문화예술동호회의 교육활동 지원 (직장인) 직장인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신중년) 인문학 연계형 신중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23~27	2600
	3	지역 노인복지관 연계, 노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노인복지관협회와 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간 MOU 체결 ·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고도화(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컨설팅 지원 ·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노인 특화 교육프로그램 정보 구축 및 노인복지관 제공 · 문화예술교육단체와 노인복지관 연계 노인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공모) · 문화시설 및 문화단체 선정, 25개 노인복지관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23~27	70
나.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 문화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사 배치 · 청소년 대상 지역문화유산 교육 · 도립국악원 국악연수 운영 및 활성화 · 전통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23~27	4620
	2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 국가 기본계획과 공모사업 대응 · 전라북도 조례에 의한 전라북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증진계획의 주요 과제 실행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 육성 ·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공감 콘서트	23~27	400
	3	외국인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 외국인주민 담당 부서 사업 연계 외국인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 외국인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련 기관·시설 제공	23~27	50

다. 학교 및 평생교육 연계 사업 활성화	1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 도내300개교, 예술강사 150명(국악 분야)	23~27	3920
	2	평생교육 연계 강화 및 공동사업 발굴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과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간 MOU 체결 ·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두 영역 간 정보 및 인적 교류, 공모 지원사업 연계,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 문화예술교육 시설과 평생교육시설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25~27	150
3. 사회적 가치 창출					
가. 문화예술교육 치유·돌봄 확산	1	문화예술교육 치유의 활성화 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 치유에 대한 제도 마련(법 개정 요청) · 문화예술교육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문화예술교육 치유 전문인력 양성 · 의료기관 내 문화예술교육 치유프로그램 활용 지원	23~27	380
	2	치유와 돌봄의 '문화보건소' 운영	· 읍면 주민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치유프로그램 지원 · 문화보건소 사업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	24~27	9740
나. 문화예술교육의 경제적 가치 창출	1	문화예술교육 체류관광 활성화 지원	· 문화예술교육 활용 체류 관광 활성화 사례 발굴과 보급 · 시군 연계 문화예술교육 체류관광 지원 시범사업 추진과 확산	24~27	-
	2	문화예술교육과 콘텐츠산업의 연계 지원	· 문화콘텐츠 관련 주민교육 사업 추진 :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주민시네마스쿨 운영 · 문화콘텐츠산업 연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확산	23~27	2380
다.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예술교육 강화	1	ESG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및 지원	· 문화예술교육 관련 ESG 교육 및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 문화예술교육 분야(인력·단체·콘텐츠)와 기업연계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4~27	200
	2	지역소멸 대응 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매력 공간 창출과 생활인구 확보 정책 발굴 ·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활용 문화예술교육 사업 연계 추진	24~27	-
	3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예술교육의 확산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성공사례 발굴과 보급 ·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교육 생활실험실	23~27	100

2. 정책 제언

■ 문화자치 시대의 첫 계획, 달라진 환경에 맞는 전략과 실천 필요

- 제2차 전북계획은 문화자치가 본격화된 뒤에 나온 첫 번째 계획임. 그만큼 이 계획은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분수령 성격을 가짐. 문화자치라는 큰 환경변화에 맞는 전략과 과제가 필요한 이유임. 문체부로부터 이양받은 사업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방식대로 답습한다면 문화자치라 부르기 어려움
-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부터 확고히 해야 함. 문화자치라는 큰 틀을 기반으로 지역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역량을 모아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도 필요함. 특히 문화자치와 관련한 첫 번째 계획이므로 문화자치 구성요소(제도, 재정, 추진체계와 자치역량)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함. 그 래야 늘 목소리를 높이며 강조하였던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이번 계획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변화를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달라진 역할을 인식하고, 그 역할에 맞게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해야 함. 문체부로부터 이양받은 건 단지 사업만이 아님. 기초를 아우르며 광역 단위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구상·실천해야 하는 역할도 이양받았음
- 도 지원센터도 이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었다면 바뀐 환경에서는 기초의 거점과 연계하여 광역 차원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확산하는 네트워크 중심이 되어야 함. 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임
- 정책 기능을 하려면 단순 위탁사무, 또는 직접 사업을 지양하고 플랫폼으로서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전라북도에서 도 지원센터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달라진 기능에 맞는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도 지원센터 역시 달라진 환경에 부합하는 기능을 고민하고 실행체계를 새로이 해야 함
- 아무리 계획을 탄탄하게 수립하더라도 전라북도, 도 지원센터, 시군, 기초거점,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협력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됨. 이 계획을 실행하는 전라북도와 도

지원센터가 달라진 환경에 맞는 역할을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이 대중적으로 확장되려면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으로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답을 내놓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함. 즉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이번 계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된 이유가 이 때문임. 어린이에게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다는 수준에서 정책적 당위성을 논하면 학교 교육, 학원 교육 이상의 사업은 필요하지 않음. 현대사회의 위험과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 위기, 사회적 갈등 등 현대사회에서 불거지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역할을 한다면 문화예술교육에 공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분명해짐
- 이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화예술교육이 앞장서고, 문화예술교육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ESG 이슈에 대응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가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된다면 공적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문화예술교육의 자율적 지역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음

참 고 문 헌

REFERENCE

- 경기도. (2020).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
- 김진화. (2010).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제 개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6(3), 211-236.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장세길 & 육수현. (2021). 문화향유 중심에서 사회혁신형으로 - 전라북도 사례로 본 문화자치역량 격차와 문화공동체 육성 방향. 문화정책논총, 35(1), 105-131.
- 전라북도. (2021). 2020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추진 결과 보고 (내부자료).
- 전라북도. (2022). 2021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추진 결과 보고 (내부자료).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0). 2019년 기준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0). 전라북도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실태조사.
- 전북연구원. (2018).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 정책과제(연구책임 장세길) 보고서.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533>
- 정광렬. (2022).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 익산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국정과제와 문화자치 대응 세미나 I.
- 조현성 & 이정희. (2022). 새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의미와 방향. 문화관광인사이트, 165.
- 조현성. (2016).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와 통일지향적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보연. (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관광공사. (2022). 2022 생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2019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로드맵(안).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 이행상황 분석 연구.

SUMMARY

A Study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Measures for Jeollabuk-do

Segil Jang · Jiwon Shin · Suji Kim · Hyeonseong Jo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s

■ Research objectives

-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and tasks in relation to Jeollabuk-do's second Cultural and Arts Education Plan (2023-2027) initiated by the Support for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ct.
- Most of the arts and cultural education projects have been transferred to local areas in response to self-governance and decentralization. Jeollabuk-do should oversee policy development and business planning, which were formerly handl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province must also play a leading role in promoting policies on a metropolitan scale, expanding away from transferring projects to local governments.
-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will examine the autonomous foundations of art and cultur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core elements of cultural autonomy—systems, finances, an execution plan, and self-governing capability—and will suggest strategies and tasks for each element that need to be addressed by the province in its new role.

■ Research methods

- (Literature review) Academic resources such as research articles and reports on arts and cultural education, policy documents related to the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ct, similar supporting policies, and other materials on culture and arts policies were reviewed.
- (Stakeholder analys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stakeholders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in Jeollabuk-do—officials, provincial support centers, cultural foundations, art institutes, etc.—regarding the evaluation of the first Jeonbuk plan and the tasks of the second plan. Based on the tasks that were drawn up, 30 relevant stakeholders were surveyed online twice about the direction of the second Jeonbuk plan and its crucial tasks.
- (Consult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The final 25 tasks for the second Jeonbuk plan were confirmed through discussions about the project among concerned officials of the provincial support centers—the main responsible stakeholders—on the strategy and the 29 tasks that were refined after consulting with experts.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Policy suggestions for supporting arts and cultural education

- Following the second Cultural and Arts Education Plan, this research proposes three goals, nine strategies, and twenty-five tasks under the vision of "autonomous arts and cultural education with more residents of Jeollabuk-do" after exami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Jeonbuk plan, analyzing local situations and cases, and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stakeholders.

- Compared to the first Jeonbuk plan, this research expands into the policy scope as set by law—culture and arts, cultural heritage, cultural industries, etc.—and includes educational projects operated by the other departments in the second Jeonbuk plan. As the Ministry of Culture and Literature transferred major policies and projects to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is research presents detailed tasks and execution plans considering Jeollabuk-do's new role.
- While the first Jeonbuk plan focused on a foundation of provincial autonomy, the second plan focuses on a foundation of local autonomy and subsequently discovers appropriate tasks. The second Jeonbuk plan also features: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support system to give autonomy to local governments; financial goals for the planning period; subjects and tasks regarding province-specialized arts and cultural education, including cultural heritage education, disabled and foreign resident education, etc.; and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value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s one of the three goals.

■ New roles for the province are required in accordance with cultural aut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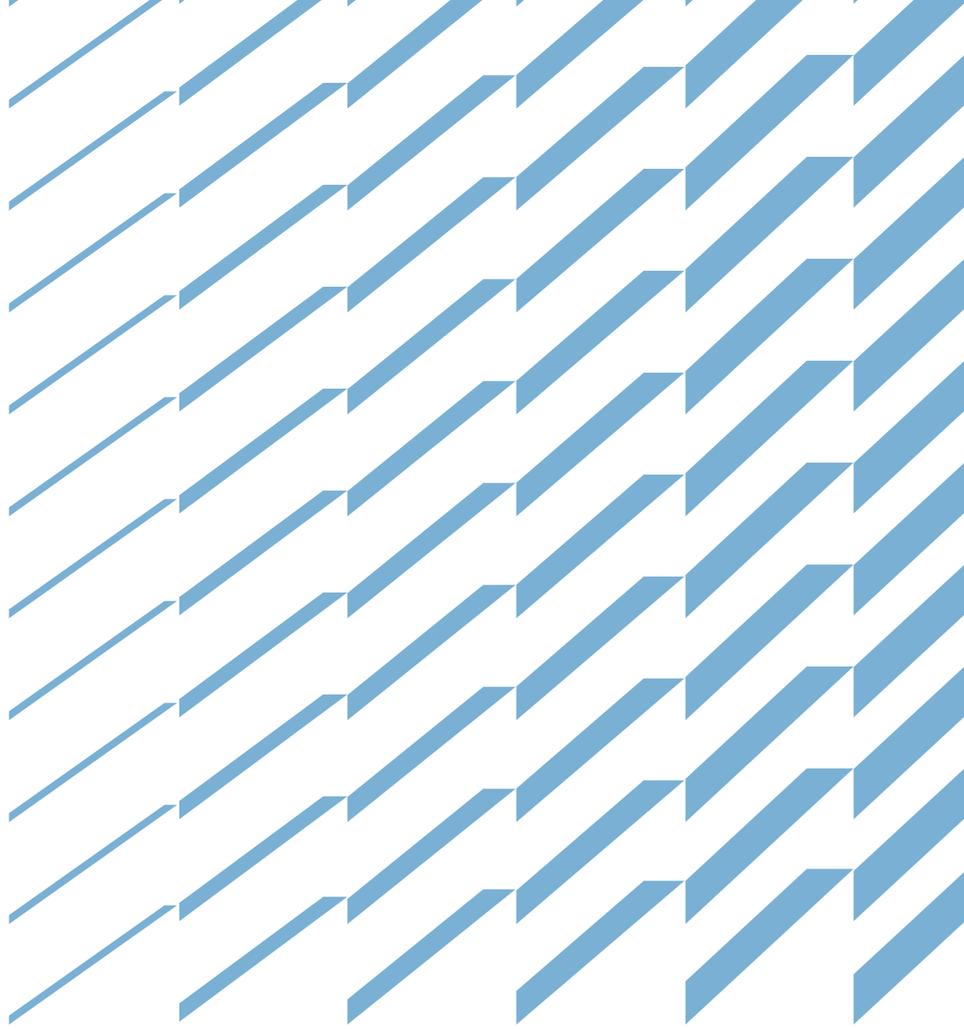
-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second Jeonbuk plan,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new role of the province in accordance with cultural autonomy. Instead of implementing projects that are delegated by the Ministry without accounting for local situations, the province should discover and develop its own policies and tasks. In particular, because this is the first plan related to cultural autonomy, the focus should be on establishing the basis for the components of cultural autonomy, such as

systems, finances, an execution plan, and self-governing capability.

- Provincial support centers should focus on providing an educational environment and building foundations that link with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cultural autonomy and not simply outsource or manage projects on their own. Jeollabuk-do should change its perspective on support centers and support them accordingly; support centers should also perform the functions required in this new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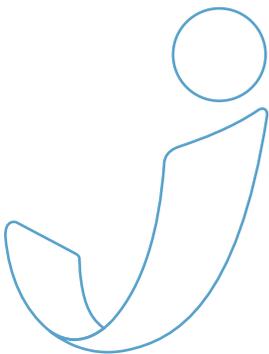
Key Words

Cultural and Arts Education Plan, Cultural autonomy, Self-governance, Cultural heritage, Educational projects



부록

1.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설문지 (1차)
2.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설문지 (2차)



부 록

APPENDIX

1. 제2차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관련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설문지 (1차)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방향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에 응답하신 내용은 '제2차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계획 (2023-27)'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조사자의 의무)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주관] 전북연구원 (연구책임 장세길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문의] 신지원 전문연구원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063-280-7142)

1. 전라북도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부족
- ②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부족
- ③ 문화예술교육 조례의 부재와 실효성 낮은 조례 내용
- ④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 예산 투자의 부족
- ⑤ 지자체-문화재단(지원센터)-현장의 사업 체계성 부족
- ⑥ 평생교육과 생활문화와의 연계 협력사업의 부족
- ⑦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의 부족
- ⑧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미흡
- ⑨ 다종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콘텐츠)의 부족
- ⑩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
- ⑪ 소수 중심 집중교육에 따른 정책 수혜자의 절대적 부족
- ⑫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협력 부족
- ⑬ 기타 ()

2. 제2차 전라북도 계획(2023-2027) 기간에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환경 변화 중 **가장 주목하거나 대응해야 할 환경적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고령화 사회, 외국인주민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
- ② 도시(수도권·전주) 집중화로 시군(도농) 불균형 심화
- ③ 문화정책의 지방이양 가속화와 지역의 역할 증대
- ④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 ⑤ 친환경/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 제기
- ⑥ 양극화, 사회적 갈등 심화에 대한 문화의 역할 강조
- ⑦ 예술대학 축소 등 예술인 양성기반의 축소와 변화
- ⑧ 시군문화재단 설립 등 공조직을 통한 문화정책 확대
- ⑨ 기타 ()

3. 제2차 전라북도 계획(2023-2027)에서 **집중해야 할 전략적 접근**은 무엇입니까? 각 항목(2.1 ~ 2.6)의 보기 ①, ② 중 귀하의 생각과 더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input type="checkbox"/> ① 특정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input type="checkbox"/> ② 일반 국민 대상으로 확대, 더 많은 도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2-2	<input type="checkbox"/> ① 공공 기능의 문화시설 등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에 집중 지원
	<input type="checkbox"/> ② 민간 시설(백화점 문화센터, 대학 평생학습원 등)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2-3	<input type="checkbox"/> ① 문화예술교육의 독자적 영역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input type="checkbox"/> ② 생활문화 및 평생교육과 통합하여 포괄적인 사업으로 진행
2-4	<input type="checkbox"/> ① 사설학원 등은 제외한 공공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유지
	<input type="checkbox"/> ② 생활체육처럼,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시장의 활성화
2-5	<input type="checkbox"/> ① 예술의 기능교육 및 감수성 증진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②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그램
2-6	<input type="checkbox"/> ① 소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
	<input type="checkbox"/> ②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

4. 제2차 전라북도 계획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강조하였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인식의 확산)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인식 확산
- ② (다양성 증진) 다종다양한 문화예술교육
- ③ (대상의 확대) 더 많은 도민의 교육 참여
- ④ (방법의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체계 구축
- ⑤ (목적의 확장)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문화예술교육
- ⑥ (특성화 강화) 문화예술교육의 전북 특성화
- ⑦ (전문성 심화) 교육 관계자의 전문역량 강화
- ⑧ 기타 ()

5. 다음 제시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정책 내용**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전북도 정책 예산의 시군으로 포괄 보조(이양)
- ②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의 확충과 활성화
- ③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및 전문단체의 지원
- ④ 다종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⑤ 문화예술교육의 민간 시장 활성화 지원
- ⑥ 생활문화·평생교육과의 협력체계구축과 공동사업
- ⑦ 시군 간 문화예술교육 불균형(격차) 해소 사업
- ⑧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
- ⑨ 기타 ()

6.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확대
- ② 일반 국민 전체 대상의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 ③ 지역 특화형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 ④ 사회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의 확보
- ⑤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
- ⑥ 학교-사회 간 문화예술교육 협력
- ⑦ 사회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과 전문단체의 양성
- ⑧ 사회 문제 해결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⑨ 온라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발
- ⑩ 기타 (_____)

7.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교 예술강사의 처우 개선
- ② 신규 학교 예술강사의 발굴
- ③ 정규 교과 중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 ④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교수 방법의 다각화
- ⑤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
- ⑥ 학교-사회 간 문화예술교육 협력
- ⑦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 ⑧ 지역 문화예술 자원의 적극적 활용
- ⑨ 온라인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개발
- ⑩ 기타 (_____)

8. 귀하께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어떤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 ① 지자체 공무원
- ② 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위탁기관) 관계자
- ③ 문화예술교육 단체·기획자
- ④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 ⑤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 ⑥ 문화예술교육사
- ⑦ 교사·교원·교육청
- ⑧ 문화시설 종사자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등)
- ⑨ 문화예술교육 전문가(학계, 연구자 등)
- ⑩ 그 외 (_____)

9. 귀하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예술 장르**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 ① 국악(전통예술)
- ② 음악(서양고전음악, 대중음악)
- ③ 연극·뮤지컬
- ④ 무용
- ⑤ 미술·공예·디자인
- ⑥ 사진
- ⑦ 만화·애니메이션
- ⑧ 영화·영상·미디어
- ⑨ 건축
- ⑩ 문학(인문학)
- ⑪ 복합장르
- ⑫ 기타(_____)
- ⑬ 예술계에서 활동하지 않음

※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에 응답해 주십시오.

10. 위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제2차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관련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설문지 (2차)

□ 1차 조사 결과

○ 1차 조사의 주요 항목별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라북도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 (응답비율이 높은 3개 항목)
 - 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부족 36% > ②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 예산 투자의 부족 31% > ③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 17%
2. 제2차 전라북도 계획(2023-2027) 기간에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환경 변화 중 가장 주목하거나 대응해야 할 환경적 변화 (응답비율이 높은 3개 항목)
 - ① 문화정책의 지방이양 가속화와 지역의 역할 증대 51(%) > ② 도시(수도권·전주) 집중화로 시군(도농) 불균형 심화 32% > ③ 고령화 사회, 외국인주민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 20%
3. 제2차 전라북도 계획(2023-2027)에서 집중해야 할 전략적 접근

답변		N	비율
3-1	① 특정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8	26.7%
	② 일반 국민 대상으로 확대, 더 많은 도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22	73.3%
3-2	① 공공 기능의 문화시설 등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에 집중 지원	21	70.0%
	② 민간시설(백화점문화센터, 대학 평생학습원 등)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9	30.0%
3-3	① 문화예술교육의 독자적 영역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프로그램 운영	19	63.3%
	② 생활문화 및 평생교육과 통합하여 포괄적인 사업으로 진행	11	36.7%
3-4	① 사설학원 등은 제외한 공공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유지	10	33.3%
	② 생활체육처럼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시장의 활성화	20	66.7%
3-5	① 예술의 기능교육 및 감수성 증진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8	26.7%
	②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그램	22	73.3%
3-6	① 소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	5	16.7%
	②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	25	83.3%

4. 제2차 전라북도 계획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강조하였으면 하는 내용 (응답비율이 높은 3개 항목)
 - ① (인식의 확산)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인식 확산 52% > ② (특성화 강화) 문화예술교육의 전북 특성화 29% > ③ (목적의 확장)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문화예술교육 28%
5.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정책 내용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응답비율이 높은 3개 항목)
 - 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및 전문단체의 지원 38% > ② 전북도 정책 예산의 시군으로 포괄 보조(이양) 34% > ③ 다종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29%
6.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응답비율이 높은 3개 항목)
 - ① 일반 국민 전체 대상의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38% > ② 지역 특화형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28% > ③ 사회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과 전문단체의 양성 25%
7.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응답비율이 높은 3개 항목)
 - ① 지역 문화예술 자원의 적극적 활용 36% > ② 학교 예술강사의 처우 개선 27% > ③ 정규 교과 중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25%

- ①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꿈꾸는 예술터) 확충 ② 민간 문화예술교육 시설의 지원
- ③ 교육기간이 짧지만,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산 ④ 사업의 홍보 강화
- ⑤ 사회복지·평생교육 분야 연계 및 공동사업 확대 ⑥ 기존 문화시설 활용 교육사업 확대
- ⑦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개발과 지원 ⑧ 사설 학원 지원을 통한 교육대상자 확대
- ⑨ 기타 ()

<질문4> 전라북도를 특화한 교육, 사회문제(인구감소, 지방소멸, 환경위기, 범죄, 질병, 갈등 등)를 해소하는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문화예술교육 리빙랩 사업 추진 ② 문화예술교육으로 사회문제 해소 성공사례 발굴
- ③ 문화예술교육 관련 효과검증 연구 ④ 사회문제 관련 분야와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사업
- ⑤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사업 발굴 ⑥ 문화예술교육의 산업화 기반 마련과 지원
- ⑦ 사회적 이슈(ESG) 사업에 지원 집중 ⑧ 기타 ()

<질문5> 전문인력과 문화예술교육단체 활동이 활성화하려면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문화예술교육사의 활용(배치) 사업 발굴과 지원 ② 문화예술교육단체의 개념 정립과 전문화
- ③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활용 인센티브 제공 ④ 전문인력/단체관계자의 역량 강화 지원
- ⑤ 전문인력/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일거리 제공 ⑥ 정규 교과 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확대
- ⑦ 정책 결정과정에 전문인력/단체의 적극 참여 ⑧ 기타 ()

<질문6> 전라도민이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직접 교육사업에 참여하게 만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대중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② 언론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필요성 홍보
- ③ 문화예술교육 축제 등 대중 이벤트 개최 ④ 사회복지·평생교육 등과 협력사업 강화
- 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정보 제공 ⑥ 기후 위기 등 사회이슈 관련 사업 추진
- ⑦ 치유·돌봄 등 건강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⑧ 기타 ()

※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에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7> 답례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질문8> 위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정책연구 2022-27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방안 연구

발행인 | 권혁남

발행일 | 2022년 10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704-1 9537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